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등 선
편집인 이 철
주 간 김 형 필
편집장 김 영 권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 3 4 1 호
<주간>
1982년 4월 22일
매주 목요일 발행
(1 년 구독료 5 천원)
휴폐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말의 쓰임새 ⑭ 푸지다

「말의 수효와 내용을 푸지게 하여야 하며」「푸진 말을 넓히 또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이 글귀에서 「푸진, 푸지게」가 주는 본뜻이는 글이 뜻을 밝히지 않아도 깊이 잠긴다.

「푸진」「푸지게」의 원형은 「푸지다」이며 뜻은 「매우 많아서 넉넉하고 소탈하다」이다. 이번호 신문은 외대학교 창간 이래 제일 많은 16면. 그야말로 푸지다.

본보특집 16면 발행

2 면 : 민주주의의 실상과허상을 진단한다. 사설
3 면 : 한국교회의 사회의식 4.19 학생기념소고
4 면 : 자유시민즈—자유와혁명
5 면 : 한국 행정고시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문제점
6 면 : 70년대의 마당극 운동, 서평 : 한국 경제의 논리
7 면 : 자율적 대학어건의 조성을 위하여 · 낙서를 통해본 대학가
8 면 : 이벌선 한한세계 · 학생에세이
9 면 : 화보, 축시, 창간기념사
10면 : 세계속의 동문활약상 2000년대외대를위하여
11면 : 70년대 대학언론과오늘의 좌표, 정론의현장—빈의자 20년
12, 13면 : 특집 경제논단—70년대 불균형성장의 극복, 80년대 경제발전의 방향을 살핀다.
14면 : 4.19정신과 우리의 시
15면 : 독자가본 외대학보, 외대은을 그린다.
16면 : 기념소설「오만과빈궁」

용인대생, 체제개편에 불만표시

이문 캠퍼스와 동일한 학적 요구
수업 불참하고 식당에 모여 농성

◇…… 4월 8일 총장의 담화문으로 발표된 「용인대학의 체제및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용……◇
◇……인대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날 「용인대학의 어문계열 학과를 어문대학으로, 상경계열학……◇
◇……과를 사회과학대학으로 개칭하여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83학년도부터 실시한다」는 요지의 담화……◇
◇……문을 접한 용인대 학생들은 「기대에 어긋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용인대의 학생들은 13일 오전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식당에 모여 평화적 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주장은 이문캠퍼스 학생들과 학적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각학과장을 통해 수업에 참석하도록 학생들을 설득하는 한편 14일자 총장명의로 「이 대안이 승인된다면 용인이라는 지방명이 일체 대학명칭에 붙지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의 또 하나의 전기가 될 큰 결정 계획 예정인 기타 법과대학과 머물이 담당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동질성을 부여받고 학업에 분발한다면 이문 동문들을 앞지를 수 있는 사회적인 인정과 환대가 약속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제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할 용인대학 학적변경(학적 관계) 신청을 보류한다」

2. 본교학생 운영위원및 용인대학 대표간에 결정된 사항 (용인대학 학적문제에 대한 본교평의 수락여부)을 교무위원에 건의한다.

3. 상방의 종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는 본교학생 운영위원이 결정한다.

4. 상기 3항에 대한 사항을 교무위원은 즉시 귀가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통신한다.

5. 총장의 결정사항에 용인대학생은 따른다.

6. 이상의 종격안에 의해 용인대학생은 즉시 귀가하고 정상수업에 응한다.

7. 금번 소요에 대한 학생 징계는 불문에 부치되, 차후 어떠한 종류의 소요가 있을지라도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7개항의 종격안을 제안하여 담화하였고, 총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그 동안 과밀로 방황을 겪어 왔은 학생들은 학교측이 마련한 버스편으로 귀가하기로 하였고, 또 일부는 이를 거부하여계속학교에 있다가 16일 해산하였다.

모의 올림픽 참가종목 과별로 13일까지 신청

동·서양어대 학교학교단에서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게될 「모의 올림픽」에 참가할 경기종목의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종목은 여자는 농구, 배구, 소프트볼 중에서 2가지를 택할 수 있으며 남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중에서 3가지를 택하게된다.

접수는 4월 16일(금)오후 5시까지 동·서양어대 학도호국단에서 한다.

다방,5월부터 학생 직영화
필요인원 여학생아르바이트충당

금년도 총단이 중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교내복지시설 직영화의 첫 단계로서 다방의 직영화가 학교측과 공식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직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5월초가 될 것같다」고 총단측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직영화에 필요한 인원은 아르바이트 여학생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단은 4월16일부터 24일 사이에 8명의 여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에 필요한 서류는 재산세 증명서, 최근 본인의 인쇄사항, 학과장 추천서 등이다.

다방 직영화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액 장학금으로 쓸 계획이라 한다.

복지시설 직영화위해 「연구 위원회」설치

5월초부터 구내다방의 학생직영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학교당국과 총학도호국단측은 구내서점, 구내식당등 학내 복지시설의 직영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해「학생복지 연구위원회」를 지난 4월 3일 총장의 제가를 받아 설치했다.

이 기구는 총학도호국단측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모든 학내 복지시설이 직영화 될 때까지 공동조사와 연구·심의를 하게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토의하기위해 설치한 것이다.

학교당국과 학도호국단측은 직영화에 관한 문제는 모두 이 기구에서 토의해서 의견을 조정해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 기구의 참가범위는 학교당국에서 임진권 교무처장, 석일균 학생처장, 김종국 총무처장, 이희준재무처장등 6명이며 학도호국단측은 송정선 총학생장외 부학생장, 학생부장등 3명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19일부터 1달 교생 실습
사범대생등 교직 과정 이수자 142명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범대, 종·서양어대, 야간강좌등 4학년학생중 142명이 오는 19일부터 5월15일까지 4주간교생실습을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내남자고교에33명, 여고에 67명, 여중에 23명이 나갈 이번 교생실습에는 재(在)외국인 교육원에도 7명이 나가게 되어 시내 20개 학교에서 130명이 실습을 하게된다고 한다.

한편 지방에도 10여개 학교에 12명이 나가게 되는데 사범대 교학과에서 맡한 바에 의하면 지방고의 경학한 명단은 아직 파악할수 없다고 한다.

실습고교의 배정은 4월14일 오후 1시부터 학생회관 202호실에서 있었다.

외시 2명 최종 합격 조준혁, 이용석군

지난 달 26일 총무처에서 발표한 제16회 외무고시 2차 시험에 합격했던 본교생 및 동문 4명 중 2명이 3차 면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9일(금)오전 9시 반부터 종합청 제 1회의실에서 있었던 면접시험에 본교에서는 이번 2차 시험 합격자 4명과 작년 제15회 외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던 1명등 모두 5명이 응시하여 이중 2명이 합격한 것이다.

이번 3차 면접에는 2차 합격자 20명과 작년 15회 외시면접에서 불합격했던 9명등 모두 29명이 응시하여 20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16회 외무고시에 최종합격한 본교출신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준혁 (F. 82졸)
▲이용석 (E. 82졸)

등문 회장기 쟁탈 교직원 테니스대회

교직원들의 상호한합을 목적으로 한 제 7회 등문회장기 쟁탈테니스대회가 4월10일 교내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40여명의 교수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 B두 조로 나누어 복식시합한 벌어진 이날 대회에서 A조는 정일용 이종옥(E C과)교수가 B조에서는 이무선(A과) 이승택(P과) 교수가 각각 우승했다.

졸업 앤범 사진 촬영 개인 사진 단대별로

졸업준비원원회에서는 83학년도 졸업앨범사진의 촬영을 각 과별로 시작했다.

밝혀진 일정에 따르면 개인사진은 4월12일(월) 부터 14일(수)까지 사범대학, 15일(목) 부터 17일(토)까지 상경대학, 5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법정대학, 6일(목)부터 8일(토)까지는 E, F, N, SW과, 10일(월)부터 12일(수) 까지 G, R, S, I, P 과 13일(목)부터 15일 (토) 까지 G, J, Tu, Ir과, 20일(목)부터26일(수)까지는 야간강좌 순으로 진행한다.

단체사진 촬영은 4월12일(월) 부터 5월29일(토)까지 각 과별로 있을 예정이다.

축제중 번역 시화전 13일부터 출품작모집

학도호국단 문화부에서는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번역 시화전 출품작을 모집한다.

기간은 4월1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외도록 번역되지 않은 작품으로 각 과별로 접수하고 있다.

통역협, 오리엔테이션

통역협회에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자체종과 통시통역대학원에서 김이배 종시통역대학원장과 엄여화 박순탁 교수의 지도로 82학년도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특수 언어를 중심으로 통역의 원만적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회원 40명을 전회원이 참가했다.

▲구내다방부터 직영화하기로 —커피 많이 마시면 장학금 줄까?
▲이네르비에 진달래 만발 —꽃들감감한 곳사대가……

이번 학기 등록률 90.2%
현재 정원 9784명중 총 8968명등록

82학년도 제 1학기 최종등록률이 약 90.2%로 밝혀졌다.

이번 등록에는 9,784명의 현재정원중 서양어대 2,324명 종양어대 1,554명, 법정대 614명, 상경대 563명, 사범대 515명, 문리대361명, 용인대1,591명, 야간강좌 1,446명등 모두 8,968명이 등록하여 지난해기의 91.7%보다 조금 낮은90.2%의 등록률을 보인것이다.

한편 이번 학기 휴학자는 입대 휴학 600명, 일반 휴학 909명(본교 585명, 용인대 227명, 야간강좌 97명) 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정원중 등록한 학생수와 휴학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79년도 이전 입학자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9회 외문축제 5월12일부터
오락행사 중심으로 15일까지 나흘간
단과대학 행사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

개교 28주년 기념 82학년도 제 9회 외문축제가 오는 5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교내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법정, 상경, 사범, 문리대 체육대회가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각 단대별로 열린게 되며, 지난해까지 전체 체육행사로 거행되던 모의올림픽은 동·서양어대와 야간강좌 어학부만 참가하는 형사로 축소 조정되어 5월10일부터 13일까지 본교 대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가을에 종합학술제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여 학술행사는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에서 전체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오락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단과 주최행사를 예년보다 대폭 늘리고 단대수준에서 개최할 수 없는 행사만은 종단은 전체 마라톤행사를 5월14일에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여학생축제」「메인 페스티벌」은 예년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열리게되며 이 행사에 한해 티켓을 판매하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대행사는 동·서양어대학 공동주최의 「외국인 우리말 노래자랑」이 각대사범대 협조아래 15일에 열리게 되며, 법정대의 「교수·학생 친선바둑대회」가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게 된다.

또한, 사범대는 「역사와 지성인」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13일에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Sing A long」도 15일에 열 예정이다. 이밖에 상경대학은 「금융(金融)」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문리대는 당초 「모의복권추첨」을 계획했었으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술 강연회를 계획중이다.

이와함께 필요할 경우 경비보조를 해 시화전과 가면극연구회의 발표공연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축제기간동안 각 서클의 아르바이트활동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신청 최종 점검
14일부터 3일간 각 대학별로

교무처에서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과목이 출석부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타 이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실시전에 최종 점검을 4월14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이에따라 서양어대학은 4월14일 (수) 에, 종양어대학은 4월15일 (목) 법정, 상경, 사범, 문리대는 4월16일 (금) 에 각각 교무과에서 확인을 해 오는 4월21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처했다.

예년에 일련 확인기간을 설정한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졸류타처리에 익숙치 못해 학교당국과 학도호국단측은 모두 이 기구에서 토의해서 의견을 조정해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 기구의 참가범위는 학교당국에서 임진권 교무처장, 석일균 학생처장, 김종국 총무처장, 이희준재무처장등 6명이며 학도호국단측은 송정선 총학생장외 부학생장, 학생부장등 3명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제작자 151명에서 40명줄어
은행업무 병사관계행정지연으로

교무처 학력과에서는 82년도 1학기제적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학기 최종 제적확정자의 인원은 111명으로 밝혀졌는데 당초 151명에서 이같이 제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은행업무와 병사관계에서의 행정지연과 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대별 제적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서양어대학 29명, 종양어대 9명, 법정대학 7명, 상경대학 4명, 사범대학 4명 야간강좌 21명, 용인대학 26명의 순이다.

그런데 제적 사유별로 보면 미등록자의 수와 휴학기간 초과자의 수가 거의 반씩이고 「외국인 우리말 노래자랑」이 각대사범대 협조아래 15일에 열리게 되며, 법정대의 「교수·학생 친선바둑대회」가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게 된다.

또한, 사범대는 「역사와 지성인」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13일에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Sing A long」도 15일에 열 예정이다. 이밖에 상경대학은 「금융(金融)」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문리대는 당초 「모의복권추첨」을 계획했었으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술 강연회를 계획중이다.

이와함께 필요할 경우 경비보조를 해 시화전과 가면극연구회의 발표공연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축제기간동안 각 서클의 아르바이트활동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의저

상식의 한계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져야 할 표준지력」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미 세인 (世人) 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적당한 정도의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나, 논리도덕적인 규범들이 바르 이려한 상식에 속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귀납적으로 보편타당성을 인받은 단편적인지식들과 검증된 가설, 더부나 당연한 불리적인 지리드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식」도 불가피 시대와 이해충로기의 제약을 받고 한 사회의 문화양태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역시 이미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이다.

▲그렇고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 운운되는 근간의 논의들도 기실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물론 지나친 상대화를 피한다는 원칙하에 「상식」이라는 말이 시대와 이해을로기의 종속 가치로 용인되다는 가설을 세운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상 (像) 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부정의 조건을 전제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식이 아님이 상식이 되어버린 가짜의 상식」들과 상식의 한계는 결국 「지구는 네모반듯해야 한다」는 정도에 머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상식이란 일정한 영역에 머무름 수 밖에 없는 지적인 한계를 갖고 시대의 이해충돌기와 사회상황의 제한아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상식이 아닌 상식」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음」이라는 상황변수를 더할때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는 필연코 「상식을 넘어선 상위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다.

▲실로 미로의 연세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논리를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그 건부하고 당연한 소리로서 머리를 아련체임 취하게 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남비이다.

누구라도 이제는 이 시대의 결국에 스며있는 조직원상식의 전철을을의 거내고 명백한오류와 전리사이의 가부 (可否) 를 따져야 한다. 어제서 4월만 되면 어디선가 환상과 부르짖음의 꽃을 이 흘러오는것같고 수유리 뽓등마다 눈부신 진달래에 빗물이 고이는지, 그냥소 마저간 젊음의 혹사때가 물이드는 이 산하에 뜨거운 고뚜소리를 듣게하는지….

그것은 상식만 가지고는 체감 (体感) 할수 없는 것이다.

<김영권>

우리 民族의 저력과 슬기는 重工業立國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읍니다.

①우리나라중공업의 발자취(조선)

거북선도면

우리나라는 古來로부터 독특한 조선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高麗史「金方慶傳」을보면, 元宗15年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일본을 원정할 때 南宋군선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려식으로 선박을 건조한 결과, 연합군이 북구주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중국에서 건조한 배는 모두 침몰했지만, 고려식만이 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고려의 조선술이 중국식과 다를 뿐 아니라 더 우수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조선술은 이조때에도 계승발전되어 9여종의 다양한 군선과 조운선 등을 개발했고 특히 임진왜란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거북선과 같은 박람한 군선을 건조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수세기 동안 조선술의 진보없이 제례식 조선술을 고식적으로 답습한 결과, 세계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말았다.

1930년 전까지 우리조선업은 전근대적인 무동력목선의 건조와 수리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 이후 일선들이 전쟁수행의 필요에 의해, 방어진철공소, 조선중공업 등을 설립했으나, 조선기술은 그들이 독점했고, 우리에게는 조선에 관한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능공은 있어도 기술자는 없었던 시기였고, 우리 조선은 일본의 예속물로서 독자적인 조선업을 발달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8.15해방을 맞이하여 일본이 패수해 갔을 때, 빛낼 조선소의 빈약한 잔재만이 남아있었고, 더구나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년조선능력은 2천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후 오래도록 조선공업이 미약했던 것도 이러한 데에 연유하며, 그나마의 시설마저도 6.25의 전화로 파손되어, 조선공업을 일으키려던 정부의 노력은 자금난과 갖가지 악조건하에서 침체를 거듭했다.

本船이 주로 건조되던 50년대는 물론이고 6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낙후상을 면치 못했다.

구한말의 선박건조장

그이후 시설확충과 함께 상당 규모의 선박이 건조되었으나, 아직도 세계수준에는 미치지못하는것이었고, 박대한 자금과 선진기술을 요하는 현대식 대형 조선소의 건설은 요원하게만 느껴졌다.

황량한 울산미포만에 현대조선소가 착공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하에서였다. 참으로 힘든 결단을 현대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조선공업이 앞으로의 한국경제에 차지할 막대한 비중을 예견한 결과였다.

해방당시의 조선소

실로 조선업은 관련산업 분야에 높은 전후방 파급효과를 가진 종합공업으로서, 고용의 증대는 물론 수출 전략면에서도 경제개발계획 당시부터 중점산업 이었던 것이다. 드디어 1974년 한국중공업사에 새로운 강을 여는 단일규모로는 세계최대의 현대울산조선소가 준공됨과 동시에, 국내최초로 26만톤급 초대형유조선이 성공리에 건조, 진수되었다. 당시 우리 조선기술로는 초대형 유조선의 건조는 현대의 창조개척적 기업정신의 결정이었으며, 현대울산조선소의 준공은 한국조선공업근대화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후 꾸준히 의 오일쇼크와 세계경기침체의 높고 낮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온 한국조선공업은 이제 세계2위의 조선입국의 위치를 확보했다. 지난해 세계 신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은 10.4%를 점령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조선공업의 70%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연간조능력 950만톤, 최대선건조능력 100만톤을 갖추고 각종 유조선,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콘테이너선, 화물선등을 건조하면서 조선기술의 축적과 혁신에 힘써 국산화률 80%까지 끌어올린 경제선형 각종 표준선을 개발, 세계선박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조선분야 이외에도 각종 산업플랜트, 해양석유개발 생산에 필요한 사추진, 플랫트폼 및 해양구조물 등을 제작 수출하여 한국경제의 기반차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치 않고 세계정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국조선공업은, 괴속에 백백히 살아오르는 우리 조상의 슬기를 이어받아, 조선입국의 의지를 성실히 구현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초대형선박 건조광경

현대

알림

본보는 이번 개교 28주년, 창간 27주년, 4.19 22주년을 기념하여 제 341호 16면 특집을 발행한 후 중간고사관계로 한주간 휴간합니다. 다음제342호는 5월6일자로 발행될 예정이오니 독자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외대문학상 작품모집

기성문단에 민용태(S8.시) 송영(G6.소설)등 기라성같은 문재(文才)를 배출해온 외대문학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여 작품을 모집합니다.

박토(博士)의 대학여건에서 주준히 문학풍토의 배양과 외대문인의 산실로서 성장해온 「외대문학상」은 참신한 외대인의 신작소설 입재의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발굴하여 그 진통간 한국문학에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님의 가열 (硝烈) 한 창작열을 불태워 된렵 새로운 옥소리를 기대합니다.

▲모집부문 : 시(5편 내외) 소설(60매 내외) 평론(50매 내외) 번역(50매 내외)
(응모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접 수 처 : 외대학보(학생회관 309호)
▲마 감 : 1982년 8월말
▲심사위원 : 추후발표
▲상 금 : 〃

외 대 학 보

○… 우리는 해방이후 민주정치의 첫 걸음을 내…○…빛으면서부터 허다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1950년대에 접전한 자유당 정부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4.19 의거로 다시…○…는 있지 말아야할 교훈을 주었다. 민주주의의…○…본질은 국민의 뜻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 되는데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정치가…○…없이나 민주주의의 전필 이념에 행해지고…○…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Ⅰ. 서 론

해방이후 거의 40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여 온 말은 아마도 민주주의 일 것이다. 수천년동안 왕조이외에는 어떤 정치형태도 가져 보지 못한 나라에서 그 수천년동안 한번도 뜯도 쓰도 못한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제방을 넘은 홍수처럼 도도히 밀려 와서는 온통 세상을 민주주의라는 구호로 휘휩으로 휘몰은 것이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정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에게도 명백치 않았고 그 아무도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는 명백히정의를 내리지도 않았다. 그 누가 정의를 내리든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미지(image)에서는 벗어나 있는것이고, 설혹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미지에 상당히 부합해 있는것이라 해도 그것의 현실화에는 또한 요원한 것이 되어있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무지개처럼 명확히 보이는 것같으면서도 무지개처럼 가아가 보면 더 먼 언덕에 있었고, 가를날 소나기처럼 누구에게나 갈증을 풀어줄 것 같으면서도 신기루처럼 환각으로만 다가 올 뿐이었다.

Carl L. Becker의 말처럼 그 민주주의란 어휘년 한 결같이 방심되는 정확한 대상도 없었거니와 구체적인 준거(準拠)의 틀도없었다. 그 민주주의는 의치는 사람에 따라서 실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는 여행을 가방과도 같은 개념적 핸드백이었다. 누구나 넣고싶은 사회적 사실, 법도적 현상, 가치체계 지선(至善)—그무엇이든지 넣고싶은 것은 다 넣을 수 있는 자유자재한 스킵이었고 신통무쌍(神通無雙)한 고무공이었다.

원하기만 하면 독재정치도 그 속에 들어갈수 있었고, 나폴레옹씨독이건 스바린 소비에트씨정건 힛틀러 씨 쫏소리나 나찌스 파시스트체건 모두 모두 그 가방 속에 편안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스시대 군주제 귀족제에 대한, 다수지배의 정체 (政体) 라는 형태로 대밀된 이 민주주의 (원래는 Constitutionalism 입정주의 주주의의 진정한 이념과형태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민주주의를 허위며 허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가지 각색의 수식어를 계마다의 민주주의 앞에 나열해서 나타나다는 지역마다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진실로 좋은 이념 이라고 설득하고 변호한다.

(憲政主義) 가 근세에 들어 와서 계몽사상가의 민민주권사상과 결합되고, 동시에 인권사상을 대표하는 자유, 평등이라는 두 이념을 내포한후부터는, 그것은 너무나도 보편화된 개념으로 널리널리 파용되어 잡다하기 그지 없는 정치적 입장에까지 무무무무 쓰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현실적인 정치현상의 특정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었고, 마나아가 인간이 응당 좇아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념으로 일반화서는 모든 사회계층과 계급을 총망라하는 보편타당한 이념의과 슬로 화면했다.

그리하여 185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민주주의는 <진실로 좋은 사회·정치이념>이라는 것에서 진실로 좋은 사회·정치이념은 <무엇이나 다 민주주의이다>로 바뀌었고, 그것은도 <내가 진실로 좋다고 생각되는 사회·정치이념이나 현재는 으뜸 민주주의이다>로 발바꿈되었다.

Tocqueville는 오로지 자유주의적인 것만이 민주주의라 했고, Marx는 그의 「컴퓨니스트 매니페스트」(공산당선언) 에서 공산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공산당만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갈파했다. 남부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1848년 프랑스 2월혁명으로 들려난 Guizo는 <군주주의자는 자기네 군주제야 말로 민주주의의 군주제라하고, 공화주의자는 자기네 공화제야말로 민주주의이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또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하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말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정부도 정당도 설 자리가 없고 어떤 권력도 권력도신 회할 수 없는 권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오늘날 역시 세계는 두 불덕으로 갈리어 게마다 민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삼업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교도(敎團) 민주주의 기본민주주의 일당 (一黨) 민주주의 행정민주주의 민족해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보르조아 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등 다양하고 다의적이며 아름답고 현란한 상징들이 선수들의 고유 넘버처럼 혹은 상가의 간판처럼 미덕 미덕 걸어 있는 것이다.

Ⅱ. 본 론

민주주의란도시 어떠한이 념이길래, 혹은 어떤 사고방식이길래 이처럼 갖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갖가지 분장으로나타나는가.

린컨대통령의 연설문에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한다면, <Hans·Kelzen의 규정대로 <국민에 의한 정치>는정치수단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둔 것이고 <국민을 위자가 정치권면에 부상되어 나옴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정치목적상의 원칙에 보다 액센트를 주는 정치가 현실적으로 강요되었다. 그것은 그를 집단의지의 표출이 너무나도 당연히 그를 전제의 이익이나 행복속으로 향하고 있으므로서이다.

이러하여 <국민을 위한정치>는 정치 목적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둔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후 약 200년간, 민주주의본질적 기준이 되어 온것은 수단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둔 <국민에 의한 정치>였다. 그것은 국민의 참여에 의해 지배자를 결정하고, 선거와 여론에의해 정책의 향방을 좇는 방법론상의기준이었다.

만일 소수 엘리트에 의해 지배자가 결정되고 정부정태가 이루어지고 정책의 향방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어떤 높은 목적, 어하한 선한 결과가 나왔다해도 결코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이며 결차이며, 이 방법과 결차인이 정당성의 근거 (根拠) 가 되는것이며, 이 방법과 결차에서 나온 결과가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그 결과는 목적적의 미가 있는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방법과 결차를 밟게하는 원인적 외미만이 간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법론상으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하는 <국민에의한 정치>가 국민의 절대적 다수를 위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절대적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닌 부유한 소수를위한 정치, 따라서 국민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을 보증해 줄 수도, 실현해 줄 수도 없는 형식적이고도 명목적인 정치로 끝날 가능성은 증분히 있었고 또 사실상그렇게 되기도 했던것이다.

미구나 한 국민의 집단적 의지의 표출은 <국민에의한 정치>라는 수단상의 원칙에만 결코 액센트를 두는 것도아니며, 스스로 잠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해서 그 수단상의 원칙에만 또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다. 제한량등의 절제에 의해 해방된 수백만의 유권자가 정치권면에 부상되어 나옴으로써 오히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정치목적상의 원칙에 보다 액센트를 주는 정치가 현실적으로 강요되었다. 그것은 그를 집단의지의 표출이 너무나도 당연히 그를 전제의 이익이나 행복속으로 향하고 있으므로서이다.

이리하여 <국민을 위한정치>는 정치 목적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둔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후 약 200년간, 민주주의본질적 기준이 되어 온것은 수단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둔 <국민에 의한 정치>였다. 그것은 국민의 참여에 의해 지배자를 결정하고, 선거와 여론에의해 정책의 향방을 좇는 방법론상의기준이었다.

만일 소수 엘리트에 의해 지배자가 결정되고 정부정태가 이루어지고 정책의 향방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어떤 높은 목적, 어하한 선한 결과가 나왔다해도 결코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이며 결차이며, 이 방법과 결차인이 정당성의 근거 (根拠) 가 되는것이며, 이 방법과 결차에서 나온 결과가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그 결과는 목적적의 미가 있는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방법과 결차를 밟게하는 원인적 외미만이 간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법론상으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하는 <국민에의한 정치>가 국민의 절대적 다수를 위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국수 있다는 생각은 증분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전제주의 이름의 빛받침이고 그리고 전제주의적 혹은 독재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과 주장의 성립요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수단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두어 자유민주주의가 전짜 민주주의라 하고, 반대로 전제주의 국가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목적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두어 전제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야기되는 민주주의 개념상의혼치>라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이상으로 사회적 요구의 전면에 부상되어나왔고, 그리고 이 <국민을위한 정치>가 강인한 현실적 요구로 일단 부각되면서부터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수단상의 원칙에 곡 의존할 필요도 없는것이 되었다. 설혹 독재라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것이면, 따라서 <국민을 위한정치>가 되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이상으로 사회적 요구의 전면에 부상되어나왔고, 그리고 이 <국민을위한 정치>가 강인한 현실적 요구로 일단 부각되면서부터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수단상의 원칙에 곡 의존할 필요도 없는것이 되었다. 설혹 독재라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것이면, 따라서 <국민을 위한정치>가 되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될 것이다 라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이상으로 사회적 요구의 전면에 부상되어나왔고, 그리고 이 <국민을위한 정치>가 강인한 현실적 요구로 일단 부각되면서부터는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수단상의 원칙에 곡 의존할 필요도 없는것이 되었다. 설혹 독재라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것이면, 따라서 <국민을 위한정치>가 되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증분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상 전제주의 이름의 빛받침이고 그리고 전제주의적 혹은 독재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표현과 주장의 성립요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수단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두어 자유민주주의가 전짜 민주주의라 하고, 반대로 전제주의 국가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목적상의 원칙에 액센트를 두어 전제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야기되는 민주주의 개념상의혼란 또한 여기에 비롯되는 것이다.

이 수단과 목적의 분리—<국민에의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불일치에서 모두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지 가지 모습과 갖가지 의미가 연유되는것이다.

Ⅲ. 결론

그러나 어느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였든 결합적으로 이 두원칙이 상호의존적이거나 상호보완적이 되기 어렵다는데서 민주주의 개념의 모순과 민주주의실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즉 <국민에의한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장해주지 않고 <국민을위한 정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능력의 불평등을 제거해버릴 수 없는 이상 능력있는소수 엘리트, 경쟁력이 비상한 일부 개인들의 다수의 위를 제지하기 어렵고, 그것이 이러순한 <국민에의한 정치>는 <국민을위한정치>에서 머독의 밀어질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보다 전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보다효율을 강조하고 조직을 강화해서 전체에 등조하지못하고 개인 전체의 안녕과 질서에 기여하지 못하고개인 희망적이 되지 못하는 개인과 개별의식이 강한개인들을 모두 억압해서 국민당여의 정치, <국민에의한정치>에서 머독의 밀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내포되어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적인 지향을 주장하고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강히말한다. 비록 현재의 민주주의가보다 정치적 효율이 뒤떨어지는 점이있고 국민공통의 이익이나 행복의 실현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획득될 것인 이상 거기에 정치적 자기결정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기쁨을 얼마만한 다수가 누릴수 있느냐이며, 그러한기쁨만으로<국민에 의한 정치>가 언제까지나 보장될 수 있느냐이다.

전제주의적인 지향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어김없이 말한다. 현재의 전제정치 한번을 내세워 보다 많은 다수의 이익과효율을 외면해도 사회적 요구의 불충족에 직면하고, 전체와 효율만을 내세워 경쟁적 참여의 활동을 거부해도 사회적 요구의 불충족에 부딪친다.

경쟁적 참여만을 내세워 보다 많은 다수의 이익과 효율을 외면해도 사회적 요구의 불충족에 직면하고 전체와 효율만을 내세워 경쟁적 참여의 활동을 거부해도 사회적 요구의 불충족에 부딪친다.

그러나 어느 특에 치중했든 모두 국민의 정치에 기반에 있는 이상, <국민의 의정치>는 <국민을 위한정치>는 무시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한정치>는 <국민에 의한 정치>에서 머밀리 벌어질 수 없다. 경제정책 참여만을 내세워 보다 많은 다수의 이익과효율을 외면해도 사회적 요구의 불충족에 직면하고, 전체와 효율만을 내세워 경쟁적 참여의 활동을 거부해도 사회적 요구의 불충족에 부딪친다. 전자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불안의 고유한 개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다.

그리고하나의 개인에게도 등기부여가 없는 다수의 비슷비슷한 이익배분과 효율만으로 명목상이나마 <국민을 위한 정치>에 언제까지 들어져 있는 이상 거기에 공통의 행복과 이익이 있고 다수의 희열이 있으며 사회적 통합과 질서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모두를 위하는 것은 아무도 두 위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등기부여를 외면한 다수의 희열과 효율이 계마다의 고유한 개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다.

그리고하나의 개인에게도 등기부여가 없는 다수의 비슷비슷한 이익배분과 효율만으로 명목상이나마 <국민을 위한 정치>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어느 특에 치중했든 모두 국민의 정치에 기반에 있는 이상, <국민의 의정치>는 <국민을 위한정치>를 무시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한정치>는 <국민에 의한 정치>에서 머밀리 벌어질 수 없다. 경

민주주의의 실상과 허상을 진단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론 대두도 국민에 의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불일치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병폐 나타나

송 복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정치사회학과 대학원 정치사회학과 강의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의 절대적 다수를 위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되어야 한다>

사설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생각한다

부산 미국문화원사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아도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범죄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던 여러가지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많은 새로운 문제와 물음을 제기시킨 복잡한 사건이었다. 우리모두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대하여 한 번 반성케 하고 각성하게 하는 계기였다.

그것은 특히 한국 대학의 사건이었다. 대학생들에 의하여 방화되었고, 대학생들이 파죽고 다쳤으며, 대학의 지하 서어클이 불탔고, 대학의 이념을 교육을 강화해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의 문제들이 다시 한 번 사회의 관심을 끌게했고, 이제까지 대학이나 정부당국의 문제였던 대학생들의 소위 의식화문제가 이젠 사회전체의 이목을 끌게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국의 모든 대학인들이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냉정한 자기반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는 어떠하며 대학인들의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배경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이 아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모든여건이 다 정상궤이고 순조로워서 사회에 대하여엔 혀 부관심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고, 어떤 외미에서는 부관심해도 안 될 것이다. 이 사회속에서 활동하며 그렇항을 받고, 거기에참여하고, 거기에영향을 주는 앞으로의 지성인 후보생들인 학생들도 사회에 대하여 예리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없고 또한 기울여야 한다. 그러고 사회의 현실이 아직 때묻지 않은 단순상과 정의감은 사회의 여봉쥐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우리와 국교관계를 맺고있는 외국기관에 불을 지르며 무뢰한 희생자를내어야 할만큼 국단적 상황이며, 그런 행위를 해도 좋을 도덕적 권리가 주어졌는가?

우리는 좀 냉정하고 책임있는 비판적 반성을해 보아야 하겠다.

대학은 관념으로 유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마음껏, 온갖 종류의 관념으로 유희할 수있는 특권과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어떤 주장도 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주장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본질에 속한다.

그러나 대학은 관념의 운동장이기때문에 그 관념들을 실천으로 옮길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대학인들의 관념적 유희는 유희이기때문에 실험적이요 따라서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행동으로 옮겨도될만큼 부르릭은 관념의 체계는 대학인에게요구될 수도 없고, 요구되어서도 안된다. 모든 이념들로기는 대학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이때을 로기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내부 심각하고, 더부 심각한 것은 학문의 유희성을 죽이고 만다. 외국기관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게하는 것이 장난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은대학생들의 본분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

오늘날 대학은 그 자유와 자율성이 계속해서위협을 받고 있다. 그 위협들도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대학이 대학의 본연의 모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 권력도, 금력도,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대학의 관념의 유희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번 방화사건은 그 배경이 어떻든간에 우리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이었다.

미데 라바

▲아주 느리게 걷는 사람들도, 언제나 곧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뛰어가되 곧은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보다 더욱 신전할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분명한 이치를 잘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는다 하여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서있는 현재의 나를 다시한번 바라보고 어떠한 목적지에 어떻게 향해야 고있는가를 성찰해 봄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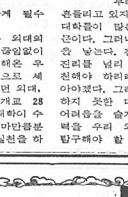
『나는 내 탐험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위하여, 참된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가려낼수있다는 국도의 열의를 늘 가지고 있다』고 한 데카르트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와 나의 사회를 냉철히 판단하고 참된 것을 따름을 앞세워, 우리는 확실한 삶의 근거이래 이땅에서 살수있고 또 행복하게 필수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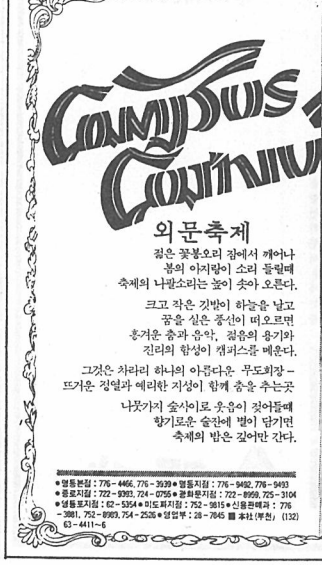
▲「대학」이란 이름하에 젊어온 외대의 발자취는 어떠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실천해온 우리들의 증거였다. 시대적 요청으로 세워져 창립 스무해쯤서 출발했던 외대, 지금은 일직 삭관을 넘어서 개교 28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의 대학이 수행해야 했던 역할에 비해 얼마만큼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실천을 하고 지금 이자리에 까지 와 있는가를 되돌아 볼 때이다. 그것이 상황의 문제이든, 주체적 역량의 문제이든 어쨌야 할 소원감을 스스로 해부해볼 필요는 없이 지금의 우리의 자세이리라.

▲「오늘의 대학은 그설땅이 어딘가」 의식의 결여한 대입, 사회와 대학과의 관계, 세계를 호흡하는 외대의 「개척자 패이즈」 아래 비친 시(時) 와 공(空)의 위치는 어떠해야 할것인가 지금의 대학은 미로를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뜨거운열기의 장소로, 진정한 진리가 빛을 발하는 지성의 장(場)으로 대학을 도약해야한다. 절서나 순리에 따른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현대의 대학생은 더 나아가서 다가오는 역사의 주체로서 어떠한 역할의 외지를 인지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연구·봉사—현재 대학의 이념은 진리탐구라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그 「진리」 자체 마저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은 오늘날 대학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의 많은 진리의 빛을 놓는다.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진리를 널리 알리며 진리를 위해 실천해야 하리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말아야겠다. 그러고 28년의 역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역량과 노력을 우리 외대인은 스스로 지니도록 힘구해야 할 것이다. <도>





품위와 개성의 새로운 만남
비제바노 "노빌레타 샌들"
세계 최고의 제화 기술을 자랑하는 이태리의 예술감각이 비제바노에서 재현됩니다. 발끝에서 반짝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감각, 메탈칼라—구두패션의 본고장로마 '비아델포르소' 거리의 샌들 콜렉션 '노빌레타 샌들' (NOBILETA SANDAL) 그것은 캠퍼스의 뜨거운 시선을 당신의 발끝에 머물게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 비아델포르소 (VIA DEL CORSO)
본명서 파리가 화류패션의 본고장이듯이 이태리 로마의 패션거리인 '비아델포르소' 는 최고구두를 비롯한 가방, 벨트등의 피혁제품과 금속장신구의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이 모인 구두패션의 본고장입니다.

貴族의 品位—비제바노
VIGEVANO

한국교회의 사회의식

——선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 갱신의 방향

김 지 완

Ⅰ. 문제의 제기

한국 개신교는 1984년으로 선교 100주년을 맞게된다. 세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비할때 우리의 기독교사는 결로 길지 않은 연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 개신교는 세계 교회로부터 「경이의 성장」이라고 주목받는 급성장을 이룩했다. 물량적인 면에있어서의 규모와 질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장일변도의 교회의 도습은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교회의 모델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되는 것은 성(聖)과 속(俗)의 분리, 즉 교회와 사회의 이원론적 분립(分立) 개념으로 특징지워지는 주제사업, 현금의 사회참여등포함한 사회의식의 빈약함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주로 양적팽창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봉사의 문제와 관련시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급속한 양적팽창의 부작용

교회가 외형적으로 팽창해 가면서 그 내부적 모습이 느꼈킬 것은 교단의 발족인 분립현상이 잦 발해주고 있다. 한국개신교단중 가장 많은 분립을 겪은 장로교의 경우를 예로들면, 61년도 2개교단에서 71년 8개교단, 81년 현재 29개교단으로 되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이러한 분립의 근본적으로는 신학사상의 차이에서 오는 분립도 있었지만 기복교장로회와 예수교장로회의 분립이후 거개의 분립이 양적인 팽창에 따른 교회운영의 혼란 와중에서도 단지 고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있겠다. 최근 한국개신교 선교초기에 선교사들이 그들의 포교(布敎) 원칙으로 삼았던 Nevius원칙이란 교회의 자립능력을 키운다는 전제아래서 시작된 긍정적인 방법이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교회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족교회를 수립할수있는 하나의 발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Nevius식 선교방법은 교회단위마다 드린 문제를 관결지어야 한다는 그 원칙이 개교회중심주의를 낳게 했고, 급속한 양적팽창이 일부교회에 근중교그, 드바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같은 교단없이도 불구하고 덩치는 차이가 있는 불협화음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한국교회팽창의 주요한 원인이자 부작용의 진원(震源)으로서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소위 부흥회식의 집회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운동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의 의식근저에 흐르고 있는 샤마니즘, 즉 무속신앙은 기독교의 성령론이 개창길 없이 받아들여질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창값없이, 다시 말해서 전지한 신학적 검증없이 받아들여진 「성령」은 현당과 현세, 하늘과땅 속세와 계주등 성서에 나타나는 수사학적 표현들의 과대이용과 함께 한갖 무속의 「귀신」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까지 있다.

오늘날 한국교계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성령의 그릇된 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흔히 「은혜」라고 표현되는 어떤 「체험」들은 다신의 기복 신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복음의 전체성과 괴리된채 『교회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현실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가자』 논식의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을 만연케 했다.

이러한 사고의 신앙은, 즉, 『세상은 악하다……』, 『세상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동시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희는 세상의 빛과……』라는 말씀과 같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전경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상태에서는 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되게 심어질수가 없다.

Ⅲ. 한국교회의 사회의식

어느 신학자는 한국 프로테스탄트 90년사를 회고하면서 『차라리 이교(異敎)와 탱신(盲信)의 시대였다……』고 자탄하고 있다.

교회가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그때 그때의 구체적 사회상황에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부적 분열만 일삼은데, 교리팽창에만 급급했을 때, 기독교는 결국 영원히 이방종교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이란 없듯이 예수 불구하고 「성(聖)」속에 안주하려 「속(俗)」에의 초연함을 표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는 종교적 바보 (Taboo)를 이용한 안일한 도습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교회생활과 윤리의식에 대한 메시지가주류를이룬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세분해서 보았을 때 다분히 「개인적」 교회의무이며 「개인적」 윤리의식의 강조임을 알수 있는데, 「신앙문제」를 주제로 한 설교만을 최선책으로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날 7백만을 헤아리는 교인과 2만을 넘는 교회를가진 기독교가 『구제사업에 인색하다』 『사회투자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사회구원」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내걸기 이전에, 초대교회 이래로 전통이 되어온 바대정신, 구제정신마저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은 곧 거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의료사업 육영사업(대체로 감리교단)을 통해 대(對)사회봉사의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예산 가운데 겨우 15%정도가, 그것도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교단에 내는 현금이거나, 개척교회 지원비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없다.

해마다 성탄절무렵이면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하지만 일년에 연말불우 이웃들가를 제외하고, 교회가 구제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단일교회 예산이 60억에 이른다 교회도있고, 7백만 교인이 내는 헌금이 거의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2조원의 예산이 거의자체경비에 충당된다고 하면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죄질한 부림」이라고 한들 지나치지고 할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Ⅳ. 맺는말

들랑팩 성장이 곧 교회성장의 전부같이 착각되어서도 안되며 그렇게 된경우라면 이런 소아병적 환상에서 깨어야한다.

「좀더 많이」, 「좀 더크게」 따위의 구호의 그늘아래서 오히려 복음의 참모습이 왜곡되어인식된다면, 의도와는 달리 선교의 문을 좁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미 나빠나고 있는 교회의 귀족주의화경향도 그러려니와, 토한사회의 불안, 민중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이용한 「비종교적 사기극」 따위는 절저히 배척해야 할일이다.

오로지 주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며 한사건의 표출은 지속된 흐름의 연계적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역사의 순리적인 진보의 흐름이나 또는 역사의 전환점의 계기는 내적요소의 성숙의 선행에 따른 외부의 충격으로

4·19혁명 평가에 대한 평가

시론

전 찬 호

Ⅰ. 학생운동의 여러가지 성격

식민지의 예속적 결과에서 2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독립을 쟁취한 후발신생국가에서의 학생운동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후진국의 민족주의가 그 성격에서 상이한 양상을 지니는 것처럼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막연한 거부의식의 성격을 띤 차원에서 비롯하는 신진세력의 「스튜던트 파워」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서구와 신생국간의 이러한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변혁적·전보적 의기의 운동을 배태시키는 제육가간의 전반적인 상황이서로 상반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한면 신생태방국인 후진국들의 구조적인 특성은 대외의존적이라는 사실 (외적 이라한 상황은 경제적인 면에서 두드러지 나타난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2차대전 이후 후진국들에게 경치적인 영향을 끼식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생국이 원하는 자립경제의 확립에 필요한 자본부족의 당면 해결과제는에 국국이의 해 근거한 경제적인 원조등이 이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과 그에 상응하여 후진제국 내에는 민족주의와 윤리를 기성속과같은 제여건으로 뒤쳐적인 체계가 자리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식민체계하에서 민족의 총체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려 지배자 측 강대국과 이에 부응한 토착세력과의 부랑에서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은 좋은 지성인 탁는 학생·열사, 의사들이다. 따라서 이같은 학상의지는 독립이후에도 민족의 생존권적인 문제와 결부된 민족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이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학상운동도 또한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1960년의 4·19도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있는데, 이날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이승만독재정권을 붕괴시킨 민족사에 있어서 최기록인 전환점을 이룬 날이었다. 하지만 4.19의 기본정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사이에서 잊혀져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좀고 (沼秀)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격류하는 세계의 시점에서 국가의 발전을 내다보며 그 의의를 재세겨보려고 한다.

Ⅱ. 4·19에 대한 기존평가의 한계

한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의 평가에 대한 전제조건은 객관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며 나아가 객관적인 시각에 조명된 다각적인 상황인수들을 고찰하면서 민족사의 순리, 즉 민족주의의 관점하에 하나로 집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평가가 편향된 역사적 사실이란 언제나 현재를 재조명할 수있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때 이러한 논거는 4·19의 의의에 대한 평가절하로서 밖에 볼수가 없다.

둘째로, 4·19를 조국의 민주화 혁명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혁명적인 전개는 반(反)독재 민주부쟁이었으므로 이를 기치로 낙관론적인 생각을 견제하는 측이다. 이러한 평가는 대개 4·19혁명을 직후하여 만개되어졌었다. 외형적으로 형상화된 4·19혁명은 분명히 한 시대의 전환점을 이룬 민족사의 한 분(節)이었던 까닭에 이들의 평가는 외부적 여건에 대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19를 재평가해볼 때, 4·19는 그 혁명의 주체세력인 학생집단이 그 신분적인 성격으로 인해 혁명의 자율적인 힘을 지속시킬만한 능력을 가질수없었으므로 이를 잇는 이념의 지속화가 요구되는 내적인 힘을 집약시키지 못한 채 내외적인 여러 돌출기 속에 함몰되고 말았던 미완의 혁명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Ⅲ. 4·19혁명주체의 한계성

우리의 한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어 놓은 순리적인 진보의 흐름이 부기력함은 결국 민족의 에너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제 4·19혁명주체인 학생 당시의 개량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자. 우선, 우리는 4·19혁명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이 혁명의 씨앗을 잉태할만큼 충분히 절곡화해갔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조체인 이승만정권은 「관제공산국의 연출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독재적 정치체제를 구축해왔고, 경제정책의 부능으로 국민들은 궁핍과 부패속에서 생활을 연명해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혁명을 견지해 나가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수없었던 학생과 당시의 상황을 환기해보게 된다. 그리고 4.19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당시의 학생집단은 감정(Pathos)적인 열정 하나 만으로 혁명을 수행 하였음이 지적 되어야할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구호는 자유 민주주의에 따른 민족주의의 확립을 의미했지만 4월26일 이정권의 붕괴만으로 그들은 자족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혁명적 이념의 성취는 이상과같은 수준에서 머문 것이다. 4·19 세대는 독재정권 파도를 위한 근시안적인 안목에 방관해왔으며 이는 4·19의 이념과 의의 성취를 위한 평동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것이다.

4·19기념 학생소고

는 견일 파당성을 지니고 있는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적인 전제에대해서 생각해볼 때도 지적받을 사항이 있다. 즉 학생이라는 신분의 성격상 4·19의 기본정신이 위정자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학생의 「피에 대한 보답」이 결료로써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곧 4·19혁명의 주체세력의 미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격관실을 초월하여 단순한 피압적인 바법과 자아도취적인 안목을 지닌 것으로 이 견해는 5·16이후 퇴색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4·19의 이념을 오직 신생 후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4·19혁명을 후진국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겪고 있는 빈곤·우울·욕구불만·좌절감등을 핵소하 기위한 대중의 혁명위로로 파악하고자하는 논의이다」(신동아).

이 논의는 앞으로의 상황변수에 대한 명확한 시사를 던지고는 있지만 역사의 원동력이라 할 수있는 주체적, 민족사상적인 요를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듯 보이며 자칫하면 강자에 종속되는 숙명론적인 결함으로 빠져들 소지를 보이고 있다.

역사의 순리적인 진보의 흐름이나 또는 역사의 전환점의 계기는 내적요소의 성숙의 선행에 따른 외부의 충격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며 한 사건의 표출은 지속된 흐름의 연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4·19혁명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때, 4·19혁명의 올바른 시각정립은 필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 위한 전제로서 후진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양면적인 능동성을 살펴보는 일이다. 여기서, 양면적 능동성이란 민족의 정통적 주권을 이어나가기 위한 내·외적 상황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으로서, 그 하나는 민족사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강(自强) 능력을 발揮이며 다른 하나는 후진국의 총체적인 자율적 구조를 예측시키려 하며 이들은 혁명적 에너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제 4·19혁명주체인 학생 당시의 개량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자. 우선, 우리는 4·19혁명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이 혁명의 씨앗을 잉태할만큼 충분히 절곡화해갔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조체인 이승만정권은 「관제공산국의 연출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독재적 정치체제를 구축해왔고, 경제정책의 부능으로 국민들은 궁핍과 부패속에서 생활을 연명해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혁명을 견지해 나가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수없었던 학생과 당시의

신학사상의 토착화, 사회봉사에의 적극 관심이 과제

성령운동, 기복신앙통해 경이적 물량 성장

같이……」, 『네희는 세상의 빛과……』라는 말씀과 같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전경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상태에서는 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되게 심어질수가 없다.

Ⅲ. 한국교회의 사회의식

어느 신학자는 한국 프로테스탄트 90년사를 회고하면서 『차라리 이교(異敎)와 탱신(盲信)의 시대였다……』고 자탄하고 있다.

교회가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그때 그때의 구체적 사회상황에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부적 분열만 일삼은데, 교리팽창에만 급급했을 때, 기독교는 결국 영원히 이방종교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이란 없듯이 예수 불구하고 「성(聖)」속에 안주하려 「속(俗)」에의 초연함을 표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는 종교적 바보 (Taboo)를 이용한 안일한 도습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교회생활과 윤리의식에 대한 메시지가주류를이룬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세분해서 보았을 때 다분히 「개인적」 교회의무이며 「개인적」 윤리의식의 강조임을 알수 있는데, 「신앙문제」를 주제로 한 설교만을 최선책으로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날 7백만을 헤아리는 교인과 2만을 넘는 교회를가진 기독교가 『구제사업에 인색하다』 『사회투자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사회구원」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내걸기 이전에, 초대교회 이래로 전통이 되어온 바대정신, 구제정신마저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은 곧 거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의료사업 육영사업(대체로 감리교단)을 통해 대(對)사회봉사의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예산 가운데 겨우 15%정도가, 그것도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교단에 내는 헌금이거나, 개척교회 지원비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없다.

해마다 성탄절무렵이면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하지만 일년에 연말불우 이웃들가를 제외하고, 교회가 구제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단일교회 예산이 60억에 이른다 교회도있고, 7백만 교인이 내는 헌금이 거의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2조원의 예산이 거의자체경비에 충당된다고 하면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죄질한 부림」이라고 한들 지나치지고 할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속세계가 변화됨다고해서 복음의 내용이 변화될 필요는 없지만, 그 복음이 던져지는 방식은 변화되는 상황에 알맞게 조절되어야 한다고 볼 때, 토착화 신앙과 함께, 구제적인 사회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선교방법의 채택 또한 시급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회적 실천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대하여 인간이 사회적 결단을 가지고 응답하는 길이다」라는 말을, 교회(Eccl-esia)가 가지고 있는 본태의 뜻,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뜻과 사랑에 대한 결단에서 이루어진 집회라는 뜻과도 부합되는 말로서, 오늘 선교 100주년을 목전에둔 한국교회가 취해야할 대(對)사회적 자세를 일러준다.

신앙을 갖는다고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에게 귀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자 (信者)는 그가 받을 것이 있고 있는 이땅과 이 사회의 현장에서 봉사와함께 부딪쳐 오는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고자노력함으로써 그의 신앙을표백한다고 말할 수 있는것이다.

<1C·3>

혁명개념의 부인, 정체·편익적 입장의 해석

4·19 혁명의 올바른 시각정립 필요

역사적 사건의 평가는 객관성·민족사적 관점을 전제

사고방식으로 흐른다면 전평한 사실은 한 사건의 전평과정에 대한 일련의 고찰에 머물 수밖에 없는것이며 그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흐르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4·19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을 분석해보면 대략 세가지의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첫째로, 4·19를 그 가치이념의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단편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개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자기관단에만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은 좋은 지성인 탁는 학생·열사, 의사들이다. 따라서 이같은 학상의지는 독립이후에도 민족의 생존권적인 문제와 결부된 민족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이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학상운동함으로써 「4·19혁명을 후진국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겪고 있는 빈곤·우울·욕구불만·좌절감등을 핵소하기위한 대중의 혁명위로로 파악하고자하는 논의이다」(신동아).

이 논의는 앞으로의 상황변수에 대한 명확한 시사를 던지고는 있지만 역사의 원동력이라 할 수있는 주체적, 민족사상적인 요를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듯 보이며 자칫하면 강자에 종속되는 숙명론적인 결함으로 빠져들 소지를 보이고 있다.

역사의 순리적인 진보의 흐름이나 또는 역사의 전환점의 계기는 내적요소의 성숙의 선행에 따른 외부의 충격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며 한 사건의 표출은 지속된 흐름의 연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역사적 사건의 평가는 객관성·민족사적 관점을 전제하게 되며 이들은 혁명적 에너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제 4·19혁명주체인 학생 당시의 개량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자. 우선, 우리는 4·19혁명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이 혁명의 씨앗을 잉태할만큼 충분히 절곡화해갔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조체인 이승만정권은 「관제공산국의 연출과 언론탄압」을 자행한 독재적 정치체제를 구축해왔고, 경제정책의 부능으로 국민들은 궁핍과 부패속에서 생활을 연명해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혁명을 견지해 나가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수없었던 학생과 당시의 상황을 환기해보게 된다. 그리고 4.19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당시의 학생집단은 감정(Pathos)적인 열정 하나 만으로 혁명을 수행 하였음이 지적 되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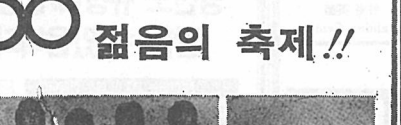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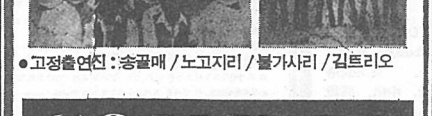
그들의 이념적 구호는 자유 민주주의에 따른 민족주의의 확립을 의미했지만 4월26일 이정권의 붕괴만으로 그들은 자족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혁명적 이념의 성취는 이상과같은 수준에서 머문 것이다. 4·19 세대는 독재정권 파도를 위한 근시안적인 안목에 방관해왔으며 이는 4·19의 이념과 의의 성취를 위한 평동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것이다.

<F·3>

▲4.19기념특집논문. 전 동아일보기자 김종철씨의 글 「4.19정신과 우리의사」는 14쪽·대비판수있는 능력을 갖면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國際經濟의 길잡이
젊은 知性人의 새벗
世界저널
2號 發賣中
주요목차
특집·공산권의 經濟
미묘해지는 美·中·蘇 관계
石油價 내릴 것인가?
美國의 벤처 비즈니스
●先頭企業순례 ② 소니SONY
隔週刊(每月 1일·15일 발행) 定價 800원
全國總販書店안내
서울—현일서적(鍾路) 723·3491/힘동서적(中區) 272·7737/거북당(西大門·忠武) 373·1777/도솔(鍾路·東大門) 714·1189/김남사(永登浦·江西·九老) 635·2716/삼성서점(鍾路·乭岳·江南—部) 832·9151/동문서점(城北·江北·江南—部) 446·8141/현대서점(城北·鍾路) 92·6833/보문당(東大門) 93·7421
地方—관동서점(釜山·光復路) 266·7752
聯合通信 서울市 鍾路區 鍾路2街 56-5 電話 765-1104 팩스 765-1730

관신안경
서울동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번지 삼일빌딩 ㈜ 동아 광고부

88 "축" 입학과 진학을 축하합니다.
젊음의 축제!!

●고정출연진 : 송골매 / 노고지리 / 불가사리 / 김트리오
COME 88
※ 입료권 1,500원에 VIP대접을 받읍니다.
(주)레인보우 신촌쇼핑센터 2층


DISCO NIGHT CLUB
COME 88
T) 322-1159

제3회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논문 현상모집
1. 제출자격 :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논문제목 : ◎80년대 통일전망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양자택일)
3.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상 금 : 최우수작 1명 20만원
우 수 작 1명 10만원
가 작 2명 각 5만원
5. 응모마감 : 1982년 5월 31일
6. 문 의 처 : 외대부설 한국지역문제연구소
<본관 223호, ☎967—1911
(232)>
※단 : ①필요한 자료는 본 연구소에서 제공할 수 있음
②당선된 논문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하게 할 예정임.
1982년 4월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한국지역문제연구소장

자유그 이념적 현실과 사회조건 <8>

황 병 태
<외대 정외과교수>

<차례>

1. 자유—그 이념과 현실
2. 학문과 자유
3. 여사인식과 자유
4. 자유모든 인간형과 교육
5. 자유와 예측의 세계연
6. 사회제도와 개인의 자유의지
7. 자유의 정치학
8. 자유와 혁명
9. 에필로오그 (화답)

자유와 혁명

1. 근대적 혁명의 의미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혁명은 근대역사와 더불어 생겨난 현상이며 개념이다. 그것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불란서의 시민혁명과 더불어 근대 역사에 등장하면서 자유의 실현을위한 인간열망의 공약물 C.F.P.F)인 것이다. 혁명이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는 그전부터 있어 왔던것의 확인이거나 회복에 의하여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폭력적방법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얻어지는 자유이기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장 (章) 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도하다. 따라서 혁명의 자유는 인간적 열망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고귀한 가치실현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신 (神) 의 섭리나 자연법칙이나 아니면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라 인간의 열망이나 공작을 넘어서 권력되고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바치고 죽음을 희생하면서 「자유아니면 죽음」이라는 결의에서 쟁취되는 자유가 혁명이 추구, 실현하는 자유다.

자유에의 강한 의지가 인간의 열망으로 응집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죽음과 희생을 치르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일으키게 될때 거기에는 자유의 새로운 시작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같은 자유의 새로운 시작을 이룩하는 혁명은 자유에 대한 근대의식의 성립이전에는 불가능하였었기 때문에 자유를 향한 세계사 (世界史) 의 전개도 근대사의 등장과 더불어 비로소 가능했었던 것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위한 불란서혁명과,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를 위한 인간의 불가분의 권리를위한 미국의 독립혁명이 없었더라면 근대역사는 생성되지 못하였을것이고 자유를 위한 세계사의전개 도한 불가능 했을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신의 예정된 진로에 따라 전개된다고 믿던 전근대 (前近代) 적 서구의 기독교사회에서는, 인간사회의 변혁은 하늘의 뜻을 제대로 전달시켰하지 못한 임금 (天子) 의 교체로서 이루워 진다고 믿었던 동양의 유교전통사회에서는 자유를 위한 혁명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러스토텔레스가 그리 생치하여에서 다른 혁명이나 맹자 (孟子) 가 다룬 여성혁명 (易姓革命) 은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적혁명과는 거리가 먼 혁명이다.

근대역사이전의 혁명은 음모와 폭력으로 정권을 이미 한 발짝가나 지배계층의 변혁을노리는 서양적 구세마타혁명이거나 아니면 천의 (天意) 를 계비린 군주와 그왕실을 방벌 (放伐) 하는 동양적 여성혁명에 불과했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독립된 윤리자유성의 결핍 형식에 불가결한 자유나 필요이 행복과 같은 가치추구를위한 혁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과 가난과 고통, 그리고 소외와 차별이 인간의 힘을넘어서 주어진 운명의 소산이라고 체념하는 인간에게는 근대 폭력미학 혁명은 있을수없다.

사무엘 헌팅톤의 말을 빌리면 혁명은 근대화의 시작의 종국 표현이다.

자기의 환경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능력의 범위내에 있다고 믿는 시각이다. 이같은 근대화시각을 가진 인간의 등장이 바로 근대사회의 싹인 것이며 이같은 자주스트적 인간들이 그들의 이상 실계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수 있다고 믿는데서 근대화의 혁명은 가능했던것이다.

미카엘 왈츠는 17세기에 일어났었던 칼빈교파의 개혁세력에 의한 성자의 혁명 (Revolution of Saints)이 바로 근대혁명의 시초라고 보고 있다.

2. 근대적 혁명의 동기 와 과정

그러면 이같은 새로운 자유의 시작을 만드는 근대적 혁명은 어떠한 원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룩되는 것일까?

혁명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어떠한가지의 역사의 흐름을 단절하고 새로운 가치와 이상에 따른 새로운 사회질서와 정치체제를 정착시켜야한다. 구역사의 흐름을 폭력적 방법으로 단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체제를 정착함으로써만 혁명이 완성되는 점에서 혁명은 파괴와 건설이라는 투가지 상반된 파만복스를 안고 있는데서 단순한 현실거부의 반란 (反亂) 과는구별된다. 잡을수 없는 현실에대해 「노」 라고 거부하는데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찾는 반란이야말로 인간적 자유의 절규바고 말한 알버트 까뮤는 객관현상에 대한 거부의 「노」 는 동시에 자기자신의 가치에 대한 「예스」 라고 봤으로써 반란이 곧 새로운 휴머니즘적 역사의 전신복장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크 에를이 말한것처럼 잡을수없는 현실을 거부하고 꼬발하는데만 그친다면 반란은 과거에 있었던 이상상태에 비해 훼손되고 파탄된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는데에 그칠뿐 새로운 역사상의 건설과는 거리가 멀기 마련인것이다. 근대혁명이 있기이전의 많았던 농민반란이나 종교반란들이 건설과 성서화에 있는 과거의 이상상태로부터 훼손파탄된 오늘의 현실을 거부하고과 과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이유도 반란의 이러한 일반속성에서 설명될수있다.

혁명은 이러한 반동적이고 폭동적인 거부와 과괴에서 그치지않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설계와 건설프로서, 역사의 흐름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이어지는데서 거부일변도의 반란과는 달리 거부와 긍정의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자유를 위한 혁명이 자유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 (章) 을 여는 혁명이 되기위하여는 잡을수 없는 비미의 현실에 대한 인간적 분노가 폭력적 과괴로 끝이지 않고 냉정한 이성에의한 새로운가치체제와 사회질서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승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잡을 수없는 비미의 현실에대한 인간적 분노가 기존체제내의 합법적 결차에 의한 개혁적방법으로 수용되지 못한 때 혁명의 싹은 피지 않는 꽃봉오리로 그치고 만다. 그런데, 이러한혁명의 싹이 제대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현실을 향한 인간적 분노가 장래에 있어서 인간적 조건의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새로운 가치체제와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건설적 노력으로 승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체제와 사회질서가 국가 (國家)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논리이고보면 자유를 향한 인간적 열망과 노력이 제대로의 효과를 얻기위하여는 혁명에 의하여 등장하는 국가질서와 체제는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질서체제가 되어야만한다. 부정과 과괴단계의 인간적 분노가 자유를 위한 새로운 국가질서를 만드는 합리적 적극의 승화되지 못할때 정기적 출발에서 자유를 위한 혁명이, 결과와 효과에서는 자유를 억제하는 혁명이 되어, 이른바 「매반된 혁명」이 되고마는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체제와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는 서로 보완되기보다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혁명이 개인의 자유를 위한 고상한 인간적 욕망이나 가치보다는 국가의 권력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거나, 인간적 분노에서 동기되지 않고, 역사법칙에 따른 「과학적 사회주의」 의 실천을 위한 수단과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혁명의 배반이 있을 뿐이다.

혁명이 국가권력의 정취수단이나 역사법칙관계의 수단과정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적가치와 인간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유의 경취목대를 위한 혁명이 되기위하여는 혁명을 일상생활의 평범한 차제로 끌어올이면서 단순한 수단과정으로써 단순한 정치혁의 수단도구로 비속화하게 될때 거기에는 혁명의 변질과 배반만이 있을뿐인것이다. 볼쉐비키혁명가들이 레닌의 혁명계획서에 따라 음모와 파괴로 10월혁명을 완수했을 때 그 혁명은 공산당에 의한 중앙집권적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도구로 전락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과학적 사회주의」 를 가져올 변증법적 역사법칙의 전개를 위한 닫스의 사회주의혁명이 권제주의적 공산국가 권력의 수탈을

한국 행정고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김중년·하 준 공동집필
<대학원 행정학과 1학기>

○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의 기능은 그만큼 증대해 졌다. 그리고 행정인의 충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것인가는 거론할 여지가 없을 만큼 중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현행 행정고시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밝히고 고시제도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Ⅰ. 문제의 제기

모든 정치체제는 정치적 구조에 있어서 제 역할을 채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더구나 현대정치체제가 점점 분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을 충원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성을 지닌다.

고금 공무원의 충원방법은시대 혹은 상황과 논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역사적으로 볼때 ①친분·지연·혈연 등을 기준으로 하는 귀속적방법 ②정치적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③자격과 능력등을 기준으로하는 성취적 방법등이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정치·행정상의충원제도및 방법으로서 고시제도를 일찌기 봉일신라시대 이래로 채택하였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면면히 계승·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관료문화와 그속에서 형성된 고시제도의 시대에 따른 특징을 국면과 그것이 사회에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고시제도의 특성은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전통이 계승·변화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전제하여 출발시점을 조선시대로 잡았고, 현행 행정고시제도의 기본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의고시제도와 그영향

1. 사회적 신분질서를 통한 충원제도

이씨조선이 건국초에 이미 유교를 국교로 정한 이래 조선조 5백년의 역사를 통하여유교의 이념및 규범은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크게 지배하였고 사회제도·경제생활·문화생활및 정치체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관념체계는 관료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여 준 것이라 하겠거니와, 문치주의·집권화및 집단간의견제와 균형의 관념은 그대로 관료제도의 특징적 국면을 형성하였다.

또한 인사제도면에서는 사회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요약하면 조선조의 관료제는 사회신분적 계층관계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였으며, 문과 무, 양반과 상인 (常人) 의 구분은 관료조직내에 상존 (常存) 하였던 것이다.

2. 충원상의 문제점과 그 영향

조선조의 정치적 관념체계에 따라서 관료들은 문을 숭상함 따른 청렴결백한 관직여의 봉사를 중요시하며, 상하관계에있어서 의리 (義理) 와 위민 (爲民) 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혼란이 심화되었던 조선말기에 많은 관료들이 집권화와 권위주의를 속에서 관존민비의 태도를 보이고 권력을 이용한 민에 대한 학취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여기능적 국면은 충원의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즉 관직이 신분유지의 유일한 수단임에 따라 관직을 얻으려는 양반들의 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관직취득에의 노력과 집단의식이 결합되어 관직수보다 더 많은 일원을 과거등을 통하여 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관료제내에 집단의 이기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다.

추천제도와 서경제도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능력여하를 막론하고 연분 (緣分) 이 있는자를 등용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제도만 하더라도 조선말기에는 뇌물과 정실 (情實), 문벌의 고하 (高上), 문벌의 소속등에 따라 답안 (當落) 이 결정되어 극도로 문란해졌던 일도 있다. 이렇게 관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주의는 민민의 격화되어 집단소위 고등관에 임용되었으며, 그리고 소수의 한국인이 하급관리로서 일제의 행정실무에종사할 기회를 가졌다. 세계는일제강료제의 충원제도가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의 제도및 운영과 형태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고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된 목적은 우리의 충원제도를 근대화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서 한국을 효율적으로 착취·지배하려는데 있었다는 점은 지양하기 하다.

의관상 일제하의 고시제도는 근대화된것 같지만 한국인은 정책결정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우리의 참여가 소위 고등관에 임용되었으며, 그리고 소수의 한국인이 하급관리로서 일제의 행정실무에종사할 기회를 가졌다. 세계는일제강료제의 충원제도가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우리의 제도및 운영과 형태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고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된 목적은 우리의 충원제도를 근대화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서 한국을 효율적으로 착취·지배하려는데 있었다는 점은 지양하기 하다.

의관상 일제하의 고시제도는 근대화된것 같지만 한국인은 정책결정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우리의 참여가

<사회에 불기위한 분비과정은 경직된사고를 형성하기쉽다>

최소화된 이민족(異民族)지배의 굴레속에서 이를 불신하고 저항하는 풍조가 대두되었음을 쉽게 추측할수 있는 것이다.

2. 법규만능주의와 불신풍조

우리의 전통적 애민·민본의식의 바탕이 된 인의 지배가 와해되어 가는 과정속에서 일본은 프러시아식의 법치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에 있어서도 법치행정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제급제를 갖추게 되었다.

즉 해방후 미군정 당시에는 미국의 직위분류제가 관료제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독립과 더불어 새로이 정립된 인사제도는 공급제가 되었다. 다시 1963년에 직위분류제부활을 명함으로써 직위분류제가 정식으로 관료제내에 도입되는 듯 하였으나, 그것은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종래의 등급제 속에 직위분류제의 요소가 가미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1> 행정고시 응시자및 합격자 대비(對比)

구분 / 연도별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대합격자비율 (%)
1949—1963	19,081	3 73	1.6
1964—1977	66,397	1,393	2.1

<표—1>이 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응시자의 약 2%만이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그것도 겨우 늙어나기 않는다는점 입수 있다.

현행제도가 이렇게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다.

인사담당인 자부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재량권을 많이 행사할수있는것은 특별시험 또한 조선사회의 과거제, 일제시대의 고등문관시험제도의 유형이 지대한 못한 고등고시제도가 고급공무원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계속 제도적 장치로 남아있다.

현행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전통적인 정실 (情實) 주의인사나 미국식 엽관주의 (spoils system) 를 원칙적으로 배격하고 공개경쟁시험이라는실적인사원칙을 충원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28조) 그러나 단서를 정하여 특재를 허용하고 있다. 특재는 보직의 성격상 혹은 피임용자의 전문적 자격요건등의 특수성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에서 현행 행정고시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현행 행정고시 제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첫째는 현행 대학교육과 고급공무원임용제도간의 깊은 괴리현상을 들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의 행정은 국가발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목표나 정책위주의 지향과 그 효율적인 수행을위한 제수단의 합리화를 기하여 왔다. 즉 공무원이 행정체제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그는 집행·관리기능만을 수행하는 수동적·기계적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톤 (D. East on) 이 말씀화한 바의 「문지기」(gatekeeper) 인 동시에 「정책결정자」(Convertors) 역할도 담당하게 된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급공료의 충원상지인 고시제도도 부단히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시제도는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어 관성(慣性) 의 테두리 안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달에따라 급한 변화가 일어나는 소용돌이 (turbulence) 속에서살고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집에따라 행정의 역할도 점점다양하고 복잡해지고있다. 이러한 행정의 주도자인 관료는 환경변화에따른 문제해결능력 (problem solving capacity)을 가지고있어야만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의 고시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의정상적인 교육과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은둔적 (?) · 폐쇄적과정을 겪고 있다. 시험에 붙기위한 단순한 암기위주의 공부와 폐쇄적인 준비과정은 경직된사고를 형성시키기가 쉽다.

이러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수험생이 관료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일마나 책임성 (responsibility) 과 적응력을 가진 창조적인 변화여군 (change agent) 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면에서 현행고시제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로하는 행정인을 충원하지 못하는 듁 (膜) 보다는 실 (失) 이 컬진 큰 제도이고, 미 나이가 대학의 교육과정을 무시해버는 제도적장치마고쳐수있을것이다.

둘째, 합격자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극과 민중의 한마당 <2>

마당극운동의 전개과정

□ 전통민속극과 서구극의 접맥으로서의 마당극

박 재 호

Ⅰ. 머리글

이미 산업화된 시대에 있어 우리 전통정신을 담아내어 민중의 경서와 감흥을 표출하는 형위로서 마당극을 생각할 때 그 마당극은 어디에서부터 접맥되어져 나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통민속극의 역사와 원리를 살펴보고 그후 서구적 삶의 반영으로서의 서구극을 살핀후 그접맥으로서의 70년대의 마당극의 전개를 생각해보자.

Ⅱ. 전통민속극의 역사와 원리

(1) 가면극의 기원

가면극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입장이있다. 바로 산대도감 계통설과 삐계 기악설, 그리고 농촌 풍농굿에서의 유래설이다. 그러나 가면극이 민중의 경서와 감흥을 표현하고 그 시대의 모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봉건지배층의 외국사신 접대용이나 궁중오락행사이었던 산대도감계통설과 삐계기악설은 부정되어져야 할것이다. 물론 지배계층의 문화가 민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지않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나 그것은 민중에 의해 부정적으로 흡수, 계승되어 결국 봉건지배층의 자기정호와 민중기만적인 문화는 변증법적으로 소멸됐을 것이다.

한해의 풍농을 축수하는 주술적 기능을 가졌던 농촌 풍농굿은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구성이 복잡화함에 따라 굿적인 요소의 탈피와 함께 극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여기에 산대도감 계통극이 부정적으로흡수, 계승되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가면극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있어 반봉건 반외세의 민중의지를 집약했던 가면극은 일제에 의해 탄압되었으니 곧 민중의지의 탄압이었고 해방후 1960년대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의 발흥 그리고 1970년대의 민중의지의 억압화와 함께 새로이 재조명되었으니 바로 민중의지의 성장과 변천에 그 궤(軌)를 같이한다.

(2) 가면극의 구성원리

우선 가면극의 무대공간을살펴볼 때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형무대라는 점에있다. 관중과 연희자가 전혀 분리되어있지 않으며 연희자는 항상 관중 속에서 등장하고 관중속으로 퇴장하여 그도 역시 관중과 같은 민중의 일원임과동시에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것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극보한 무대장치나 소도구 그리고 조명이 필요없으며 등퇴과 대사로서 모든 상황설정을 해주고 한 국중장소에서 동시에두개의 갈등구조가 일어나기도한다.

가면극의 공연장소와 극중장소가 일치하는 것은 바로 가면극의 현장성을 나타내 주며 등장인물이 춤으로 등·퇴장하는 것은 가면극의 운동성을 나타내준다. 가면극은 연희되기 이전 지신밟기 형태의 길놀이가 늘어지며 연희된후 그끝에 접여했던 모든 사람이어울려 신명나게 놀는 것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여, 외부의공동의 적에 대한 결속을 다지고 현실에서의 재생산 구조를 갖추는 최종이를 가진다. 가면극은 과장법로 이루어지는데 각과장은 독립된 주제와 갈등구조를 가지고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동일된 흐름 즉 민중의 지를 집약한다. 또한 가면극에 있어 관중은 추임새를통한 자기의견의개진으로 적중 현실에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개입 한다.

(3) 기층 문화로서의 탈춤과 대학탈춤

탈춤은 원래 기층 생산담당자의 문화이었으나 농촌탈춤이 도시탈춤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업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일제에 의해 단절되었다가 해방후 복원되면서 인간문화의 대학생들이 주는 탈춤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계승의 전제 조건인 일정한 복원의 시기가 지나자 그것을 현대적 삶에 수용하고 탈춤을다시 적절성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대두되었다.

Ⅲ. 서구극의 한국적 수용

(1) 서구극의 한국적 수용과 대학극

우리나라에 있어 서구극의수용은 불행히도 일제하에서 그 전개를 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식민사관과 서구문물의 맹목적숭배밖에서 민족극에 대한 단절현상이 나타났고 서구극이 유일한 연극인양 받아들이는 풍조가 나타났다. 연극운동은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반항이나 현실도피 혹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민중계층의 수단으로 전개되었다는 그것은 우리 전통 민속극만큼이 땅의 민중적 삶과 결합된 것은 아니었고 민중을 계몽하고 선도한다는 방상으로부터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에서 직수입된 신파극의 눈물은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 대중의 감상적 퇴폐주의와 결합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정서를 무고투고 좀먹는 것이었다.

신파극은 종경 유학생출신 학생들에 의한 신극 운동으로 극복되어지는데 극예술협회로 시작한 이 학생극 운동은 토월회와 경향극으로 이어져 민족운동과 민중계몽의 일환으로 전개해갔다. 그러나 해방후 일제하 대학극운동의 이러한 민족운동과 민중계몽적 성격은 1947년경부터 예술지상주의적 경향의 추구로 그성격이 바뀌어 기성극단의 모방, 번역극의 무비판적 수용에 그치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대학극 운동은 다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나타나기 시작한다.

(2) Aristoteles극과 반(反)Aristoteles극

Aristoteles에 입각한 정통서구극은 모방과 정화작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연극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즉 현실모방을통해 관중의 극중현실에 대한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라도로 개인적 감정의 정화작용을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레히트에의해 반Aristoteles극이라고 명명된 서사극은 <극에술 또한 세계의 해명을돕는 단계에서 세계의 변혁을 돕는 단계로 돕입한다> 라는 그의 말에 그 의도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극에 있어 관중은 항상 능동적으로 작중현실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 세계를 고정불변의 체계로 보지않고 역사적으로 규정지워진 변화체계로 볼수있게 되며, 극이 담은 문제는 미완성의 형태로 제시되어 그것의 해결과 종결은 극장을 떠나는 비판적으로 각성된 관객에게 위임된다.

파우의 현실속에 관객을 끌어들여 여러 감정을 이입, 체험시킴으로써 관객의 활동력을 개인적으로 소모시켜버리는 것이 연극이 지닌 고전적 기능이라면 이에 반기를 든 브레히트극은 무대적 환상을 깨고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극에 있어서는 소외효과의 장치로서 나타난다. 그 방법에는 관객을 향한 대화, 일인이역, 극중극, 이중 (二重) 의 갈등구조, 노래, 가면의 사용등이 있는데 그 구조와 기법이 우리 전통가면극과 너무도 흡사한 바 그 이유는 브레히트가 그의 소외효과 구조를 동양연극, 특히 중국의 경극 (京劇) 에서 가져가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Ⅳ. 70년대 마당극운동의 전개

(전통민속극과 서구극의 접맥으로서의 마당극)

(1) 전통민속극과 서사극의 비교

우리민속극의 원리, 구조는 서사극의 원리, 구조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속극은 일제시대에 경과와 서구문물의 범람속에서 자생적 전승력을 잃어 현대적 삶을 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시대적 삶만을 담은 형식으로 현형보존되고있을 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지향되어져야할 것은 바로 현시대의 실제와 전실을 투료할 수 있는 형식이며 서사극이주장한 과제는 바로 현실의 실상을 부각시켜 모순의 극복가능성을 제시하고 전실로 미학의 한 범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산업화된 시대의 서구극 삶의 실제와 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서사극의 형식을 우리 고유 가면극의 원리에 도입, 신명으로 풀어내어 대방놀이로 연결시킴으로써 모두의 공동적 삶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한 판 마당극의 가능성을 이제 비로소 생각해볼 수가 있도록.

마지막으로, 저자는 제5부 「경제학과 현대」에서 한국경제학의 상황, 경제학사의 최고 (retro speet) , 최근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종속이론 등을 취급하고있다. 한국경제학의 문제점으로 저자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형식적 현실참여를비판하고 실천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확립되어야함을 촉구한다. 또한 A. Smith이후의 경제학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본주의경제학과 Marx경제학을 동시에 주목하여 두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를 체제수렴론의 입장에서 그 미래를 조심스럽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제5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종속이론의 생성배경, 이론구조를 객관적시각에서 소개하고 이 이론의 국내 수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종속이론이 분명히 자기준거적이라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우월성을 갖고있으나 발종측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한위 이 이론의 국내수용은 앞단 개항이후의 한국근대사부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하고 있다.

<전에원 간 3,800원>

서평

김 균
<고대노동문제연구소연구원>

현구에의 엄연한 도전을

□ 「한국경제의 논리」를 읽고

사회계층의 이중구조 완충을위해 중산계층 육성해야

형식적 현실참여보다 실천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확립되어야

자본주의·Marx 경제학의 체제수렴론을 타진하기도

Ⅰ

근년에 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비판들이 국학 다양한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즉 선성장 (先成長) 후분배 (後分配) 의 경제운리, 노동문제, 시장경제체제의 빈혈, 소득재분배구조의 개선 등의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국은결국 과거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비롯된 경제구조의 모순 또는 취약점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최근의 비판들은 일시적 경제불황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의 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윤리면에서는 경제적 (양) 의 결대시에서 경제적 (질) 의 회복으로, 경제정책면에서는 (성장) 에서 (분배) 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경제의 구성원인 국민 각 개인들의 구체적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가 기능하뿐금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집단내부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비판적 견해는 비록 지배적 의견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지만 60년대이후 꾸준히 그윤리를 펼쳐왔었다. 성장률, GNP등의 수량지표를 중시하는 관료, 학자층과는 달리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경제적 평등, 민족주의적 자립경제의 달성을 국민경제의 궁극적목적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공평, 저임금해소, 노동환경의 개선, 농업투자의 확대등을 주장해온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인간주의는 보편적 명제를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이들 학자들의 첫번째 특징은 철저한 현실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하시라도 포기함을 으로 해서 그들은 항상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건강한 시민의식을 견지하는는 동시에 사회과학의 실천성을 기초로 한 학문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지적 성실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수탈을 민도로 삼을 수 없다는 민족의식 유제 (植民地遺制) 를 청산하지못한 결과 오늘날 전근대적, 관료적 자본주의가 생성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농지개혁, 귀속재산불하 (佛國財産拂下) 미국원조 그리고 미국도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실현이 마는 경제자립이 달성되지 못하여 농·공간의 국내분업이 불균형화되고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과행적 경제구조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태를 더욱 악랄시킨 것은 경제협정이 국민의 기탄 또는 이의 해당사자의 참여없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추구되었다는 점이다. 국가경제결정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은 재생산과정에서도 여사 소외되어 계임금 계농산물가격 등을 감수하여야만 했던것이며 반대로 기업은 관(官)에 의지하여 경당하지 못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해방후의 한국경제는 일제식민지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부비관료으로 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비민으로써 관료자본주의적 경제구조로 왜곡되고 말았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들째, 이상과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파행적성격을 과악한 뒤 저자는 그로 말미암은 구조적 모순을 특히 노동계층과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부 「자본주의 경제학의 체제수렴론」에서 저자는 그로 말미암은 구조적 모순을 특히 노동계층과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저 현실모방을통해 관중의 극중현실에 대한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라도로 개인적 감정의 정화작용을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레히트에의해 반Aristoteles극이라고 명명된 서사극은 <극에술 또한 세계의 해명을돕는 단계에서 세계의 변혁을 돕는 단계로 돕입한다> 라는 그의 말에 그 의도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극에 있어 관중은 항상 능동적으로 작중현실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 세계를 고정불변의 체계로 보지않고 역사적으로 규정지워진 변화체계로 볼수있게 되며, 극이 담은 문제는 미완성의 형태로 제시되어 그것의 해결과 종결은 극장을 떠나는 비판적으로 각성된 관객에게 위임된다.

파우의 현실속에 관객을 끌어들여 여러 감정을 이입, 체험시킴으로써 관객의 활동력을 개인적으로 소모시켜버리는 것이 연극이 지닌 고전적 기능이라면 이에 반기를 든 브레히트극은 무대적 환상을 깨고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극에 있어서는 소외효과의 장치로서 나타난다. 그 방법에는 관객을 향한 대화, 일인이역, 극중극, 이중 (二重) 의 갈등구조, 노래, 가면의 사용등이 있는데 그 구조와 기법이 우리 전통가면극과 너무도 흡사한 바 그 이유는 브레히트가 그의 소외효과 구조를 동양연극, 특히 중국의 경극 (京劇) 에서 가져가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Ⅳ. 70년대 마당극운동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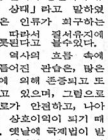
(전통민속극과 서구극의 접맥으로서의 마당극)

(1) 전통민속극과 서사극의 비교

우리민속극의 원리, 구조는 서사극의 원리, 구조와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속극은 일제시대에 경과와 서구문물의 범람속에서 자생적 전승력을 잃어 현대적 삶을 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시대적 삶만을 담은 형식으로 현형보존되고있을 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지향되어져야할 것은 바로 현시대의 실제와 전실을 투료할 수 있는 형식이며 서사극이주장한 과제는 바로 현실의 실상을 부각시켜 모순의 극복가능성을 제시하고 전실로 미학의 한 범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산업화된 시대의 서구극 삶의 실제와 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서사극의 형식을 우리 고유 가면극의 원리에 도입, 신명으로 풀어내어 대방놀이로 연결시킴으로써 모두의 공동적 삶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한 판 마당극의 가능성을 이제 비로소 생각해볼 수가 있었다.

질 서
<교수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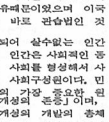
신전극가와 후전극가의 차를 그 나타남의 절서유지의 차에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통섭서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은 경수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잘 알수있다.

중세기의 한 사상가는, 「평화란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하였으며, 온 인류가 희구하는 평화는 따라서 질서유지에 귀결된다고 말수있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툼어진 관습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또 지켜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서로가 인권하고, 나아가서는 상호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옛날엔 국제법이 발달되기 시작한 때도 그러한 이유때문이었으며 이국제법은 바로 관습법인 것이다.

고립되어 살수없는 인간이기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사회를 형성해서 사는, 한 사회구성원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개성의 존중」이며, 각기 개성의 개발의 출발가 바로 그 사회의 일원제, 질서가 없는 그 사회에는 개성의 출발과 과괴만이 있을 것이다.

어려사람들이 모여서 일정의 생활하는 어떤 조직체의 사회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며, 이는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질 서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임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예의를 지킨다는 미풍은 바로 사회질서유지의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며 결코 허례허식이 아니다. 절서유지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이 모인 집단을 위한 것이다.

가족간에도 예의가 있고 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특수한 사회나 국가,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국가간의 외교에 있어서 외교 (儀典 Protocol) 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료들간에도 공통이익을 위해 절서가 유지되고 또 지켜져야할 예수가 있는것이며 선배와 후배들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스승과 제자들간의 여러가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위해 본분을 지켜나가는데는 절서가 있는 것이며, 상호관계에서 예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절서가 무너지고 또 상호관계가 흔들리고 따라서 관계가 형성된 그 목적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사회에 있어서의 예의를 절서유지를위한 하나의 도(道)로서 도덕서유지에서 인간사회의 발전을 기약할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 정 렬
<질의과교수>

자율적 대학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프롤로그

차 례

1. 프롤로그
2. 취직외평거장이아닌 대학
3. 학생 대의기구(학도호국단)
4. 서어클, 학회
5. 졸업생원제, 교수추천제
6. 독선을 배격하는 독선의 지양
7. 이데올로기에세상의 극복
8. 대화만을 불신풍조는 최대의 시대악
9. 에필로그

문학에 있어서의 순수와 참여의 논쟁이 치열했던 60년대도 과거의 유사(遺史)로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순수와 참여의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명백한 가부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사실 순수한 사회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참여가 반드시 문학계 가치의 올바름을 판별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참여논쟁은 결국 시대적 상황 배경으로 한 이다.

다만 대학도 현시대와 사회의 한 부분이고 이에따라 시대상황의 규범적 제재를 받아야 한은 의심할 바 없다. 대학의 자율적구조 역시 그 절대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대학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는 적절한 범위의 한계선을 그어야 할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대학의 사회참여가 어려가지 이 상태로 나타날 수 있듯이 참여의 정도라는 것 할하고 대입시제도, 이데올로기의 제한성, 이념서어클, 상호불신풍조등의 면에서 확의적 문제로 확대된다.

또한 대학을 취직을 위한 정거장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일부 대학생의 의식구조, 독선을 배격하면서도 독선을 범하고만 단순논리 등도 오늘의 대학 사회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과 사회와의 괴리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유념해야 한다. 대화와 논리부재의 현실, 삶의 협소에까지 이른 극도의 회의나 허무주의, 현실파탄적인 기회주의, 무조건적인 반 대나 문제의 분석을 통한 발전적 시각의 대안(代案) 제시에 중점을 두어 9회에 걸쳐 연재될 것이다.

대학은 「자유와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진리탐구의 전당」이고 대학생은 「그 시대의 첫봉이 될 젊은 지성인」이라는 미화된 정의가 그 어의 (語意) 만큼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오늘의 대학은 반드시 무언가 달 파져야 할 것이다. 대학은 이미 담연과의 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유같은 오늘의 대학의 산고 (産苦) 는 크게 몇가지로 그 원인을 살펴볼수 있다. 즉 대학에서의 지성적 이념의 빈곤, 다양성과 풍일성의 불협화음, 대학과 사회간의 유입 유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빈약등이 그것이다.

결국 위의 제반 문제점은 대학과 사회와의 괴리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유념해야 한다. 대화와 논리부재의 현실, 삶의 협소에까지 이른 극도의 회의나 허무주의, 현실파탄적인 기회주의, 무조건적인 반

◇대학은 자유와 자율을 생명으로하는 진리탐구의 전당이고, 대학생은 그시대를 맡히는 젊은지성인이어야 한다.

칠흑으로 표현되는 벗우리의 슬픔

외대촌, 낙서의 현장을 찾아서

언어가 필 수 없는 소리는 소리로 살아가고, 활자가 되지 못하는 글들은 글로서 살아가지만 어딘가 에라도 쉴히는 곳은 있다.

대화가 필 수 없는 말이거나 불가해 (不可解) 한 현실의 증하 (重荷) 를 견뎌 하기위한 수단으로 벽이나 책상위로나 혹은 노트 할 모서리의 글들이 낙서일로도 모른다.

이번 연보에서는 본교내 도서관, 책상위의 낙서를 중심으로 화장실이나 학교근처 주점벽면에 끌어진 외대인의 언어를 모아 빈륙이는 위트와 삶의 증화제와 같은 유머의 날카로운 의식의 폰톤을 함께 읽어 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낙서는 언어 인권의 불능적갈증이나 상황으로 표출된 집착의 외미를 표현한 글이라는 이유 외에도 낙서가 지니는 비밀성 (?) 때문에 낙서는 은폐된 꿋없수록 즉 벽속 구석이나 변소칸 같은데서 자주 발견된다. 도서관 원박 파쇄이나 그룹별이용이가능한 제1열람실이나 제4열람실의 책상에는 낙서가 거의없었다. 또한 낙서는 여상에 비해한다는 가설을 세울수 있을만큼 자료 설치한 5, 6열람실에서 많은 낙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낙서자체에대한 낙서도 계속되어 낙서에 대한 답변을 주는 낙서가 있는 한 부인이나 언어의 유희가 계속되어 낙서가 낙서를 낳는 현상도 볼수 있었다.

교내에 있는 낙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과 생의 체험에 기초한 파로즈나 국가나 사회에대한 의식적 발언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학교생활에 관한 낙서에서는 도서관 자리잡기 경쟁이나 교시공부에서 오는 어려움의 발산이나 권공에 대한 몇마디의 말도 엿보였다.

제이류를 쓰듯 어기저기 HANKUK UINVERSITY가 눈에 익게 되었고「So I can」이나「Yes, I can」등의 낙관적 가능성을 믿을 글도 있었으나 정신질로 하사불성 (精神一到 何事不成), 고시에 대한 원망 (怨望) 이 고 (苦) 를 불 고 (鼓), 고 (苦) 로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에 대하여서도 2도면 한사불성, 3도면 인사불성이라는 재치도 엿보였다. 이외에 한자성어로 「有志者 必遂成, 盛人事 待天命」 등이 가끔씩 나타났으며 살필비를 남 비롯 씀 비롯에게 뜻이 같은 것이 남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자기위안의 글도 씌었으며, Time is money, Victoryeven all costs, Never give up! Ask, it shall be given up you등 학업에 대한 절실이나 노력등을 장조한 여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좌석에 대한 좌좌는 곳곳에서 지정석이나 고정석이라 스스로 정하고 있으며 know your position등의 보이도 상당수 걸들여 있었다.

그리고 과나 대학에 대한 인급도 적지않아 ××과—신의과 있다, ○○과—천재한다, △△과—약삭빠르다, □□과—기력있다등의 단평이나 『不語—말도아니다』, 좋이있다차공과 한의예과 등의과 과 이름이있는 것으로보아 이에 반대생의소리를이드러나며 「外大人—배꼽人, 外大人—배꼽人」 에서는 음흉와 부흉호사이에서도동일한 사실이 발견된다.

학업에 관한 글들이 외지나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실에 대한 답련을 서술한 낙서는 가슴 깊숙이 흐르는 속쓰린 정서의 표현이 대부분인듯 싶다. 인이속씨의 글에서 자유한 「죽으면 죽으리라」 의 에 ordinary people와 back ground의 한수관계, 「나는 바보—왕자로 부스꾼내 열흥의갈곳은—시궁창」 「어리석은 인간들 속에 당신을 초대합니니다」등 암울한 언어의 나열이 그랬다. 그러나 일반 낙서보다는 국회 미미한 수이지만 말초적 신경을 간직한는 낙서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트형내에 풍일인의 하정을 서넣은 것이나 please call up right now, you want to make real love와 nonsense가 위아래를함께 하는가하면 「不要做夢」 이나 Love is real, Leben oder geld, To be or not to be, this is problem등 그에 대한 자문도 있었다.

학장생활중 국가와 사회일반에관한 언급도적지않는데 낙서에도 이는 여실히드러나다. Many are opposed와 수혁·심분·체벌등의 상황을 서술하여 주는 단어의 보임, I only hope the next government……, 등 속말은 계속하고 있었다. 등이그러하다.

한번성 정당성, 보비샌즈의 죽음, 은폐정책과 대중조직, 직업량의 불안과 진장의 단순재생산, 「대중은어지와 같다. 지배만기를 원할 뿐 자유를 주어도 방황하기만 한다」등의 낙서는 자못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읽었던 외미가 자못 폭발적이어서 글내 낙서로만 존재해야하는 낙서도 적지 않다. 벽이 있는 곳에 낙서없는 곳이 있으랴만 이제 답박으로 학교근처 주점의 벽면에 씌어진 낙서를 살펴보기로 함다. 이외를 제외한 낙서는 교내의 낙서와 거의 비슷하다.

낙서는 주점에서의 대화를 기록하듯 술 사랑 우정과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문, 인간의 일상성에 대한 빌나 술과 의로움과 괴로움에 관한 번수를 설명하려는 술에 음해시키려는 괴로워하의 관재도 읽을 수 있었다. 말의 성찬답게 언어의 유희도 찌지않은데 눈처럼 snow tooth마음이 하겨나 서울과 설음을 유주해서 읊이한듯한 「서울이 왜 서울인가?」 만 한글을 열놓이 나눠넣어 쉽게상아 서울이지」 와 이부시 한자표현 「陽氣不是擴分五時五」 「死郎」 외에도 노래에서 미들을 차용한 것 같은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등 냉소든 실소를 머금으며 다시한번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배회하게 하고있다.

낙서로 하여금 자신의여 욕을 기록한것가 한편 바인의 어록도 가끔씩 박한보물이랄 자작하게 되는데 히틀러의 「양을은 혼자 있을때 머욱 위대하다」 혜겔의 「죽음으로써 살아라」 씨닉스피어의 「단죽이란 가장 좋은소유물이다」 쉴러의 「그대의 운명은 그대 자신의 가슴속에 있으리라」 등의열번이 계속되는가 하면 공자의 「말이 필고 의심을일에며 그런 나머지를 이야기하면 실수가 찌어지느니라」 라는 정문일침도 시끄럽게 해주는 메아리…

갖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지성과 진리탐구를 위해 자라온 청년의대를 보며 그간의 어려일이 생각남은 어쩔 수 없는 일.

어언 스물여덥살, 2000년대의 외대의 모습을 생각해봤에 자못 열며와 자부가 엊갈림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평소에 거의 성여화(?)되다시피한 용인대 교직원용 버스에 때아닌 졸산물이 버러로 졸산을 어리동물게 했다.

그 이유인즉 용인 졸산물을 뵈도록 떨의 귀가시기를 학교측의 배려에서 비롯된것이라고.

그러나 평소에도 학생에게 이런 세심한 배려와 신뢰감을 심어졌다면 좋았을 걸.

열려와 자부의 엇갈림

대학인 삶의 단편으로 우러난 정서 표현

할 말 많은 세상—면학·사랑·시대·삶에 대한 넋두리

문제의 분석을 통한 발전적 시각의 대안 제시에 중점

대학, 당면 과제해결의 필요성증대

국단협의 대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대학에 있어서의 학문탐구와 사회참여의 한계도 위의 참여논쟁과 비슷한 양태를 띤다고 볼 수있을 것이다. 과연 대학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규정지을 것이냐? 관한 논의는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일의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인 것 드 「상황」이라는 가변적요소에 따라 정당성의영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전제하에서 오늘의 대학을 볼 때, 대학의 내외적인 문제나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등에는 자율적 구조와 연계체는 적잖은 문제가 산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교수추천제 졸업생원제, 학생대의기구및 학회등의 학내적 문제를도 이러한 대학내외의 문제점은 기실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아붙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에서「대화의 거부」를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며 실제로도 위의 문제점은 사회의 구조와 학교당국 학생등 모두에게 그 책임의 여지가있는 것이다.

본 기획의 취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한다. 그 항의식등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두는 부정적인 면과 이외 여기능이 강조된 같이 없지 않다. 하지만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며 이의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될 것이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의 비판을 바란다.

<김영철기자>

서어클추가등록 끝내

4월6일 서울대에서 개최되었던 51개대학 학생처장회의에서 문교부가 지시했던 「지하서클」 양성화 방침에 의해 실시된 추가등록에 5개의 서클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서클등록과 마찬가지로 30명 이상의 회원과 지도교수 1인이상및 그에 따른 서류등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서클은 민속사상연구회 (지도교수 이순영, 회장 송하석), 배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조용국, 회장 문양수) 와 1차에 등록신청을 한 원리연구반 (지도교수 이강희, 회장 정승욱), 국학제비판과 외인부재대다.

한편 위의 서클에 대한 등록취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지도위원회는 음인대문제로 인해 무기연기되었다.

교내마라톤대회개최

여학생완주자엔 특별상도

학도호국단 체육부에서는 외대인의 저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내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5월14일 오전 9시30분 본교 대운동장을 출발 쉬관삼거리, 월곡APT, 목동사거리, 한일은행중화점 지점, 중랑교, 위생병원을 거쳐 다시 본교운동장으로 골인하게될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월3일부터 7일까지 학도호국단 체육부로 신청을 하면된다.

한편 이번마라톤에는 상위 20위까지 상품이주어질 예정이며, 남학생과 별도로 여학생완주자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질 예정이라한다.

중간고사 기간 전후 군사교육 예정 대로

본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는, 4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를 전후한 기간중에도 예정대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8주째 군사교육은 4월19일에 시작됐고,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는 9주째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외대 교직원 축구팀 KOTRA 축구팀 격파

본교의 교수와 직원으로 이루어진 「외대 교직원 축구팀」이 4월10일 직장축구동우회 리그전에서 KOTRA팀을 4:2로 격파했다.

한편 작년 4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본교 김영호교수 (체육과) 를 초대회장으로, 장학을 한 본 교수, 교직원 축구단에는등60명의교수, 교직원이 틈틈히시간을내어 열심히 연습에 열중하고 있으며, 본축구단에는 외국인선수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정론과 직필에 최선

○…그동안 외대학보에 보내준 학우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절책에 크로니클자(子)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을 사(謝)

어언 27주년을 맞이하는 마음 감개무량하다 지난일을 돌이켜보매 송구스러운 마음도 금할 길 없어.

모조록 앞으로 전혼산들의 아낌없는 질의와 비판을 바라며 아울러 이에 정론과 직필로써 은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

○…요즈음 캠퍼스를 수놓은 꽃들 벚꽃이 졸산을 마냥 즐거운 모양.

봄이면 그 전가를 며하는 미네르바동산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 장경원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것.

「캠퍼스가 좁아서」 라는 일부 졸산의 불평도 오즈음엔 부쉬한 듯하나, 간간이 피어있는 전달래를 보며 한된졸음 4월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할 듯…

○…매년 시험철이라 연례행사 처럼 찾아오는 복사열풍이 다시 성럼, 크로니클자(子)를 휩시 삼킬하게 하고 있는데.

복쪽 붙어난 학우를 벽력(?) 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지난해에 년에 비해 대혼잡을 빚고 있어 졸산물 불평이이 만계인이아닌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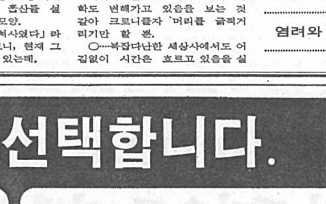
복사하기 위해 고생하는니 차라리 평소 수업에 충실함이 결론인데 명한 복사입술졸산물 도도하는 아낼번해….

○…「지하서어클 양성화」라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졸산물 실망섞인 말이 많은 모양.

「인전가는 와야할 복사였다」라는 등 얘기가 많고보니, 현재 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추가등록까지 실시하는 열의(?) 끝에 두서어클이 등록을 신청, 주의를 끌고 있다는 나머지 서어클은 아직도 긴 침묵에 끝입 증이라고….

○…요즈음 교내에는 삼뜻하게 단장된 공고판들이 새로이 펼어 나 자못 눈길을 끌고 있는데. 공고판의 부활으로 벽이란 벽은 온통 공고판이 되어버렸었던 근간의 사정을 생각할때 환영할만한 일이나 새공고판 하단의 상업광고는 그리 반갑지는 않은 듯….



세태의 변화에 따라 이제 대학도 변해가고 있음을 보는 것 같아 크로니클자 머리를 끌쩍거리기만 할 뿐.

○…복잡다단한 세상사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 실감케 해주는 메아리….

時事英語社 현명한 독자는 메이커를 보고 선택합니다. 서울音盤

New Horizons in ENGLISH
Meligren Walker 共著 미국 Addision-Wesley社 原刊
American Idiom의 양념이 많이 쉬인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카셋트를 사용해 보십시요. 특히 이 교재는 Young Adults(젊은 청년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문장없는 간결한 표현으로 참신한 화제를 통해 생생한 구어의 구사력을 익히게 합니다.
이 카셋트는 4S方式의 네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읍니다.
● Short Sentences (짧은 미국표현)
● Simple to Learn (스스로가 쉬운 학습)
● Speedy Progress (스스로 학습성취)
● Spiral Approach (자동 복습 방식)
■ 짧은 문장 중심이기에 외우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것이 이교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다른 영어 참고서들 Idiom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도 이 교재의 남다른 특색입니다.
■ 짧은문장이 나열되는 것처럼 싱동이 학습을 즐겁고 보람있게 합니다.
■ 나선식 가닛(Spiral) 을 돌리기듯 진도에 따라 복습이 자동적으로 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가 두드러집니다.
Text 6권/주해서 6권/카셋트 30개/값 150,000원

Edwin T. Cornelius著 ENGLISH 900 英語会話 카셋트 Macmillan 출판사 原刊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표준 영어회화교재
Bible이 없는 크리스찬이 없듯,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사람치고 ENGLISH 900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니다.
ENGLISH 900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동안 가장 많이 팔린 Longest-seller, Best-seller의 두 기록을 세운 영어회화의 Bible적이며, 미국에서도 선풍적 인기입니다.
■ 900개의 기본표현으로 일상영어회화를 자유자재로
ENGLISH 900은 900개의 기본문형만 익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3600개의 문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공률 100%의 표준 영어회화교재입니다.
카셋트 30개의 普及新版이 나왔읍니다.
값은 종전의 절반에, 내용은 종전 그대로
(1) ENGLISH 900를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카셋트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읍니다.
(2) ENGLISH 900는 원래 카셋트 60개(C60)의 방대한 교재였으나, 이 보급판은 카셋트의 수를 30개로 줄임으로써 독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읍니다.
(3) 그러나 종래의 C60대신 질폭 90분짜리 C90 카셋트를 사용함으로써 녹음수록 내용은 종전 그대로 입니다.
Text 6권/주해서 6권/카셋트 30개/값 150,000원

現代 日本語会話 카셋트 〈전2권〉
● 소리로 배우는 三位一体
일본어의 文型 56개만 익히면 문법·해석·회화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도록 편전한 三位一体 학습방식.
● 한국최초의 日本현지 녹음
한국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일본현지에서 東京표준발음으로 녹음한 최고음질의 카셋트 (NSB방송 아나운서들이 녹음)
● 기초文法부터 旅行會話까지
제1권 入門편에서는 문법과 문형, 기본회화, 해석을 완성하고
제2권 活用편에서는 日本여행에 필요한 81장면의 실용회화를 완성.
● 出入國에서 貿易商談까지
활용편에서는 출입국에서 무역까지 모든 경우를 망라하였고, 출입국수속에서 일본의 풍속·관례에 관한 자세한 안내도 겸들인 가장 편리한 일본어 회화교재.
교재 2권/카셋트 20개/값 90,000원

時事英語社
주문전화: 서울(722)9761 (266)6295 (725)5064 (268)8823 (269)6621~3 부산(43)3009 대구(45)8890 대전(26)7176 광주(2)2376 전주(2)5328 인천(73)7170 수원(6)1478

時事英語社의 자매회사
● 서울音盤의 CLASSIC CASSETTE 70개
大作曲家들의 주옥같은 名曲을 감동의 名演奏로 수놓은 클래식 音楽의 決定版!
世界 클래식 大全集 카셋트 전 40개
● 「영웅」등 명곡 83편 총망라
● 「비엔나 필」등 고향악단 총출연
● 「브루노 발터」등 명 지휘자 대거등장
● Electro Sound 녹음/최고음질 Stereo
● 고급 작품해설집 포함/값 140,000원
골든 클래식 大全集 카셋트 전 30개
● 클래식음반 판매랭킹 1위 Mass Music의 Turnabout音源
● 「전원」「백조의 호수」등 명곡 75편
● 「비엔나 심포니」「런던 심포니」등 고향악단 대거등장
● 「안탈 도라티」「오르 클렘페러」등의 열지휘
● 고급 작품해설집 포함/값 100,000원
서울音盤/時事英語社 주문전화: (725)9204~5 (265)2880 (265)3990

삶에의 고발의식과 서민성의 휴머니티

□ 학촌(鶴村) 이범선의 문학 세계

1. 학촌(鶴村)의 문학적 초상화

평남 신안주 운학리(雲鶴里)에서 태어났던 한마리 학은 지난 3월 홀연히 그리운 그의 학마을로 날아가 버렸다.

50년대 후반기를 어느 작가보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형해(形骸) 한 작가가 바로 학촌 이범선—그다.

「작품을 통해서 오는 이범선은 깨끗하고 느고 (孤高) 하고 소극적인 인물이다. 그러한 그의 성격과 생활이 청정 (淸淨) 하고 침착한 문장속에 차분히 담겨져있다. 화려하고 곤기있고 역세기보다는 호젓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학이다. 모란이나 장미나 해바라기같은 문학이 아니라 패랭이나 들국화나 물레꽃같은 문학이다. 그만큼 섬세 하고 가련미 (可憐美) 가 있는 문학이다. 그렇다고해서 그의 문학이 「달팽이」같은 고독의 껍질속에만 웅츠리고 있는것은 아니다. 가다가는 이웃과 사회에대하여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과 신경질을 보이기도 한다. 」

그의 작품 경향을 비교적무난하게 단언한 김동리의 견해다.

이러한 김동리의 글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문학 세계의 내용은 바로 서민성의 미학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서민의 미학에는 대체로 세가지 요소가 그 확고한 지반을 이루고 있다. 즉다분히 감상적 (感傷的) 인 피리시즘과 극히 소박한 휴머니티 그리고 그리한 리리시즘과 휴머니티를 거부하는 사회에 대한 경직한 고발의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계열은 그러한 기조적인 세가지 요소에 따라 서정적인 것과 세태적인 것과 항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의 성격상의 구분은 어떤 창작 시기나 과정적인 단계로서 [illegible] 구분할 수 있기보다는 소[illegible]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고 병행 혼융되어 온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그의 작품세계는 단선적 (單線的) 인 것이 아닌 편이다.

그가 데뷔할 당시 50년대는 (1955년 36세때 단편 <장표(帳標)>, <오발오발>이 현대문학에 추천됨) 우리 문학사에있어 정신적 이나키즘과 물질적 파괴로 불모의 공백기를 이루고 있으며 전란 후의 피폐와 절망과 좌절과 실의가 만연하고 있던 시기였다. 때맞추어 들밭풋이꽃이은 외래사조는 문학계 열풍 같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여, 이때 데뷔한 작가들에게 있어 절망과 불안 의식은 바로 공통의 재산이 되었으며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병든 실의의 인간상들이었다.

가령 오상원의 <유예(猶予)>를 비롯하여 이호철의 <부군(浮群)>, 선우휘의 <불꽃>, 전광용의 <사수(射手)>, 하근찬의 <수난이대>, 송병수의 <쇼리·킹>

특별한 영혼의 향기를 지니고 있는 이범선 작품은 「인간 얼굴을 한 가을의 자연」과 같은 마음의 결

2. 「흰 까마귀의」의수기

그의 최대 장작집 <학마을사람들>에 붙인 작자의 후기를 보면, 한층 그의 작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전다, 나는 거기서 여러가지 모양의 얼룩을 본다. 가다가 한번씩 이 마음의 창유리를 석유 항프처럼 닦아본다. 이렇게 호오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얼룩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작품이었다. 」

사실 그의 작품들은 「호오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얼룩들」처럼 잔잔하면서도 또 연연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소재선택에서나 style에서 그리하여 「흰 까마귀의 수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십대의 경쟁한 범관이었던 한 인물이 어느 일요일 홀연히 종적을 감추어버린 것에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가 남기고 간 한권의 수기를 통해서 한 인생의 외로운 흔적을 조명하는 수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초기 많은 그의 작품들이, 현실상황의 아픔을 생생한 육성그대로 묘사했다면, 이 작품은 그 고통의 근원이 좀더 다른 곳에서 연유한 작품이라고 볼수있다. 즉 지고한 인간성을해친 초라하고 위선에 가득찬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는 내면화된 아픔이 짝품 전반에 흐르고있다.

학촌은 이 작품속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설정된 인물의성격을 다루고 있다. 즉 하나의 인물을 통해 「인간 얼굴을 한 가을의 자연」과 같은 마음의 결

작품에 흐르는 리리시즘·휴머니티·고발의식

"고고하고 소극적 성격이 문학을 통해 청정하게 승화"

등 어두운 전후의 현실이 저마다의 개성적인 스타일에 의해 반개되었던 시대다.

이와같은 문학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이범선의 문학도 움이 텄다. 그것은 바로 <이범선 문학>의 우울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작품을 일관하여 그의 작품무대는 한결같이 대로라기보다는 소로이고, 밝달이라기보다는 [illegible] 카니즘 [illegible] 보다는 그의 작지대라는 서민생활의 본거지였던 것처럼 그가 선택하고평시 (正視) 한 주인공들 역시 감성의 결은 콤플렉스 같은것은 아예 인연이 없는 것으로 제외되어 있는것이다.

이상에서 그의 문학의 일반적 면모를 살펴 보았다. 학촌은 78년 1월부터 79년 6월까지 현대문학지에 그의 고발적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흰 까마귀의 수기」를 게재한 바있고 특히 그의 최근 장작집 <학마을사람들>에 붙인 작자의 후기를 보면, 한층 그의 작품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일찍이 전다, 나는 거기서 여러가지 모양의 얼룩을 본다. 가다가 한번씩 이 마음의 창유리를 석유 항프처럼 닦아본다. 이렇게 호오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얼룩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작품이었다. 」

사실 그의 작품들은 「호오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얼룩들」처럼 잔잔하면서도 또 연연한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소재선택에서나 style에서 그리하여 「흰 까마귀의 수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십대의 경쟁한 범관이었던 한 인물이 어느 일요일 홀연히 종적을 감추어버린 것에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가 남기고 간 한권의 수기를 통해서 한 인생의 외로운 흔적을 조명하는 수법으로 이야기가전개된다.

초기 많은 그의 작품들이, 현실상황의 아픔을 생생한 육성그대로 묘사했다면, 이 작품은 그 고통의 근원이 좀더 다른 곳에서 연유한 작품이라고 볼수있다. 즉 지고한 인간성을해친 초라하고 위선에 가득찬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는 내면화된 아픔이 짝품 전반에 흐르고있다.

학촌은 이 작품속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설정된 인물의성격을 다루고 있다. 즉 하나의 인물을 통해 「인간 얼굴을 한 가을의 자연」과 같은 마음의 결

4월의 언어

박 정 호

비인 하늘로 들면
몇방울의 빛이거나
서너치 가슴깊이로 흐르면
강나루 풀에 든 물결이거나
4월의 언어는 쓴 살

마지막 계단에 올라선
볼을 겨누어
벌거벗은 허공
포플라 울트는 햇살
실핏줄부터 등맥까지 들아 흐르면
젊은 나이테

물이 오른 나무로 피리를 불면
사랑할 수 없는 현재가
물로 선한 앞자락
가슴까지 밀려오다
목까지 차오르는 새 소리는 미련이다

날개다친 영혼이 깃털을 털고
먼지절로 보이는 햇살
그 해는 문을 닫고 스물 두 해
눈만 빠꼼 허공엔
까치 날아가자 빛꽃지던
이 4월
웬 소설(素雪)이노

<E·3>

그 4월의 빛을 보며

이 회 옥

Ⅰ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고목나무에 살아 있음의 흔적이 돌아나고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던 이들이 떠나가 버린 텅 빈 광장에는 진달래꽃이 이월의 아픔으로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 한때는 고통으로 숨박히는 4월의 벤취위에는 나대한 웃음소리와 흔해빠진 낭만의 편린들이 낙엽처럼 쌓이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습관처럼 들려오고 습관처럼 빠져나갔다.

어느 봄날 내가 벌이고 내가 꽃이던 그리운 기억. 영롱한 빛은 우리의 가슴속에 차분히 박히고 빛은 눈물과 만나 슬픔으로 핀 들꽃을 껴시고 꽃은 빛의 체제 속에 편입되어 곰으로 퇴삼아 오는 사랑이거나 고통이었던 기억.

다시 어느 봄날.

꽤 어 져 버 려

비정한 바람에 서툰 사랑이 쓰러져 허물어지고 빛은 벌이 피고 또 꽃은 꽃이 되어 살아있음을 꼼끝수 없는 때. 4월은 아지랑이로 남아 부재 (不在) 의 천지인 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Ⅱ

광화문에서 기진한 몸을 끌고 밤을 찾아 떠났던 다정했던 친구를 만나 몇잔 술을 나누며 갈라진 벽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싱싱했던 언어와 건강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웃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곤 허기로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봄빛의 허물을 벗고 굴어버려 그리하여 태양 만나는 낯선 도시락 속살에 핀 꼭 현실. 사람은 사물끼리 취해 이심 (以心) 으로 읊고 노래는 노래끼리 그리움으로 바람과 생이별의 뜨아비를 끌던 성당의 종소리는 어제처럼 구원의 증성주 나팔 속으로 밀어지고 있었다.

가을과 발끝(骸骨)한 발목으로 걸어, 걸어보는 거리, 발을 보고 웃고, 노래를 부르며 울고, 한해 자유가 습관처럼 왕래하던 광장에서 예사롭게 버린 빈 사물들과 오랫만에 해후하고 도시를 밟히는 가로수들은 지쳐 쓰러져 자꾸 나락 속으로 밀어지고 있었다.

Ⅲ

자연의 이법은 어김없이 봄을 내리고, 전달래에 꽃은 가냐긴 혈흔 (血痕) 이 머물 붙어지며 우리의 가슴속 한 가운데 꽃이 되어 피고 있다. 이 꽃은 꽃이 아닌 한

개교28주년, 창간27주년 기념

진리의 터잡아 펼친 정론의 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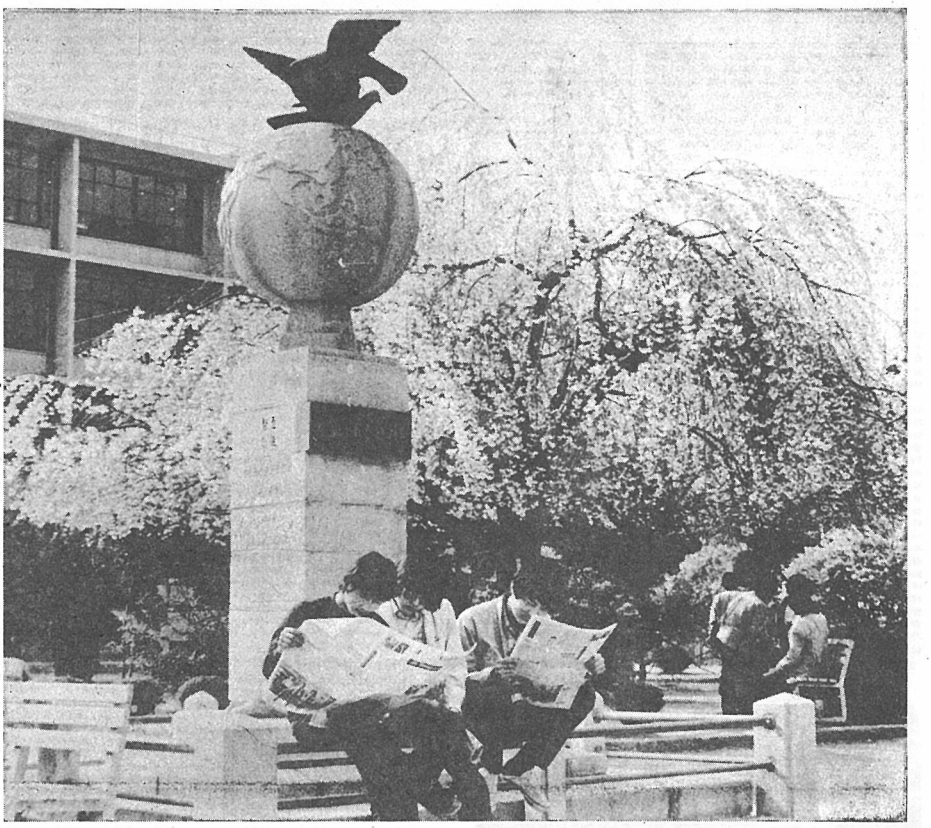


사진:황 완 성 기자 ASA 100. 1/60초. 11

창간 기념사

시대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유와 젊음의 언어, 그 진실의 말을 전하기 위해 외대학보 27년의 역사가 흘러왔다.

1955년 오늘, 학보 첫창간호를 낸 이후로 4.19와 5.16, 유신과 10.26, 자율화의 물결등 숱한 시대의 격랑속에서 이제 외대학보는 한 세대의 명멸(明滅)을 눈앞에 둔 것이다.

개교 28년, 창간27년의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삼백사십한 호의 외대학보는 그대로 외대의 정사(正史)였고 외대혼의 거짓없는 투영이었다. 그것은 외대인의 고락과 영욕의 발자취였고 한국 현대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6.25 직후 쓸쓸한 종로 한구석에 자리한 영보빌딩 가교사에서 외대 역사의 첫 줄을 쓴 이후로부터 이문캠퍼스로의 이전, 연이은 증파·증원, 외사학부의 신설, 81년 종합 대학화, 2000년대를 위한 용인 캠퍼스 마스터 플랜의 연면한 외대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우리는 보아왔다,

월간 타블로이드판에서 격주간으로, 순간에서 주간으로, 주 4면에서 주 4·8면 체제로 이어져 온 학보의 변천사를 보았고 시대를 지키는 고독한 파수꾼, 대학 언론의 침병으로서의 외대학보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왔다.

곡필(曲筆)도 패배요, 절필(絕筆)도 패배요, 오직 정론과 직필만이 고독한 선구자의 윤리와 사명임을 우리는 확인하려 했고 아카데미즘의 심연에서 미로의 실을 풀고 저널리즘의 속성과 한계의 무거운 벽을 깨뜨리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의 삶을 걸어왔다.

오늘 엄숙한 이 자리, 우리는 개교와 창간에 부쳐 「역사는 결국 발전한다」는 진리를 다짐한다. 시대를 사랑하기 위하여 밤새워 번민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몸으로 체험한 동시대의 지성인들에게 외대인의 얼과 그 영원한 전통을 바친다.

「신문없는 정부와 정부없는 신문」의 진부한 명제를 되뇌이면서 「존재」와 「전진」을 확인하는 외대와 외대학보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란다 「침묵은 금이기에 말을 하고자 하는자는 금보다 값진 말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오늘을 사는 대학인에게 천명하고 할 말이 많은 자는 붓을 들기를 바라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휴머니즈므와 자유와 무궁한 우주의 진리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역사의 과제가 바로 이것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과 이데올로기의 환상, 현실에 맥없이 사장되어 버리는 지표 없는 군상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에 앞서 긍정적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시대의 파행(跛行)적 독주를 막아서는 내일의 초석이 되어야할 것이다.

높은 하늘로 비상하며 평화의 원리를 그리는 비둘기의 날음을 보며 황혼에 물드는 저녁, 나래를 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연상한다.

한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외대와 외대학보의 영혼은 더욱 빛나고 영원하리라.

외대학보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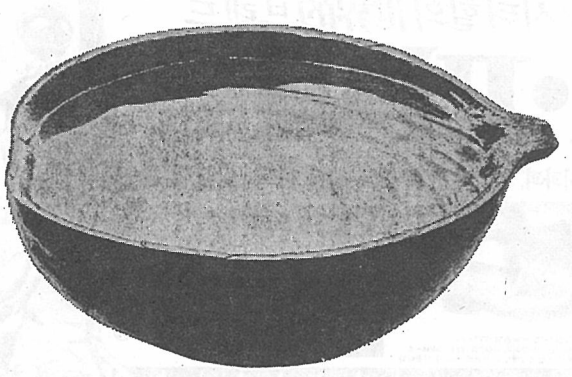
—「외대학보」 창간 27주년을 기념하며

김 정 란

캠퍼스의 이쪽과 저쪽에
햇살이 떨어졌다 그들은
일어섰다. 같이 있어야 해 낮이라도
밤이라도 저녁 어스름 어느 새벽에라도
밤은 언제나 느닷없이 우리의 어깨를
쳤다.
진실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꽃
오 영혼이여 어떻게 말해야 하나
눈 밝은 정신이여 무엇을 말해야하나.
사방으로 다니다 온 봄,
갑자기 우리는 따뜻해졌었어 그해4월
우리는 같이 있었어 밤이 와도 어느새
무섭지 않았다 누구는 쓰러졌다.
스물 두어살 혹은 이백 이십살짜리 삶
또는 꽃 또는 4월 또는 가슴의 가슴
의 가슴.
딴전을 피우다 이윽고 눈깨는 물
네게 손이 두 개뿐이더라도 이천 개의
손을 다오
네게 가슴이 한 개뿐이더라도 천 개의
가슴을 다오.
그들을 쓰러뜨리지 않고 싶어 그들이,
한번 가졌던 열쇠를 얻고 싶어
천개의 가슴을 단번에 열던 그 열쇠를

<동문 시인·불어과 19회>

"누가 「모슬렘」에게 물을 주었는가"



「알라」神을 찬양하라

한 손에는 코란, 또 한 손에는 아라비아劍을 들고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7세기.
그때 신성한 聖命을 받은 「모슬렘」들이 외쳤던 것은 「알라」神을 찬양하라 였다.
이 「베두인」족의 후예들은 용맹을 제일의 미덕으로 삼았고 낙타와 말위에서 사막에 묻히는 戰士의 짧은 생애를 노래했었다.
그로부터 13세기가 흐른 오늘날, 그들은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일어 있는자는 석유를 찬양하라고.
세계는 검은 황금의 발밑에 있다.

목마른 석유

그러나 「아라비아」는 목이 마르다.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 가혹한 亞熱帶의 고기압이 휩쓰는 선인장의 땅, 「사말」 먼지와 砂風이 휘몰아쳐 「카우프」가 그들의 視界를 가로막을뿐이다. 매장량1,100억 배럴의 석유로도 그들의 갈증을 풀 수는 없다. 석유를 마시며 살 수야 없지 않겠는가.

누가 「모슬렘」에게 물을 주었는가?

「國際」는 「페르시아」만 제일의 항구인 「담맘」을 비롯 「콰티프」, 「알하사」등지에서 거대한 상하수도 공사를 완성시켰다.
유전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는 골줄기를 뚫어올렸으며, 紅海와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을 정갈한 담수로 바꾸어 그들의 식탁에 올려놓았다.
한 병 당 460원씩 지불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목마른 「모슬렘」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무진장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금수강산의 살아있는 물맛을.

「國際」의 상하수도는 사막의 밑을 흐른다.

담맘 상하수도공사 현장

앞서가는 건설의 기수
國際綜合建設株式會社

동서(東西)로 이어달린 근발자취, 28개 성상(星霜)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외대인의 슬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의 하나하나의 슬결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고 있다. 세계속의 외대인, 점점 작아지는 세계속에서 그들의 위치는 날로 굳건해지고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세계에 흩어진 동문들을 되도록 많이 조사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언젠가는 기자의 손으로 그들의 족적을 더듬어 볼수 있는 날을 위해 미루어 두기로 한다. <편집자주>

「세계를 호름하는 한국의 대」 요즘기 영보빌딩에서 미네르바 동상에 이르기까지 「외대생으로서의 4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졸산」이면 누구나 듣고 말하는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다. 우리 동문들은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활동무대로서 바쁘다고 느낄만큼 세계 곳곳을 수놓아 누비며 「졸산」의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학교는 학교대로 세계 각지의 명문대학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하늘로 비상하는 「비둘기」의 자태를 키워가고 있다.

우리 동문들의 혁혁한 활약상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미속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세계의 곳곳방 발때 KAL, CPA, Air France등의 항공사 예약창구에서부터 「졸산」 동문임을 확인하는 글은 약수의 정경 (胸膜)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트럭을 몰아서면 외교관, 특파원, 상사 주재원, 유학생들 갖가지 「목수업무」에 「글은 결심」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동문」의 얼굴을 이내 확인하고 함박 웃음을 터뜨린다. 서울을 떠난 비행기가 외국 그 어느 공항에 도착하든 유난히 반가와하는 동문의 환대에 「졸산」으로서 가슴부풀함을느끼게 된다.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남아 각국에서의 동문들의 활약상을 살펴보자. 1968년 제1회졸업생을 배출시킨 마인어과 출신들이 앞장서 개척한인도네시아에서 푸르퍼전 활약상이 눈에띈다. 1970년 인니—통화기업의 이승민동문(MI4, 현 Korindo Co. 이사)이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57명의 동문이 활약하고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74년에 여한종(M·14, 현 공관영사) 동문을 회장 으로 「재인니외대동문회」를 발족시켰다. 「재인니 동문회」는 본교와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과의 문화교류협정을 75년에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후배들을위해 이번 학기부터 학기당 1명씩 500불의 장학금을지급하고있고 후배들의 인도네시아 해외연수에 따뜻한 격려와 경비보조등 물심양면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주로 중국어과와 영어과 출신들이 진출해있는 홍콩에서도 김 현남(C·1) 동문 등 20여명의 동문들이 각 부문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재홍콩 외대동문회」를 결성해 모교와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맺고있으며, 자유중국에도 김 상근(C·2, 대북정치대교수) 동문을 35명가량이 진출해 있는데, 그중 70%이상이국립대만대학과 보인대학등각 대학에서 석·박사를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다. 이외에도 일본과 인도 등 동남아족에서만 모두 10여개국에서 수많은 동문들이 「외대」의 이름을 떨치며 국위를 선양하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중동중심으로 해외건설업이 활발한 진출을 보이자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터어키등에 수많은 동문이 진출해 「외대인」을 빛내고 있으며, 미개척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도 「외대인」은 어김없이 출현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언어인 서반아어와 포르투갈어를 포용하고 있는, 본교 동문들의 이곳에서의 활약상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만하다.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동문들의 발길이 닿지않은 나라가 없으며, 국내여행자들이 이 지역을 여행할때 우리 동문들의 신세를 지지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니 그 활약상이 짐작이 간다. 본교졸업 첫 대사로서 김재훈(서어과·1기)씨 현재 니카라구아 대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그외에 공사, 영사들의 외교관과 국내상사 현지 주재원들으로 각지에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지역에서 가장 활동이루드퍼전 「재멕시코 외대 서어과 동문회」는 81년 발족이래 모교에 장학기금을 보내기로 약속했으며 65년에 본교와 문화교류협정을 맺은 멕시코국립대학교 등문들

70년대 대학언론과 오늘의 좌표

창간기념 특집 좌담

—그 때 그 주역들에 듣는다

오랜만에 70년대를 풍미하던 외대학보의 「장이」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70년대라는 시대적 무분위의에도 그 시대는한국의 언론사 특히 대학 언론사에 있어서 「꽃」과 같았던 어떠한 시기보다 않았나봅니다.

이렇게 함께 지난 10여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대학 신문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타진해 보는 것은 80년대를 여는 오늘의 시점에서 대단 의미 심장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재임 당시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 봅가요.

—우선 외대학보 창간27주년을 축하합니다. 제가 학보사에 입사한것이 1970년 2학기였어요. 그이전의 기자들이 학교와의 갈등으로 총사퇴하고 난 뒤여서 신문사 전관 한 권씩 백지상태로 떠맡은 입고 입편었지요. 당시 대학가는 교련반대시위등으로 한창 시그러울 때였고요. 그이후 유신헌법 제정직 전까지 학보사에 재임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그 소위 의사프랜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71년부터 학보로 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봐요. 그때도 외부적인 상황은 여전히 매도의 압박한이었지만 특기할 것은 이때 「전국 대학언론인협회」가 결성돼 전국 대학신문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도 결국 유신헌법의 발효로 해체되고 말았지요. 당시 이 협회의 협의 보고권 「월력」은 참수한 대학신문 기자 협의보고 대통의 이 69~70년초 유신헌법 「자하신문」부터 지적 날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해고부터 지하신문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언론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돼야

—돌이 시대를 돌려보면 75년도 도 긴급조치 9호의 발동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문공부장관기정할 「전국대학신문기자 체육대회」도 열 수 없게 되었고 시대적으로는 정년문화론의 거센 논쟁, 호국단창설, 교련수업 연장등 굵직한 사건들이 교비를 이었고 모대학의 위수령 계기로 외대학보사가 「단식투쟁」을 벌이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간 잊었는데, 아마 대학내에 문과나 경찰이 전주한 것은 유신헌법 발효직전으로 기억해요. 전대학이 휴교가 됐고 외대를 비롯, 8개대학에 위수령이 떨어졌었요. 그때 군이 전주하자, 제는 하도 놀라 일간신문사에 급히 연락했으나, 그기자를 로옷을처여 「탱크도 틀어갔는데…」 하면은요. 정말 놀랬어요. (웃음)

—정신없던 시절이었어요. 나는 당시 출판공보부 캐비넷위에 숨어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천여 적(親戚的?) 인 성향이었던당시 FBS 모학생국장은 교직원을 사칭하다 붙잡혀 「장발」 협의로 대신 구류를 살았던일은 지금도 재미있습니다.

—73년 유신체제의 등장과 「김대중사건」등은 대학언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긴·조 9호는 결정타였어요. 이 시기를 전후로 대학언론의 면모도 바뀌는 분수령을 이루었고요. 제 기억으로 75년 2학기 이후로는 메모를 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73년 유신체제 발효는 대학언론의 분수령

—단식투쟁이나 농성사건등 모두 아련한 추억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방향을 돌려 당시 대학신문의 편집방침이나 체제등에 관해서도…제가 알기론 외대학보는 월간, 격주간, 순간 주간으로 발전해왔고 최종면 출판공보부 산하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는 출판공보부를 맡은 교수님이 주간직이었지요. 돌이켜보건대, 그때만해도 소위 학보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지요. 인사문제나 원칙전등은 거의 독시적으로 학생기자들이 집필, 향상했고 교수님들은 자극적인 단어나 문맥정도의 수정여럽을 맡았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겠지만…. 어쨌든 「자율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일 수 있읍니다.

—특히 외대학보는 75년까지 전국 유일의 「학생집필사설」이 실리던 신문이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지만 박대학신문기자들이 몰시 보려히 했고 외대학보를 무시 할 수 없는 무기 (?) 였다고나 할까요. 그 덕에 「대학언론인 협회」의 주도적 역할도 외대학보사가 담당했었고….

—「학생집필 사설」이 80년봄에 잠시 부활한 것도 전국적으로 외대가 최초여서 일간신문들도 관심있게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학생과 교수들이 격주로 써서 독자전체를 포용하여 애썼고 서로의 입장이 잘 대조가 되었어요. 앞으로 사설집필은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한다 생각했지요.

—맞지 사설은 「대중보다학생기장가 쓸수 있다는 본원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국유일의 학생집필 사설 게재

—당시 신문제작에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은 거의 없었지만 기자들 스스로 자제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언론의 자유성을 보장해도 기자들은 방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학보호국단의 성립과 그이전의 총학생회 시절을 비교하면서 대학언론과 학생활동을 이야기하면 교내 당시의 대학분위기에 결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참 석 자

김호석 <72년편집장·학기상사>

조양욱 <73년 편집부장·공동통신기자>

유영을 <76년 편집장·동아일보기자>

홍상표 <78년 편집장·정외과 4년>

곽해선 <80년편집장·한국학대학원 사회학과>

사회 : 이인우 <81년 편집장>
기록·정리 : 허남헌 기자

호국단의 성립과 그이전의 총학생회 시절을 비교하면

—학호국단이 생기면서 어떤 분위기는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학호국단은 마치 성역화되어, 호국단 비판은 곧 제비리인이란 등식이 성립하여 금기처럼 여겨지던 때였으니까 하면 원시적인 (?) 싸움도 많았읍니다. (일동웃음)

언론자유 있어도 방종하지 않아

—학호국단이 생기면서 어떤 분위기는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학호국단은 마치 성역화되어, 호국단 비판은 곧 제비리인이란 등식이 성립하여 금기처럼 여겨지던 때였으니까 그러 든 같이 없지 않읍니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때 학보는 대외원회와 공동으로 총학생회 입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주최하고 공평선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어요.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단결하는 일면을 보여 주는 예가 되겠지요.

—옛날 얘기로 이때로 가다가는 한이 없겠군요. (웃음)

그럼 기로 28주년, 창간 27주년을맞아 앞으로 외대학보, 나아가 오늘의 대학신문의 방향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권계해 보도록 하지요.

—아무때도 대학신문은 복수지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보겠읍니다. 언론 고유의 기능과 대학홍보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휘시키느냐에 심험지로서의 대학신문의 성패가 달려있읍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포용하면서역사의 기록자로서의 역사성을 어떻게전지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결국, 여나 지금이나 대학신문은 「시어머니 만나기 나름」이라고할까요. (일동웃음)

창간기념 특집

이자 목표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구성 체 연륜수렴 기능을 수렴치못한데도 기인합니다. 부분적이나마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는 아카데미즘에 입각하여 꼼부하고 속 깊은 성찰을 통한 자세의 정립이 절실합니다.

—그래요. 외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나 기능 자신들의 폭만을 제조하면서 권계해 보도록 하지요.

—아무때도 대학신문은 복수지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보겠읍니다. 언론 고유의 기능과 대학홍보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휘시키느냐에 심험지로서의 대학신문의 성패가 달려있읍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포용하면서역사의 기록자로서의 역사성을 어떻게전지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결국, 여나 지금이나 대학신문은 「시어머니 만나기 나름」이라고할까요. (일동웃음)

창간기념 특집

—일간신문 여시 그렇지요. 그때서 이것이 국민의 이익이란 수 있듯이 교의도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야합니다. 교의수호는 대학신문기자로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의이라는 미명하에 온폐와 사정을 합리명분 뒤적에도 어긋날 뿐더러,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흔히 우위서 점 빨기 식이라는 당국자들의 중고에 때로는 부정의 감정을가질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언젠나 기성들은 이 점을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의도 궁극적으로 학생이익이 되어야

—그러나 대학신문기자들이 지나치게 학생이익을 생각하며, 선구자적 의식을 남용함으로써 대학신문의 갈등이 발생하는경우도 많았읍니다. 이러한 지나친 지사의식이 결국 독단이나 기자들의 자기도취, 혹은 고립주의에 빠져드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학언론이 어둠수렴에 실패했던것도 이러한 지사에기인한 점이었고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었다면 그 잘못을 실현하기란 쉽지않아요. 지난날 대학의식이 구심점이 없이 방황한 것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이 어론수렴·확산의 방법이자, 따라서 언어의 「제스쳐」는 결국 행동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제스쳐」는 익살이나 해학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그릇된 행위에 은폐를 위함, 미봉책이나, 권시효과로 사용될 수도있다.

그뿐인가, 희극나 위협의 수단으로 분당하게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이다.

(1976년 6월21일자)

『북한에서 넘어온 북괴군들이 수한림 당시 관문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여러 른것으로 그들이 속희의 눈물까지 흘리면 「제스쳐」가 반미려 너비의 시벤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측서 엄혜준 옷을 벗어던지고 나체의 시위 (?) 를 통해 중요와 배심의 「제스쳐」를 썼던 것이다. 』

▲상황을 보는 눈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나아갈때는 분명은 시방과 전보의 계기가 되어야하며, 거기에 함축을 함수있는 우리여야 하겠다. 제 (?) 나라가 흥하는 아침에는 제나라의 신하노릇을하고 혼 (魂) 나라가 흥인는 저녁에는 조나라의 신하노릇을한다는 고사에서 나온 「자세사초 (事者事是)」라는 말이 그럴듯함게 통용되는 이때 선보는 중정도 있지 않은지도 모르지 (1979년 12월19일자)

▲70년대 마지막 겨울에

「담결의 시대」「근대화의 시대」「번롱시대」「전환기의 시대」등등, 이 10년을 경의하는 말들의 격랑속에서 결국 70년대는 잔인 (殘忍) 의 시대로 그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70년대 마지막 겨울은 그러나 결코 잔인한 계절만은 아니다.

지도자는 백개의눈과 하나의뇌를…

"선부른 긍정·부정의 논리는 유보해 두자"

자가 되기보다는 「참조적 비동조자」가 되는것이 신문이 생명력임 고수해야 하는 종교인지도 모른다. 그러해야만 그 사회의 미래가 있고 언론은 미래에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신문(新聞)은 또한 신문 (信文) 이어야한다. 「통념적진리」에 비치(背馳)되는 것은 인격가는 무기력해질 정임을 명확한 인식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인줄 같다. (1977년 4월11일자)

▲「반미터」사이의 두 가지「제스쳐」

「제스쳐를 쓴다」는 말은 요사이 흔히 들는다. 자신들의 이다. 따라서 언어의 「제스쳐」는 결국 행동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제스쳐」는 익살이나 해학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그릇된 행위에 은폐를 위함, 미봉책이나, 권시효과로 사용될 수도있다.

그뿐인가, 희극나 위협의 수단으로 분당하게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이다.

(1976년 6월21일자)

『북한에서 넘어온 북괴군들이 수한림 당시 관문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여러 른것으로 그들이 속희의 눈물까지 흘리면 「제스쳐」가 반미려 너비의 시벤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측서 엄혜준 옷을 벗어던지고 나체의 시위 (?) 를 통해 중요와 배심의 「제스쳐」를 썼던 것이다. 』

▲상황을 보는 눈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나아갈때는 분명은 시방과 전보의 계기가 되어야하며, 거기에 함축을 함수있는 우리여야 하겠다. 제 (?) 나라가 흥하는 아침에는 제나라의 신하노릇을하고 혼 (魂) 나라가 흥인는 저녁에는 조나라의 신하노릇을한다는 고사에서 나온 「자세사초 (事者事是)」라는 말이 그럴듯함게 통용되는 이때 선보는 중정도 있지 않은지도 모르지 (1979년 12월19일자)

▲상황을 보는 눈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나아갈때는 분명은 시방과 전보의 계기가 되어야하며, 거기에 함축을 함수있는 우리여야 하겠다. 제 (?) 나라가 흥하는 아침에는 제나라의 신하노릇을하고 혼 (魂) 나라가 흥인는 저녁에는 조나라의 신하노릇을한다는 고사에서 나온 「자세사초 (事者事是)」라는 말이 그럴듯함게 통용되는 이때 선보는 중정도 있지 않은지도 모르지 (1979년 12월19일자)

▲70년대 마지막 겨울에

「담결의 시대」「근대화의 시대」「번롱시대」「전환기의 시대」등등, 이 10년을 경의하는 말들의 격랑속에서 결국 70년대는 잔인 (殘忍) 의 시대로 그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70년대 마지막 겨울은 그러나 결코 잔인한 계절만은 아니다.

▲A는A

글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 그러하다.

「A 를 쓸수 없었다. 그러나 B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을 「A는 A」란 명제의 시대적 운명을 뼈있게 보여준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 다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게할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는 설자, 시인, 소설가에게 그리고 정치가에게 말이다.

A가 사실은 B이기도 하고, B가 앞고보면 A의 현상과 논리가 내부하는 이치결에 한편 은 A 를 A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이러진다. (1981년11월 5일자)

빈의자 20년

정론(正論)의 현장

—상황속에 명멸한 언어들

대학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문제와 우리의 역사, 그리고 현실을 지켜보며 정론 (正論) 의 장으로 제72호 (1963년) 부터 시작된 「빈의자」는 그 이름이 주는 묘한 뉘앙스와 함께 어느덧 20들을 맞았다. 때로는 너무 수신교과서(修身敎科書)적이라는 힐난도 들었고 불가피한 우회만연 (迂廻漫延)도 있었을을 자인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은유가 사실의 서술보다 더 감칠할수 있고 또 우리의 수준높은 독자들은 넘칠한 이성과 감성의 불빛으로 지내(知性)를 활 (敎)해 왔던 것이다. 「빈의자」는 늘 비어 있어야한다. 그러기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고요한 침잠의 경지에서 모든 사상을 투시시켜 보려는 것이 우리의 자그마한 열원인 것이다. 이에 본보는 창간27주년을 맞아 빈의자 20년을통해 지나온 28년 외대학보 27주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지도자는—」

가장 안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도력을 과시하려고 기교 부리다보면 「아수 (野獸)」가 되어 인간의 대중의 고통분담 수용자의 보람 「고독」보다 자신을 전치 못한다. 지도자는 늘 어려 거목을 들거나 앞에서 기치 (旗幟) 를 들어서는인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것은 백개의 눈과 하나의 뇌 (腦) 뿐이다. 자들을 보는 그 하나하나의 눈은 대중의 것이어야한다. (1965년 11월19일자)

▲기적의 역설

바인강의 사람들에겐 그들의 페허위에 지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먼리가 할앞에 배웠어겨간 노인이 그들과 함께있었고 또 임금을 받지않는 노동자와 그 독재자본을 재투자하는 경영자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부서진 집터에 눈물을 보이기전에 상하지 않은 벽돌을 간수할줄 알았고 집을 다시 세운 그들은 흥청거리기전에 그들의 옷깃을 여밀줄 알았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한장면에 올려 놓으려 애쓰고 있다. 어떤이는 자기 혼자서 기적, 기적이라고 고함치는가 하면, 공원주변을 걸은 이들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느릿하고 서투른가? …노닷없이 나타난 신흥 은행상 꽃잎을 세우고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려 해주던 무약의 시대는 지나고 지금 바야흐로 새로운 정의가 성형하는 시대가 전개 되었다. 그시대의 효용은 모든 사람의 희생을 어느때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육십장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렌가 우리가 긴시간을 되돌아 봤을때 먼지가 뭍석거리는 거리보다는 깨끗이 포장된 보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삶에 지친 나머지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적이 허황하고 싶이 고단하다고 포기하기에는 한강은 너무 맑고 아름답지않은가. (1967년 4월29일자)

▲나에게 귀여운딸이

「나에게 귀여운 딸이었어 그딸이 어떤 놈팡이에게 정조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딸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의 아들이 단 며칠이라도 저널리스트가 되어있다면 난 그 아들을 포기할것이다」라고 말한 협회자는 덴마아크의 「키에르케고르」였다…

웨도를 벗어난 언론을 이루고 있는 일단의 저널리스트들이 바로 빠락한 딸의 정조 보다 못한 저널리스트들이 아닐까.

언론은 시대의 조류를 선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오도된 언론은 사회를 정도로 이끌기에 앞서 그자체의 퇴보만 거듭할 것이다.

(1971년 4월20일자)

▲70년대부터 민족사관의 정립과 주체적 확인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걸고 선진국가에로의 발돋음을 시작하기 위해 부수히 외쳐졌던 국민총화를 「도피성이민자」들은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머 머 나이가 사회 저변의 윤미 앞식에도 섰지 못한 피를 밟하고 만 것이다. 또한 한국의 유학생들은 어느곳에를 가든지 수재로서 인정을 받고 조국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고 하지만 어렵게 유학의 길을 얻은 그들이 고국에 대해 그들이 쌓아온 학문과 지식을 제공하려 하지않는 행위는 무어라 설명해야 할것인가.

—이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어떠한 사고체계를 형성하고있으며 내 조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인가를 듣고 싶은 심정 뿐이다. (1975년 6월19일자)

▲『아담,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보람과 후회를 뛰어 주었던 방학이 조용히스쳐갔고,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아담,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하는 신의 질문에 응해한 답변을 하지않을 76년도 마지막학기의 계획을 조심스레 마련해 나감이 「지금」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학인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1976년 9월1일자)

▲신문(新聞)은 신문(信文)이어야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신문은 「통념적 진리 (올곧은 的眞理)」를 따라야 한다. 통념적 진리에 부합하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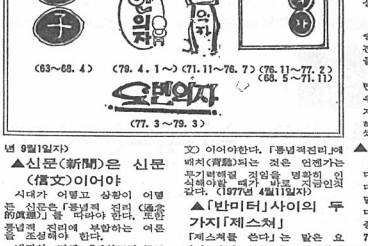
냉정히 말해 「비장조적 동조자」가 되는것이 신문이 생명력임 고수해야 하는 종교인지도 모른다. 그러해야만 그 사회의 미래가 있고 언론은 미래에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신문(新聞)은 또한 신문 (信文) 이어야한다. 「통념적진리」에 비치(背馳)되는 것은 인격가는 무기력해질 정임을 명확한 인식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인줄 같다. (1977년 4월11일자)

▲「반미터」사이의 두 가지「제스쳐」

「제스쳐를 쓴다」는 말은 요사이 흔히 들는다. 자신들의

◇역대 빈의자 컷



선건설 후분배와 이익집단

박 현 채

<경제평론가>

Ⅰ

경제현상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둘러싼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를 배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민구성원간에 있어서 경제성장과의 간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국민경제의 성장,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다 더한 지배의 과정에서 전체로서 국민이 누렸 수 있는 사회적 생산의 규모는 증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의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국민경제의 성장 또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인 인간 간의 사회적관계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부 또는 생산에의 참여의 몫을 바꾸어 놓는다.

여기에 놓이된 사회적인 권력적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다 많은 국민층에 있어서 가난의 문제가 주어지고 이같은 가난의 문제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서 보다 강도있게 제기되기에 이른다. 더우기 국민경제의 성장은 자본이 사회적 생산의 단당주체로 되고 이와같은 자본의 경제활동 또는 사회적 생산의 동기가 보다 많은 사회실현에서 주어지는 곳에서는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은 바로 자본에 의한 보다 많은 이윤의 실현 곧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 잉여(Economic surplus) 에의 보다 많은 자본 또는 건강하여일 수 밖에 없는데서 한 사회에서 가난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시된다.

그간 1960년대 이후의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기된 사회적불균형의 확대, 심화, 곧 가난의 문제는 바로 앞에서 본 택락에서 이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민경제의 높은 대외의존이라는 조건속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잉여의 대외적인 누출메카니즘이 굳건한 것으로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고도성장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가난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공업화과정에서 근로자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가운데 노동에 대한 분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국민경제의 성장을 밑받침한 1962년이래의 경제개발계획은 불균형성장론에 따른 외국자본을 주요한 축으로 한 수출입국형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항구적인 초과이윤 실현기반의 확보라는 외국자본의 논리와 관철과정에서 경제잉여의 누출메카니즘을 원리금상환 과실의 송금 부의에 의한 부등가교환등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의 심화과정으로 정착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와같은 과정의 소산인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는 값싼 노동력과 이를 위한 값싼 농작물가격을 국제적 조건으로 요구하고 외국산 원자재와 외국산기계,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지장에서 국내시장을 경시하는 것으로 되어 경제성장결과의 국민적 확산메카니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같은 국민경제적상황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따른 기대에의 충족없이 사회적 평균수준보다 낮은 소득수준에 있는 광범위한 국민층의 보다 나은 생활에의 요구를 안하고자했던 것으로 주어진 것이 이른바 선건설후분배이다. 이것은 그간에 이루어진 자본에의 보다 많은 경제 잉여의 귀속과 귀속을 위한 제반 경제정책을 정당화하고 내일에 있어서 보다 나은 생활에의 기대를 광범한 국민층에게 줌으로써 현실적 이려움을 전국민적으로 이겨나가자는데에서 입안된 것이다.

Ⅱ

이와같은 국민경제적 조건에서 주어진 선건설후분배라는 원칙의 제시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변당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 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한 사회에 의한 보다 더한 자연에의 지배 그리고 사회적 생산의 확보만이 보다 나은 경제적 복지에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때 더욱 그렇다.

자본주의국민경제의 순조로운 자생적발전 즉 아담·스미드가 자연적질서에 따른 발전이라고 말한 선건자본주의합의 발전에 있어서는 산업자본의 국내적분업관련위에 선 경쟁적 발전이 산업자본의 축적과함께 한사회의 사회적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광범한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분배의 몫을 실현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산업자본간의 경쟁이 사회적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이윤률의 평균화를 결과하며 국내적 분업관련위에 선 소재및 시장관계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보다 많은 부, 그리고 경제잉여를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게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공업의 발전은 그 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낳고 근로자계층이 갖는 상품수요자로서의 역할은 사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자생적 발전에 있어서 산업자본에의한 축적의 긍정성과 분업관련에 의한 발전의 파급은 른 것은 아니다.

경제건설과정에서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룩된 인위적정책적독점으로서의 이른바 항구적 독점은 우리나라 자본을 밑받침이 없는 조속이로 만들어 버렸으며 안이한 보수적 성향을 갖게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자본은 종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자본의 속성은 그간의 경제성장유형의 소산인 재생산구조의 반영인데서 재생산구조가 외국자본의 요구와 결합하여 쉽게 바뀌어질수 있는 전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데서 그대로 유지될수 밖에 없다.

대외 개방형의 구조에서 수출을 위한 요구는 대외적으로 제약없는 경쟁에의 돌입을 불

> 선건설 후분배는 생활상의 최저욕구를 충족시켜야하고 보다나은 분배로 구체화될수있다는 제도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킬은 자본에 의한 보다많은 이윤의 사회 실현에 의해서만 매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정한 경제성장 또는 경제건설주의 보다 광범한 국민층에게 보다 나은 분배가 실현 될 수 있다는 보장을주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는 있다.

더우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가난의 문제가 어제보다 나은 생활이라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장에 따라 더욱 높아지는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불균수준의 심화에의 요구라는 상대적빈곤의 문제라고 가능한 것으로하고 이것은 경제력의 열세라는 조건위에서 전망된다. 여기에 주름은 안으로 주어져 게노임에 의한 전가가 연계된다. 오늘 우리 경제가 300여억불에 이르는 대외채무의 누적속에서 보다 커지는 국제수지의 적자에 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경제의 재생산을 수출에 걸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와같은 상황은 제5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도 환경한 실질적해소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본다. 이와같은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의 국제화 경향과 함께 정부의 정책또한 부분배를 보장한다고는 말하기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제5차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을 강조하고부족지국가에의 지원을 제기하고있으나 이것을 위한 경제적 기반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못한 것 같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기업 또는 자본의성격을 변화시키는데 대한 노력없이 이제는 민간주도형경제에로의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그간에 정부가 말한 선건설 후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후분배에 대한 정책적보장을 줌으로 이 자본의 논리에 이후 경제의 복종을 내맡긴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더우기 이와같은 노력과 함께 정부는 광범한 국영기업의 민간불하를 구상하고 있다. 공익 그리고 경제지원부문에 있어서 국영기업이 직접적 지금젖 주어진 광범한 국민층에 대한 국가적 의무의 경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것을 뜻합수있다.

여기에 우리는 선건설후분배가 선건설만을 위한 것이었지 후분배를 등한시했다고 할수있다.

그러고 국민경제적 측면이나 자본의 측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기아발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제시는 바로 그것이 긴 긴 기간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광범한 국민층에게는 평탄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중의 경제생활은 오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노동력의 실현으로 오늘의 생활을 영위한다.

그들에게는 바로 내일이 희망에 찬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에 생활이 없는한 내일을 기대할수 없으리만큼 가난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광범한 국민의 생활에 대한 물음이 없이 경제성장을 위한 한목의 일만을 정당화하고 광범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른바 선건설 후분배라는 원칙은 자기근거를 갖는것은 아니라고 말해진다.

Ⅲ

선건설 후분배가 국민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뒤에 보다 나은 분배로 구체화될수있다는 제도적보장이 전제로서 주어져야 한다.

먼저 광범한 국민층에의 최소한의 생활상의 요구의 실현은 경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국민경제구조의 새로운 민족적 이해에서 거쳐, 경제적으로 이익집단의 자기이해실현을 위한 활동의 보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먼저 국민경제구조는 산업간 기업간의 분업관련위에 굳힘있게 개편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잉여의 누출을 억제하기위한 조치가 무역구조의 개편, 수출입국형의 내포지향적인 개편 외국자본에 대한 입장한 제한 외의 보업과 투자의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경제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성장 결과의 국민적확산 메카니즘이 구체화 되도록 내수기반을 다지 굳건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이해집단의 자기이해실현을 위한 활동의 보장은 경제가 갖는 바성에 대한 경제외적 조정수단으로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민, 근로자등 이익단체의 경제적 이해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분배문제에 있어서 경제력파국을 구고통의 분담이 국가적 측면으로 퇴전됨으로서 우리는 국민경제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영역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국영기업의 광범한 국민적 측면에 의한 장섭, 정책의지에 의한 자본측면에의 개입등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민간주도형 경제의 합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적 영역의 확대보다 그것에 있서는 선행제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민주주의 곧 경치에의 광범한 국민적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질

70년대 불균형성장의 극복,

70년대 경제를 돌아보고

○…국민경제의 척도는 그 플랑적인 면에서 본만이 아니…○
○…따 분배의 측면에서도 얼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불때 60·70년대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선건설 후분배…○
○…의 논리 속에서 불균형 (성장과 과량적 경제 구조)를…○
○…필연으로 하는것이었다. 70년대를 돌이보면 (수출입국) …○
○…이나 「고도성장」의 신화뒤에는 심화된 부의 편재, 특…○

상환성 요구의 실현은 이익집단의 활동보장 요구돼

인위·정책적 독점, 경제의 보수성향 유도

제화하리만큼 강력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그간의 상황이나 국가권력 경제개입의 정도에 비추어 지명하다. 따라서 자재된 이익집단의 자기이해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력을 결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복지국가의 지향과 전제주의가 상호 관계되어 제기되는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자본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것이 광범한 국민적 관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는 한 바로 경제적측면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해집단 상호간의 자기이해의 조정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서 보다 공평한 분배, 보다 균등한 분배를 구체화하여 한 사회인에서의 가난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길이다. 이것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주의국민경제의 오늘날의 발전단계에서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연유가 있다.

Ⅳ

결론적으로 선건설후분배론은 오늘날의 국민경제의 상황에서 본 필요나 그것에 이어지는 분배의 보장에서 그 바당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광범한 국민층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생활을 부시한 관념론으로밖에 생각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국민적 고통의 분담을 통한 측력이나 노력이 자립적 국민경제의 확립과 전국민적 측적으로 되는 계도가 보장될 때 만이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적 수단의 동원이나 영역의 확대로 되는 길도 이것에 있서 정치력으로 전국민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는한 국민적 고통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고 말할수 있다는것이다.

고도성장속의 소득분배의 실태와 과제

박 찬 일

<외대 경제학과 교수>

1. 머릿말

이글은 지난 20년동안의 고도성장속에서 소득분배의 임화은 어떠하였으며 신제경은 사 얻어졌으며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총생산량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고용도 현저히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의 실현과 그 과정 중에서 한 소득의 공평한 분배와 국민복지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20년 동안 수출주도형, 외자의존형, 경제개발계획하에서 고도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집합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분배의 악화과정을 지적하면서 그개선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농업인학자 경제학자들은 농민소득의 악화와 그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평정이코노미스트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도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임금의 인상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70년대후반에 들어서부터는 도시에서는 심필임금이 상승하였으며 농촌에서는 농가평균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평균가계소득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고도성장속에서 해석하고 분배구조의 악화를 개선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임금인플레이션으로 일방적으로 억누르려는 경향도나 타났다.

그러면 분배의 실상은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 것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경제학자들은 제 1 차통계자료를 다루고 음미한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갖지않은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음바른 통계분석이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경제학자의 분석의 결과는 한편에있어서 1,700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직접 또는 영향을 주는 것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 자체 존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 주로 근로자소득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의 광공업 통계조사보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농민소득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선성장, 후분배론」의 귀결인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표본조사에 의한 임자통계를 기초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주장하는 논거가 오차가 큰 임자통계를 이용하고있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된다.

2. 공업부문의 근로자소득분배의 실태

전산업의 근로자 소득분배의 원활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가 유일한 계일차자료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기능적 분배기준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의 분배원활을 분석하는 데는 이차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오차가 크기 때문에 자료 이용상의 유용성이 매우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가 기능적 소득 분류를 완전하게 처리하고 현실에 가까운 기능적 소득 분배 실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조업 부문의 노동 분배율을 분석함으로써 기능적 분배 실태 분석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산업에 대한 기능적 분배 실태를 간접적으로 노리게 한다.

여기서 분석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종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소득의 비율로서 그 비율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정부나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생산성임금마저도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력에 대한 최저한의 대가로서의 임금권리를 박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노동분배율은 1960년의 30.9%에서 1966년에는 24.4%로 급속히 악화되고 1960년도 후반기및 1970년대 전반기에도 계속 완만하게 악화됨으로써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공업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76년이후 다소증가됨못한 노동분배율은 74년 이후는 76년전 한국광공업조사보고에의해 작성된것으로서 73년의경우 73년판 광공업조사보고에 의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22.5%인데 반하여 76년그으로 계산된것은 24.8%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작성방법이 바뀐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렇게 볼때 76년의 노동소득분배율 24.8%도 그이전통계방법에 의하면 22.5%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수있으며 따라서 60년대 이후 70년대후반까지계속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어 왔다고 말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조업의 노동분배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즉 고용 및 임금 결정의 주도권이 사용자측에 있다는 것이 계임금을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기업은 독점력을 기초로 임금지불비도를 이용하여 근로자 중위값, 숙련·불숙련별, 남여별, 농촌별, 근속 연수별, 직무별 등 각 발련에서 임금을 차별적으로 결정하여 평균 비용의 인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업을 원하는 막대한 비숙련 근로자를 계임금 조건하에 입사공 (또는 양성공)으로 고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본공(本工)근로자의 기본 임금의 결정한 인상을 어렵게 한다.

또 기술진보에 따라 조업이 단순화·표준화됨에 따라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막대한 필은 여성 근로자를 차별적 계임금으로 이용하여 남성임만근로자에 대체함으로써 노동 평균의 파임을 낮고 이를 기초로 남성 근로자의 계임금을 깎는다. 또 개수임금제조는 임금을 높를보로 차별화한다. 이는 시간 임금제보다 노동 강도를 높여 총생산에에서 차지하는 임금 비용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계임금을 강요하는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또 한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의 기업은 서구와는 달리 낮은 기본급에 계수임을 복합시켜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설정하는 임금률 제도를 쓰고있어 표준노동 시간에 대한 기본급의정당한 인상을 제도적으로 어렵게한다.

또 수출주도형 기업 성장과정에서 수출 산업의 경우 소시설 팀평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환율은 국내 물가상승에 크게 뒤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차별적 임금 지불을 통한 평균 비용인하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물째, 노동공급의 과잉과 낮은 노동력 이동성은 한편으로는기업의 임금 차별화를 통한 계임금의 설정을 일반화으로 촉진한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임금이 따는 존립조건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계임금은 노동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어렵게 한다.

세째, 1960년대의 정부의 계농산물가격 정책은 한편으로는 계임금에 의하여 자본가의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여 노동력을 풍부하고 계임하게공급함으로써 들째 요인을 강화한다.

네째, 기업의 독과점화는 실사 노동 운동으로 임금 인상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써 실질 임금의 향상을 어렵게 한다.

다섯째,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장기제인 국제나 조사 관계를 들려진 계임렬이 대등한 조사 관계가 성립되도록할 때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계임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3. 농민의 소득분배의 실태

그러면 농민의 소득분배의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농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조사연보를기초로 농가소득의 실태를 살펴보면

즉 1962년의 농가의 명목소득이 67,885원으로서 도시근로자의 명목소득은 96,600원으로 1977년에는 65만호로 계속 증어들어 전농가에서 차지하는구성비로 4 할내외에서 3 할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0.5 정보 이상의 계층은 모두가 다소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호수 증가가 급속한 것은 1~2 정보의 중농층이다. 이러한 농가계층 구조 변동의 가장 두렷한 특징은 영세농층의 대량탈농화 및 중농층의 급속한 비중확대마고 할 수 있다. 0.5 정보 이하의 영세 농가수와 0.5 정보에서 1 정보에 이르는 소농의 농가수를 합해 보면1960년대의 총농가호수 235만 중73%에 이르며 1977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전체농가수 238만호의 66·2%에 농가소득의실태를 보면 전체 농가의 36%를 점했던 1965년도의 0.5 정보 미만의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3분의 1도 인최는 수준인 29%에 불과하여 1963년 계속 악화된 상태를 보여 오며 1967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소득의 5 분의 1에 못미치는 17%라는 격심한 격차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렇게 낮은 수준은 4 년간이나 계속되었다.

1971년 이후 3년간 다소 개선된 기간에도 농가 소득이도시 근로자 소득의 1/4에도못미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0.5정보 미만의 영세농가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 엄청난 격차로서 거의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인해 그 상당수가 도시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0.5~1.5정보의 농가소득도 1963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4분의3정도 였으며 1967~68년도에는 거의 3분의1정도의 비중으로 점차 악화되어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유용한 길이라 하겠다.>

계를 들려진 계임렬이 대등한 조사 관계가 성립되도록할때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계임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성장과 분배 개선은 동시 진행이 바람직

70년대의 고도성장과 고용증대를 국민복지 측면에서 재평가해야

한편 1974년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은 674,451원으로 1973년에 비해 40.3%가 늘어났으나 도시근로자소득은 644,520원으로 불과 17.1%밖에 오르지않음으로써 농가소득이 근로자소득 개선 되었다고는 하나 상대소득 격차로 보면 개선된 부분은 1정보 이상 농가의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1.5~2정보및 2정보 이상의 농가만이 각 연도의 농가 평균소득대비율이 전자는 69년의 1.4배에서 1977년에는 1.5배로, 후자는 1969년 2배에서 1977년에는 2.1배로 개선된 반면 농가인구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의 소득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

4. 맺음말

우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고도성장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소득분배구조는 사실상 뚜렷이 악화되는 것이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70년대의 근로자의 복지가 개선되었는는 주장이나 임금 인플레이션론은 내실이 결핍으로 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민소득의 실태분석에 있어서도 다수의 농민의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근로자소득을 상회하며 농가소득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경제적원칙을 제배하는 소수의 부농에 국한된 것이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개발계획이나 성장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발전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인가? 이러한 문제가 제음미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개발계획이 사회개발계획으로 의미를 확대해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렇가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성장과분배개선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성장은 농민에게 있어서 농민복 전화의 길이어야한다. 한편 경제성장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가질 수 없는 가내노동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가내노동법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을 가질수 있는 계임금근로자에게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최저임금법의 제정없이 단체협약을 통한 최저임금제의정착이 근로자의 복지개선에 유용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방향들이 성장과 분배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필요충분조건들은 못되며 기껏해야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성장과 복지의 병행은 그 단초적 싹이 대공황이라는 심각한 불황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불황이기때문에 복지가 어렵다는 보수적 견해에 대하여 그 잘못됨을 지적하는 배우 좋은 여사적 교훈이다.

80년대 경제정책의 향방은…

80년대, 경제의 대안을 찾는다

○…과괴 제일의 기업병합, 중소기업의 연이은도산과 상대…○
○…쾌으로부관심뿐인 농업경제 외채누적과상환 부담의 증가…○
○…를 결코 간과할수 없는 여기저기 숨어 있는, 이특집…○
○…은 따라서 70년대 경제의 필요와을 역사적인 원근법…○
○…에 따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80년대 한국경제발전을위…○
○…한 방향을 살피는데 역점을 두었다. <편집자주> …○

Ⅰ. 서 론

기업의 영리추구를 토대로 시인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리고 기업의 영리추구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참다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영리추구 자체에 윤리적 관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며, 여기에 으로도 자본주의 사회는, 영리추구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중세의 종교적 윤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생하였다. 막스 베버 (Max Weber) 같은 사람은 근대 초기 유럽의 여러지역에서 발생한 몇몇 종교유파의 합리주의 정신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른 바 있지만, 그 역시 영리추구를 윤리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밑에 함축된 합리주의를 보다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 유럽에서의 근대 자본주의는 확실히 이를 합리화 사고를 가진 산업계 중산자층의 끊임없는 이윤추구에서 이룩되었고, 그들의 노력은 전통적 권과 각종 제약을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에 바탕을둔 자본주의 사회 즉 시민사회를 성립시켰다. 또 그 사회는 전통적 사회에 비해 많은 사람들의 경지참여를 가능케하였고 시민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자본주의의 이러한 발랄한 모습은 산업혁명을 거쳐 거대한 부가 축적됨에따라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말의 공황을 맞이하게되자 독점화의 경향이 자유경쟁을압도하게 되었다. 산업의 집중화 경향이 투철해졌고 대독점체들이 시장에 결정적 영향력을행사하게된 것이다.

이에대한 각국의 대응은 달랐지만 독일의 경우는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을 정부가 지원하였으며,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독점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셔먼법, 클레이튼법과같은 트러스트를 금지하는 법률들을 연방입법으로 제정하였으며, 카이네기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가측에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감조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 조차도 독점체제는 계속 확대되었다.

자유경쟁 원리는 경제학 교과서의 주요원리로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 많은 독점력 요소의 존재 때문에 허구화되었다. 1930년대에 불완전경쟁이론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노동조합의 존재와 함께 독점체의 존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성격은 주로 이 세가지 요소의상호관계속에서 형성되며 이 세 요소간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에 경제의 균형과 사회적안정을 기할수 있다.

그 밖에도 독과점을 견제하는 소비자단체를 들수 있으나 소비자들은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를 집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독점체와 대등한 힘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익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밖에 반영될수 없다.

사무엘슨의 소비자주권론에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것은 자유경쟁원리를 중시하고 여론의 힘이 강력한 미국에서 조차도 소비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취약한 것임을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독점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정책과 사회적 여론이 독과점입제의필요를 막는 최소한의 제동은될 수 있다.

따라서 독과점과 관련해서 기업의 윤리가 강조된다고 할때 그것은 기업가 개개인에대한 윤리적 평가라기 보다는독과점체의 경제행위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한 규제의 사회적 요구를 소박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레이디드- 파워 (領民力 Courier vailing Power) 이론은 이런 강력한경제적 세력이 등장하면 그에 대응하는 다른세력이 나타나 사회적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낙관론에 바탕을 둔것이다. 제한된 범위이긴 하더라도 이 이론은 오랜 민주주의의경험을 축적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전제적 요소를 청산하는 시민혁명을 불완전하게 겪고 새로운 경제적 특권이 전근대적 요소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던 과거의 일과 일본 같은 후발자본주의의 경우 오늘날의 제3세계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균형이 자동적로 이룩되지 못하는 것이다.

Ⅱ. 본 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기업의 역사가 결코 짧다고 할수없지만 오늘 서울 시민지 지위에서 정상적 발전을 저지못했다.

뿐만아니라 전후의 농분단과 6.25동란을 거쳐으로 정상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독점들은 1950년대 무반에 주로 귀속 식민지의 불법적 유산으로서의 귀속재산불하, 미국원조 제원조, 경제부흥자원에서의 부의 재정·금융지원등에 의 단기간에 형성되었으며, 60년대에 들어온 뒤로는 정부도와의 경제개발계획있은 외자입과 결합됨으로써 급속히발장하였다.

경제규모에 비해, 경제원조, 재정·금융지원, 외자도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만큼 자본축적은 매우 빨랐으며,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몇몇 대자본계열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며라도 과언이 아닐만큼 매우 높은 경제력의 집중을 결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복지나 분배의 형평, 경제안정이나 경제자립, 그리고 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 소홀히하며 경제성장과정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하지 않은채 국민총생산의 증가가 바로 경제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의 자연스런귀결이었다.

성장위주의 정책은 독과점체의 경제력 폐쇄를 대규모의 경제성에 입각한 합리화로 미화하였고 경제력의 집중에 따르는 폐단을 성장과정에서는불 용피되기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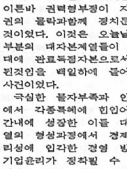
1962년 6월15일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기업인과 경제단체의 부정축재액은 322억에 달하였으나 최종적인 환수통고액은 42억원으로 줄어졌었으며 그나마 경제개발에 참여시킨다는명분으로 부정축재자들에게 새로운 금융지원과 외자특혜를 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부정축재자라는 기업은 비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기 보다는 대기업의 권력지향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있던 것이다.

1950년대말까지 주로 미국잉여농산물 가공산업 즉 제분, 면방직, 제당업에서 발전한 독점체들은 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섬유 시멘트, 비료, 화학섬유, 전기기기등 생산재부문에 진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산업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이며, 또한 산업의 성격상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하는 사업인만큼 대기업의 출현은 불가피한 일면을가지고 있었지만 막대한 정부지원과 외자를 투입한 이들 산업이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한 경제력의 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독점체의 자본계열에 집중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급속히 성장한 대자본계열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산업을 등록 다양한 업종의 기존 중소기업들을 합병함으로써 이른바 문어발식의 대재벌그룹들을 형성하게된다.

이들 재벌 그룹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아 종합상사부문에 진출함으로써 부여업은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유통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유통부문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각종 매스컴을 장악함으로써 마아케팅은 물론 사회여론형성에도 중요한 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재벌그룹은때 몇몇은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서도 손위를 차지할만큼 확장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독점체의 성장과정이 말랐던 만큼 국민경제 전체로는 산업집중도도 매우 높으며 이들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 윤 형

경제학자, 전 홍대교수

Ⅲ, 결론

그당다면 이를 대독점체들의 대독점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장경제의 주역으로서 비화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기업계 입장에서는 오랜전부터 민간주도형경제를 주장해왔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독자적 노력에 의한 합리화를 저해해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수있다. 관료주의적경제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은 경제학에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자유경쟁원리에서 누누히 강조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지적되지않으면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비교적 자유경쟁이 유지되던 19세기중반까지의 서구 자본주의는 19세기말의 불황기의 대독점체들의 출현에의해 결정적으로 동괴되었다. 물론 그이전부터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30년대에는 대관료요구에 의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자본주의국가를 만든바고, 대독점체 노동조합일 정부개입이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위에서 경제가 운영되고있다. 다만 탈라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제도화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바뀌고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유경쟁의 개념은 19세기적인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력간에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과점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의 윤리도 독점적 기업의 힘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견제력이 강화될 때 자연히 한인되는 것이지, 기업가들의 개인적 윤리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정축재문제,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금융특혜사건, 삼분특혜사건, 한비밀수사건, 1970년대의 삼성스테기사건등 많은문제가 일어났는 때마다 기업가의 윤리의식에 대한 지탄지만, 이 것은 현정체로도 막는 임법이나 제도화의 노력은 극히 적었고 그것은 전제합한한 사회적 전제세력도 한성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초에 독과점규제요구가 제기되었지만, 독과점규제는 제정되지 못한채 공정거래법의 일부분으로 끝수되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경제성장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요구하며 경제의 질적개선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결대적 영향력에 비추어 독과점인정의 기업윤리가 강조되는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윤리에 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독과점의 논리와 기업윤리

노동조합 및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한 현실
기업의 독자적 노력에 의한 기업윤리 요구돼
자유경쟁의 개념은 상호견제와 균형

Ⅰ

그간의 한국 경제는 외연적(extensive), 대외지향적(Outward-looking) 그리고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전략을 지속함과 높은 성장실적를거두었다. 즉 일어느동력을 동원하고 외국자본을 도입, 수입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대외본업위주의 대기업편중정책을 실시한 결과 1967~1979년간 연평균경제성장률은 9%이상이 되었으며 1인당 GNP도 1961년의 82달러이에서 1980년에는 150배 이르게 되었으며 수출도 200억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경제 성과는 ①수출입의 급증에의한 외연적 확대 ②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경제성및 경쟁성 제고 ③선진기술및 자본의 유치에 의한 부족한 기술및 자본의 조달 ④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이익의 촉진과 산업계편성 및 생산시설확대에 의한 장재 심업증수 그리고 그에따른 고용증대 ⑤이를 종합한 경제규모의 지속적 확대등으로 그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구조의 파행성과 필적 취약성을 노정시키는 많은 부정적 문제점을 가져 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은 오늘의 경제현실의 깊은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①합작 또는 외자전재별의 독과점구조 급성장과 민족자본형성기의 말살 ②중간재및 기자재 (技資財) 등의 수입유발구조 심화 ③외채누적과 그 상환부담의 누적④ 만성적 국내 공급부족과 수입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수요및 수입인플레의 구조적정착 ⑤수출보조와 지원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불균형적 왜곡 ⑥교역조건 악화를 비롯한 불변가교환체제의 정착 ⑦사회경제적 불균등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제개발의 부정적측면은 산업구조상에 다음과 같은 파행성을 형성시켰다.

첫째로 공업구조및 무역구조가 외국자본도입, 정부의 정책적 지원및 가공수출체제와 결부되어 공업부문 상호간에 유기적 관련체계가 결여되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둘째로 기업은 자본을 내부축적이 아니라 외자도입 또는 금융차입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자본축적의 특혜체기반위에서 성장한 대기업 또는 독과점기업은 기타의 국내기업과 유기적 관련성을 조성하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투명한 발전격차를 가져오는 이중구조를형성하였다.

세째로 그 결과 생산재산업과 소비재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승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적 탄력성을 결여하는 이중구조를심화시켰다.

네째로 그리하여 근대적 기업과 전근대적 기업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결여, 나아가서는 대립적 관계가 조성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전후방 관련효과및 외부경제효과의 소멸을 가져와 장기적이며 제구조의 결여에서 온 귀결본다.

그런데 한국경제에 있어서 소기업문제가 중요성을 갖게 된 그 양태이중이 놀라운데서는 개발기여가능성이 크기 문에 경제대상으로서의 담이 인식된다기보다는 그것이 빈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경에서 중소기문제는 경제개발의 귀결로서 나타난 경제현실 즉 한국자본의 재생산구조의 모순의 소산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문제를 개념적으로 지 않고 경제성장의 모순의 과묘 종합적, 불일치으로 파하여국민경제구조의 역사적 개념에서 이해하려는 견해는 극에 세가지로 구분된다.

①중소기업이 국민경제중에 갖는 종속적 성격에서 구하는 것.

②자본주의의 독점단계의 경자본의 수탈에서 구하는것.

③외국의 독점자본의 수탈에 대한 민족자본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 등이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재산구조상의 모순은 경제일여 들려산 경제계층간의 대립과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문제는 일 자본인중소기업이 주위자본인 대자본 (또는 독점자본) 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상업자본주의단계에서는 국민경제중에서 중소기업의 종속적 위치로 되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독점자본의 수탈 운동법칙 속에서 그리고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의 법제계화과정속에서 선전의국자본과 민족자본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역사관계속의 중소기업문제의 인식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시각은 그나라의 경제사적 배경에 따라 그 구체성이 다르게 되고 그것은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에 형된 자립적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보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문제인식의 공경적 방향이다.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질적으로도 개성되었다. 그러나 경제력의 집중과 미분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비중은 크게 계하하였으며 대기업 또는 독과점기업과 대립적 관계의 형성 그리고 대외지향적 중소기업의 성장에따른 자립경제기반으로서 중소기업의 기능의 약화등의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지표상으로 볼때 1964—1979년간 5.16이후에 처리된 이문제는 1950년대에, 자유당정권과 결탁하여 성장한 당시의 대기업 대부분이 관련된 것으로서 귀속재산불하부정처등, 정부보유달러대부, 부정이득, 정치자금공여, 불부당융자이득, 외자외화부정이득, 조세포탈, 해외재산도피등이른바 권력형부정이 자유당정권의 몰락과함께 정치문제화된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자본계열이 1950년대에 관료독점자본으로서 형성된것임을 뒤일하여 들어내보인 사건이었다.

극심한 물자부족과 인플레하에서 각종특혜에 힘입어 단기간내에 성장한 이들 대자본계열의 형성과정에서 경제력 합리성에 입각한 경쟁 방식이나 기업윤리가 정립될 수 없었고 비라는 것은 인격 상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부정축재처리과정도 이처럼 마찬한 기업윤리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의 자율적구조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은 대내적 중소기업의 분해를 가져온다>

내연(內燃)내지향적 성장이 국민경제 구조 실현 요건

종속성 탈평제잉여의 해외누출 방지가 자주적 실업 구조의 확립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지못하게 된 것이다.

Ⅱ

잘못된 개발정책의 귀결로서 정착된 이러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국민경제적으로 ①경기침체성장 ②외채누적속의 만성적 국제수지적자 ③높은 물가고등 소위 「마의 삼각」이라는 현안의 경제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관련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국민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국민경제구조의 결여에서 온 귀결본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재정·금융특혜지원, 즉 관료자본과 외국자본의 도입을 대종으로 하여 자본집중·축적이 진행된 의 독특 관료독점자본이 형성되었고 그 그 가운데 국민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형성되었음은 물 리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의존적 관료독점자본과 자립적 중소자본, 민족자본간의 대립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발체제와 대외지향적인 양적 고도성장하에서 경착된 국민경제의 부정적 측면은 종속적 관료독점자본과의 대립적관계속에서 그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1962년 6월15일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기업인과 경제단체의 부정축재액은 322억에 달하였으나 최종적인 환수통고액은 42억원으로 줄어졌었으며 그나마 경제개발에 참여시킨다는명분으로 부정축재자들에게 새로운 금융지원과 외자특혜를 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부정축재자라는 기업은 비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대기업의 권력지향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있던 것이다.

1950년대말까지 주로 미국잉여농산물 가공산업 즉 제분, 면방직, 제당업에서 발전한 독점체들은 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섬유 시멘트, 비료, 화학섬유, 전기기기등 생산재부문에 진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산업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이며, 또한 산업의 성격상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하는 사업인만큼 대기업의 출현은 불가피한 일면을가지고 있었지만 막대한 정부지원과 외자를 투입한 이들 산업이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한 경제력의 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독점체의 자본계열에 집중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급속히 성장한 대자본계열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산업을 등록 다양한 업종의 기존 중소기업들을 합병함으로써 이른바 문어발식의 대재벌그룹들을 형성하게된다.

이들 재벌 그룹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아 종합상사부문에 진출함으로써 부여업은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유통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유통부문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각종 매스컴을 장악함으로써 마아케팅은 물론 사회여론형성에도 중요한 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재벌그룹가운데 몇몇은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서도 손위를 차지할만큼 확장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독점체의 성장과정이 말랐던 만큼 국민경제 전체로는 산업집중도도 매우 높으며 이들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그당다면 이를 대독점체들의 대독점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장경제의 주역으로서 비화될 수 만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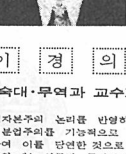
기업계 입장에서는 오랜전부터 민간주도형경제를 주장해왔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독자적 노력에 의한 합리화를 저해해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수있다. 관료주의적경제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은 경제학에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자유경쟁원리에서 누누히 강조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지적되지않으면안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비교적 자유경쟁이 유지되던 19세기중반까지의 서구 자본주의는 19세기말의 불황기의 대독점체들의 출현에의해 결정적으로 동괴되었다. 물론 그이전부터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30년대에는 대관료요구에 의해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자본주의국가를 만든바고, 대독점체 노동조합일 정부개입이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위에서 경제가 운영되고있다. 다만 탈라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제도화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바뀌고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유경쟁의 개념은 19세기적인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세력간에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과점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의 윤리도 독점적 기업의 힘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견제력이 강화될 때 자연히 한인되는 것이지, 기업가들의 개인적 윤리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정축재문제,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금융특혜사건, 삼분특혜사건, 한비밀수사건, 1970년대의 삼성스테기사건등 많은문제가 일어났는 때마다 기업가의 윤리의식에 대한 지탄지만, 이 것은 현정체로도 막는 임법이나 제도화의 노력은 극히 적었고 그것은 전제합한한 사회적 전제세력도 한성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초에 독과점규제요구가 제기되었지만, 독과점규제는 제정되지 못한채 공정거래법의 일부분으로 끝수되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경제성장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요구하며 경제의 질적개선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결대적 영향력에 비추어 독과점인정의 기업윤리가 강조되는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윤리에 관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 경 의

<숙대·무역과 교수>

국제자본주의 논리를 반영하는 국제분업주의 정책적 지원으로 이해하여 이를 단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외존적 국민경제구조가 필요의 결과로 된다는것은 뚜한다.

둘째로 대내적으로는 중종적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문한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민족자본이 주된 생산력 기반으로 될때 이루어질 수있다. 외국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관료적 독점자본의 논리가 아무런 제한없이 관철되도록 허용되면 산업구조에 있어서 대내적 분업보다 대외적 분업을 심화시킬 것이기때문에 산업간 불균형성과 편협성이 심여, 이중구조의 심화, 나아가서 국내 생산력기반의 약화와 성장잠재력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세째는 대외및 대내적인 경제적 모순을 극복, 조정할 수 있는 민주적 경제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계층간및 경제제조건의 조화있는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기능의 상승적작용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논리라는 것이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발전략이 내연적(intensive), 내향적(inward-looking) 그리고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의 방향으로 전환될때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19 기념논문

4·19 기념논문

「남고 꺾데기는 가라」 사원도 알맹이만

김 종 철

<전 동아일보기자>

<신동엽의시 「껍데기는 가라」에서>

1. 머리말

「서울도/해 솟는 곳/동쪽에서부터/이어서 서남 북/거쳐 거닐다다/손아귀에/들 벽들을 부들런 채/삐지어 나온 젊은 대열」

(신동문, 「아! 신화 같이 다비데군 (群) 들」의 앞부분) 이 이승만의 독재체제를 부셔트린지 이제 22년이다.

동학혁명, 3·1운동과 더불어 우리 근대사의 3대 사건을 이루는 4·19는 민중 자신의 투쟁을 통해 자유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사건보다 더욱 빛나는 것이었다. 한때는 4·19가 혁명이나 의거나를 를 떠서고 학자들, 정치인들사이에서 논쟁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문 것같다.

민중의 투쟁을 통해, 피의 댓가로 성취된 4·19는 정치·사회적으로 뿐만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자못 컸다. 피상적으로는 민중이 1년 남짓밖에 그 열매를 향유하지못한 「실패한 혁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에 자유당 치하 못지않은 억압이 자행되고 사회의 모순이 격화되었을때 4·19는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 (이 속에는 젊은 문인이 포함된다) 에게 용기를 주고 여사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었다.

필자는 4·19가 우리의 문학에 미친 충격과 영향제의 처리에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무렵에도 김수영은 「가다오 나가다오」 같은 시에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날카로운 역사적, 사회적 통찰력을 보였다.

1961년 5월을 기점으로 김수영의 시는 그 음조가 급격히 바뀌고 내용이 난해해진다. 이것은 비단 김수영 한사람에게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가 4.19이후에 가장 우렁차고 날카롭게 노래했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화는 더욱 눈에 두드러진다. 6월에 첫 편을 발표하기 시작한 연작시의 제목은 「신귀거래」(歸去來) 였다.

내가 정말 시인이 됐으니 시원하고
인제 정말
진짜 시인이 될 수 있으니 시원하고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
이건 진짜 시원하고
이 시원함은 진짜이고
자유다

(「신귀거래 2」 「전문 (傳文)」의 마지막 부분)

「정말 시인이 됐다」는 전년소적 표현이다.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원함은 진짜이고 자유다」라는 구절은 「이번에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세기가 피며라도…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기도」의 부분) 던 바로 그 시인의 외침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엄부용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4. 19의 참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시는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혁명의 과열과 변질을 소재로 삼은 「그 방을 생각하며」나 「하…그림자가 없다」(「현실」)은 이 작품이 1960년 4월 3일에 발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필자주) 에 이르면 벌써 김수영의 시 특유의 반복과 역설, 비약과 반전(反轉), 단절과 압축을 난해하고 복잡한 현대적 테크닉이 등장하게 된다.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1976년 겨울호)

61년 6월27일에 발표한 『신귀거래3』 『등나무』 제8편에는

우물이 말을 한다
어제의 말을 한다
「통, 탱, 통, 탱, 정, 정, 쟁……」
「엄마 안 가?」
「엄마 안 가?」
「엄마 가?」
「엄마 가?」

처럼 그 앞의 연들과 관련해서 음미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을뿐 아니라

(「거대한 뿌리」 일부)

이것은 다시 모더니즘의 늪 속에 빠졌던 김수영으로서는 과격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싫고 요강, 망건, 곰보, 애꾸 등 우리 민족이나 문화를 구성하는 단편 (斷片) 들이 좋다는 고백만으로 그가 이말에 전경으로 「거대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 문제가있다. 그가 68년 6월 1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시는 민중의 문화 속에 뿌리를 박지 못했던 것 같다.

필자는 바로 이것을 김수영의 『풀』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가 『사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부르짖었을에도 불구하고 시적으로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것은 4.19의 열기속에서 솟구쳐 올라온 민중의 지

4·19정신과 우리의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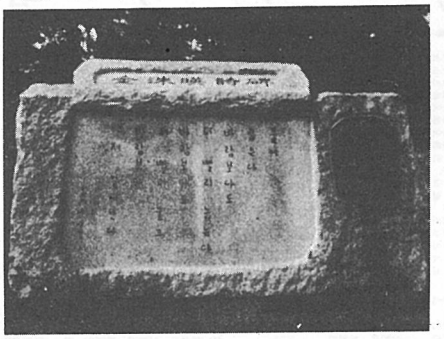
김수영과 신동엽을 중심으로

김수영—통렬한비판, 역사의식 보여
신동엽—잔잔한 민중적 서정 노래

이 두사람의 갈망은 민족 문학의 주제

시적인 감동도 주지 못하는 어휘의 나열이 나타난다.

「시계도 없다/집에도/물에도/그러니까/the reason why/you don't get/a/clock/or/a watch 마저/말할 필요가 없다.」(『신귀거래 9』 「이놈이 무엇이지?」의 주반부) 에 이르면 그가 극복하려고 애쓰던 모더니즘이 최악의 형태로 재현되었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창동 묘앞에 있는 김수영의 시비. 그의 대표작 <풀잎> 이 새겨져있다.

60년대에 대부분의 시인들이 제대로 소화도 못한 외국의 문예사조를 흉내내며 자기도 이해 못 할 시를 쓰거나 감탄적 영탄에 사로잡힐 때 신동엽은 푸근한「공동체적사랑」을 노래했다.

김수영의 시는 그 음조가 급격히 바뀌고 내용이 난해해진다. 이것은 비단 김수영 한사람에게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가 4.19이후에 가장 우렁차고 날카롭게 노래했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화는 더욱 눈에 두드러진다. 6월에 첫 편을 발표하기 시작한 연작시의 제목은 「신귀거래」(歸去來) 였다.

내가 정말 시인이 됐으니 시원하고
인제 정말
진짜 시인이 될 수 있으니 시원하고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
이건 진짜 시원하고
이 시원함은 진짜이고
자유다

(「신귀거래 2」 「전문 (傳文)」의 마지막 부분)

「정말 시인이 됐다」는 전년소적 표현이다.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원함은 진짜이고 자유다」라는 구절은 「이번에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세기가 피며라도…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기도」의 부분) 던 바로 그 시인의 외침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엄부용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4. 19의 참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시는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혁명의 과열과 변질을 소재로 삼은 「그 방을 생각하며」나 「하…그림자가 없다」(「현실」)은 이 작품이 1960년 4월 3일에 발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필자주) 에 이르면 벌써 김수영의 시 특유의 반복과 역설, 비약과 반전(反轉), 단절과 압축을 난해하고 복잡한 현대적 테크닉이 등장하게 된다.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1976년 겨울호)

61년 6월27일에 발표한 『신귀거래3』 『등나무』 제8편에는

우물이 말을 한다
어제의 말을 한다
「통, 탱, 통, 탱, 정, 정, 쟁……」
「엄마 안 가?」
「엄마 안 가?」
「엄마 가?」
「엄마 가?」

처럼 그 앞의 연들과 관련해서 음미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을뿐 아니라

(「거대한 뿌리」 일부)

이것은 다시 모더니즘의 늪 속에 빠졌던 김수영으로서는 과격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싫고 요강, 망건, 곰보, 애꾸 등 우리 민족이나 문화를 구성하는 단편 (斷片) 들이 좋다는 고백만으로 그가 이말에 전경으로 「거대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 문제가있다. 그가 68년 6월 1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시는 민중의 문화 속에 뿌리를 박지 못했던 것 같다.

필자는 바로 이것을 김수영의 『풀』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가 『사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부르짖었을에도 불구하고 시적으로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것은 4.19의 열기속에서 솟구쳐 올라온 민중의 지

◇백제와 향강을 사랑했던 신동엽.

3. 신동엽 탄탄한 시정과 민중적 서정성

신동엽은 4.19세대 시인이었으나, 분단시대의 적후인 59년에 이런말해되찾아 『…… 코리아의 주인은 우리가 될 거야요. 미워할/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들끼리 실컷 미워하면 되는 거야/요. 아 사내와 아사달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무슨 터도 무슨 보/루도 소게해 버리세요. 장칼은 구워서 호미나 만들고요. 담/은 헐어서 토비로나 뿌려세요』라고 읊는다. 분단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민족문학에 대한 이론정립이 시도된 70년대 후반보다 10여년이나 앞서 그가 이런시를 썼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 민족의식에 바탕한 그의 탄탄한 시정신은 67년의 「껍데기는 가라」에서 절정(絶頂)을 낳는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 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항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혁명을 배반한 자들 또는 하위의 문화를 껍데기로, 전경한 민족문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항그러운 흙가슴으로, 전쟁과 폭력과 압제를 쇠붙이로 은유한 이 작품은 17행 속에 민족문학의 전수를 압축하고 있다. 그 어떤 사회과학자의 명쾌한 논문도 이 시의 선명한 메시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신동엽의 장점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 또는 그 살린 바를 아주 지게 표현하는 시정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작품 에서 곳에는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민중적 서정성』(이 용어는「아 당」의 4월호에 신경림씨가 『민중적 리리시즘』이라는 글을 쓴것을 보고 크게 공감하여 필자의 처항에 따라 고쳐 쓴것이다)

김수영의 시는 그 음조가 급격히 바뀌고 내용이 난해해진다. 이것은 비단 김수영 한사람에게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가 4.19이후에 가장 우렁차고 날카롭게 노래했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화는 더욱 눈에 두드러진다. 6월에 첫 편을 발표하기 시작한 연작시의 제목은 「신귀거래」(歸去來) 였다.

내가 정말 시인이 됐으니 시원하고
인제 정말
진짜 시인이 될 수 있으니 시원하고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
이건 진짜 시원하고
이 시원함은 진짜이고
자유다

(「신귀거래 2」 「전문 (傳文)」의 마지막 부분)

「정말 시인이 됐다」는 전년소적 표현이다.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원함은 진짜이고 자유다」라는 구절은 「이번에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세기가 피며라도…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기도」의 부분) 던 바로 그 시인의 외침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엄부용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4. 19의 참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시는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혁명의 과열과 변질을 소재로 삼은 「그 방을 생각하며」나 「하…그림자가 없다」(「현실」)은 이 작품이 1960년 4월 3일에 발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필자주) 에 이르면 벌써 김수영의 시 특유의 반복과 역설, 비약과 반전(反轉), 단절과 압축을 난해하고 복잡한 현대적 테크닉이 등장하게 된다.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1976년 겨울호)

61년 6월27일에 발표한 『신귀거래3』 『등나무』 제8편에는

우물이 말을 한다
어제의 말을 한다
「통, 탱, 통, 탱, 정, 정, 쟁……」
「엄마 안 가?」
「엄마 안 가?」
「엄마 가?」
「엄마 가?」

처럼 그 앞의 연들과 관련해서 음미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을뿐 아니라

(「거대한 뿌리」 일부)

이것은 다시 모더니즘의 늪 속에 빠졌던 김수영으로서는 과격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싫고 요강, 망건, 곰보, 애꾸 등 우리 민족이나 문화를 구성하는 단편 (斷片) 들이 좋다는 고백만으로 그가 이말에 전경으로 「거대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 문제가있다. 그가 68년 6월 1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시는 민중의 문화 속에 뿌리를 박지 못했던 것 같다.

필자는 바로 이것을 김수영의 『풀』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가 『사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부르짖었을에도 불구하고 시적으로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것은 4.19의 열기속에서 솟구쳐 올라온 민중의 지

김수영—통렬한비판, 역사의식 보여
신동엽—잔잔한 민중적 서정 노래
이 두사람의 갈망은 민족 문학의 주제

4. 70년대의 시 (詩): 민족문학의 성숙

70년대의 시는 김수영이 홀자서 부릅켜 안고 외롭게 싸우던 자유의 문제에서 크게 나아가 민족의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갔다. 이것은 여느 개인의 특수적인 업적이 아니었다. 김수영의 이름과 신동엽의 시가,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여기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70년대의 정치사회사와 문학사의 대사건이 문인의 각성에 아무지었음을 잠조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대의 시를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인의 실천을 부르짖으면서 4월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노력한 시인과 작가들의 노력을 민족문학의 범주에 묶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찬미, 억울한 자에 대한 동정, 결핵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갈망이 아닐로 민족문학의 중심한 주제이므로.

원 고 모 집

주간 4·8면으로 증면하여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지면을 할애하고있는 본보 (本報) 에서는 학내 학술단체·스터디 그룹 및 각 서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집필한 연구논문을 모으고 있읍니다.

논문분량: 33매~40매
원고마감: 매주 화요일
체 출 처: 외대학보(학생회관309호)

외 대 학 보

개교 28주년 기념

母校의 무궁한 發展을 願합니다

慶 祝

朝鮮日報 사장 방우영

현대건설주식회사 이사하오문

혜인중기주식회사 전무이사 손규식

유화증권주식회사
서반아어과 1회졸업

주식회사한희 대표이사 김희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무총장 노진식

천경상운주식회사 사장 신기석

무역협회국제부 부장 손완수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사 임창섭

유순

대학인, 공동의 장(場)되야

——외대학보평(評)

안 규 남

없는 문제점을 사설(社說)로 마무리는 것이 옳다 싶다다. 사설이란 「집단이라 정한 문제에 대하여 자체의 견해나 주장을 전술한 글」이다. 대학신문이 사설이라고하면 학내의 행정, 학문적, 도덕적 문제를 이나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내의 주체적 견해나 주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 신문을 대표하는 「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 때 외대학보의 사설이 전정으로 외대학보를 대표하

대학신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든다면 대학사회의 각 성원들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이론의 장(場)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학나의 집단의식을 키워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때 대학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은 교내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관심사까지도 다루으로써 대학인으로서의 의식을 고양시키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대학보의 편집내용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다.

우선 외대학보에 게재되는 논문들이 대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학술논문 일변도여서 소수에게만 읽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 문화란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여성문제나 노인문제등 사회이론에 부응하는 주제가 자주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정칼럼이 많아서 자칫 기자들의 실습지가 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주는데 외대학보는 외대학보 기자들만의 신문이 아니라 외대 전체 학생들의 신문인 만큼 독자들의 폭국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행해야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기고자들도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는 듯하며 편집내용상 다양성이 결여되는

김 순 희

이밖로 학교당국의 대변지가 아닌 학생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는 것같다.

신문이 일방통고식의 회람과 다른 점은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화된 심층취재나 비판이 가미된 해설기사가 보다 과감히 도입되어야 하리라. 보다 업무에 두어야 할것은 단지 신문이 나오기까지의 여건이나 기술적 난점이 아니라 독자들의 피드백 (feedback) 일 것이다.

지면문제에 있어서도 지면의 폭이 넓어진만큼 종합대학교가 된 이 차에 과주 4면·8면에서 배주 8면으로 하루빨리 증면되어야 할것이다.

교수수상란은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교수나 학생이 다같이 외대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을 높혀 주는 장(場) 인것같다. 또한 편집체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이 부러울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로쓰기 체계나 한글전용등은 국어사용에 대한 경기적인 원인이 되지않나 싶다.

이러한 형태의 신문이건 그것이 올바른 여론형성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이 그 신문을 낳게하는 사회권반에 걸친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까지를 제시해 주어야 비로소 여론선도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외대학보가 학생들의 권익문제나 사상적 이념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얼마만큼 학생들의 편에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바스(bOX)기사는 외국어대학이라는 외대의 특성때문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해주는 것으로 믿어 계속 지향되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외대학보는 편집자와 독자층과의 의심만회한 교류의 뜨락으로 영원히 발전해야 할 것이다.

(IC·4)

첨예한 객관성,엄정성 유지해야

걸러지고,걸러진 자세의글 절실

안 규 남

없는 문제점을 사설(社說)로 마무리는 것이 옳다 싶다다. 사설이란 「집단이라 정한 문제에 대하여 자체의 견해나 주장을 전술한 글」이다. 대학신문이 사설이라고하면 학내의 행정, 학문적, 도덕적 문제를 이나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내의 주체적 견해나 주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 신문을 대표하는 「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 때 외대학보의 사설이 전정으로 외대학보를 대표하

설실한 필구의 결과하기보다는 학문적 허영의식의 산물로서의 학생논문은 대학신문의 결격제자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이것의 방지를 위해서는 외대인전체의 각성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와 밀리 주제와내용을 미리 계획하여 연재하고 있는 「자유 시리즈」는

문학나 사회문제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점이고 「미네르바」는 주로 개인적 성찰의 장을 설정상 주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권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반성적 시고에 기반을 둔 지적정직성의 결핍로 귀착된다할 수 있다. 문학평이며 또는 현학적인 문장들은 전지당 존 자한 설경한 느낌즉주 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가지지 못해 답답고자 하는 바가 있음교련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직한지 못한 세련됨보다는 정직한 투과함이 읽는 이의 동감을 얻는 법이다. 독자들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정직한 글을 부탁한다.

2면에 실리는 사설 (한

여성문제·문화란 비중 높여야

학생대변자의 기능 잘수행해야

김 순 희

읽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아카데미즘 (Academism) 으로 흐르는 느낌이 든다. 원만히으로 큰 폐심꼴의 내용들이 취재전이나 편집전에서 게이트키핑 (gatekeeping) 되는 시대에서 독자에 외해서도 계으트키핑되는 시대이니 만큼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아카데미즘적인 내용은 아무리 대학신문의 특색이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Journalism) 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자칫 많은 학생들로부터 도외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 문화란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여성문제나 노인문제등 사회이론에 부응하는 주제가 자주 취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정칼럼이 많아서 자칫 기자들의 실습지가 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주는데 외대학보는 외대학보 기자들만의 신문이 아니라 외대 전체 학생들의 신문인 만큼 독자들의 폭국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행해야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기고자들도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는 듯하며 편집내용상 다양성이 결여되는

외대학보,외대인 토론의 장되길

『더의 신문 요를 잘 나온다며?』이는 유신말기 언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대학언론도 그 파장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대학신문기자들이 서로 냉소적으로 내뱉던 말이다. 일인독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었던 유신헌법에 대하여 일체의 비방과 보도를 허락치 않았던 그 당시에는 오히려 자주 보도집필에 걸려 이상일 높게 배부된 신문이년 구문 (舊聞) 이 더 인기가 있을 때다.

먼게 이런 필곡 (屈折) 의 외부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며 27주년 창간기념일을 맞이 한 외대학보에 영광을 드리고 싶다.

사위지기자사 [士爲知己者死]. 선비는 모름지기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중국 위 (魏) 나라 후영의 고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독자를 위해서 쓰인글 해야 하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소중히 여기는 「글 쓰는 이」는 오명을 두려워 해야 하며 한톨의 글귀에서 눈물흘릴 수 있는 맑음의 글을 섭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 본다.

아마 대학신문 기자라면 누구나 다 문배문배 상처 뽑인 심문기를 통틀 평개 뭐 비리는 독자들을 바라보며 희한과 수치의 눈물을 삼켜본 기억이 있을것이다. 자신이 내놓은 활자 뭉치가 내팽겨져지는 그순간 우린 거름 낱 톤비를 해야 한다. 비극은 극복될 때 비로소 비극이라 할수 있다는 창조적 비극론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탈해,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빛좋이 만개하여 그 태탕함을 자랑하는 「미네르바 동산」이 외대인의 슬렬이 뛰노는 사색의 광장이듯 외대학보가 외대인의 토론장이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촌산」의 모든 고뇌와 한이 그 속에서 용해될 수 있도록 믿이다.

외대와 외대학보의 건투를 빈다.

<김민배·고대신문편집국장>

창간 27주년을 축하하며

창간 27주년을 맞는 외대학보.

해마다 돌아오는 창간기념일은 한 번씩 지나칠때마다 축하와 함께 책임은 더욱 무거워져 간다. 언론만으로 만족할수 있는 「대학」이 아닐뿐더러 만족해서도 안되는 「대학」이기때문이다. 창조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서의 연륜만이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인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자부하지 말라. 아직까지 대학은 정도에 있지 못하고 있다. 오만함섞인 자부심은 대학인의 잠꼬대일 뿐이다.

신문은 매주 한번씩 나오는 것으로 할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창조의 고통을 감내해 나갈 수 있는 대학신문만이 바로 대학 그자체이며, 외대의 미래, 바로 모습일 것이다.

오즈음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또한 대학신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는 곧 「창조」의 기능을 다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쌓여만 가는 것이아닐까.

어떤 이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라고를 말한다. 어떤이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신문이어야 한다고말한다. 그렇지만 역사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지는」 것이며, 아픔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앓게하는」 것이다. 신문에 까만 활자가 한 자 한 자 새겨 지고 그것이 대학인의 손에 쥘려질때 그 때부터 역사는 기록되어지는 것이다.

외대학보를 보는 나는 항상 과분하다는 느낌을 가진다. 막연한 느낌으로 쫓낳 수밖에 없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속에 외대인의 긍지와 창조력이 보인다.

「획일적이 없는 행동」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의 대학신문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은 넋두리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참비하게 부관심하고, 무력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만을」이라고 고집하길 좋아하는 대학인들이 많아질 수록 외대학보는, 또한 대학신문은 그들이 해내야만하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있을 것이다.

<정지영·연세춘추편집국장>

「창조」의 고통 스스로 감내해야

낭만과 지성, 젊음이 숨쉬는 곳

외대촌을 돌아본다

대학이 흔히 고고(孤高)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상다답을 들면만 이상이 현실로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개 대학촌의 낭만을 겸주지 못 대학생이면서 사고만 할 것이다. 흔히들 소문으로 들어온 파리의 시가 한 구석 「카르 데몬트 파—쁘」이라는 거리를 슬쩍복을 입은 학생들이 바쁘어를 외더 오가는 정경이나 학문과 예술의 거리로 시달리소르본의 유서깊은 대학은이나 한 뜨시가 지점하고 그그한 지대를 좋긴다는 한 이쁘비르로, 수소브릭지나와 버트의 낭만과 지성이 각 대학촌들이 짧고 반 일본 대학촌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전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대학주변의 현황 1980년대를 대비할 때 우리는 전설이 담긴 거리와 추억하나로 다 이룬 듯 상징탑이나 바라보지 필다.

본교를 주변으로 한 주점들의 형태와 하숙집, 당구장 등을 대학가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의의 점은 대한 답은 대개가 보정적이지만 대학을 주변으로 서리진의 이야기가 서린 곳은 본명 주변으로나마 존재한다 하겠다.

이문동과 휘경동의 거리는 80년대에 들어 졸업정원제 실시와 함께 급격히 증가된 대학생원에 비례하여 기존의 시설이 확장정비되었으며 탑구장과 주점의 신장개업을 계속되었다.

봉황·파리등지에 따른 용돈사정의 악화와 휴교령에 따른 몇 차례의 불경기가 지나갔다고 하나 늘어난 주점과 비례하는듯 술잔수는 비워져 갔고 다방은 테이블당 좌석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가급적 학교를 찾는 몇몇 선배나 교수님들의 달갑지 않아한 모든 자리가 60년대식의 패기와 오만도 없고 70년대식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내면의 대화도 풍성치 못하다는 풍속도의 변천을 읽을 수 있다.

상거래의 경쟁상태가 증가한결 고객에 대한 친절이나 이익도 정비해 한다는 일반원칙도 무시된 채 오히려 작파해진 신흥업소의 세태뿐만 아니라 「B학점을 위한 주점」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만한 낭만과 면학이 공존하는 강소도 사라졌으며 서점과 수나 양서공급기의 부족도는 여나 지금이나 별다를바없는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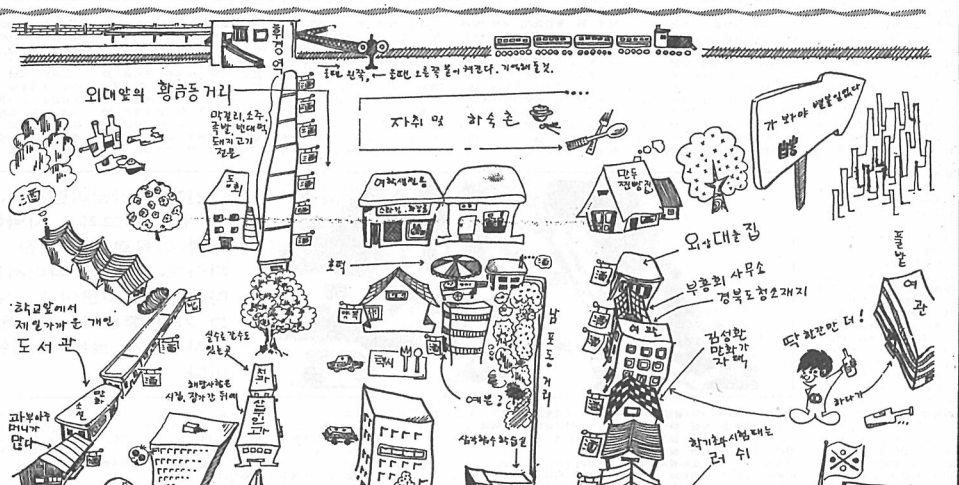
K다실, N경양식, J다실 T주점, N주점등이 그래도 우거진낭만을 즐길만한 곳으로 학생들사이에서 평가된다고 하지만 본교 주변의 업소들은 보다 정결한 환경과 자연스럽, 부위기, 친절한 서비스로 면학을위한 한 쉼터와 낭만을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 대학의 대학촌주변 상도 들이 모여 장학기금 모금이나 후원회 조직등은학생들 단지 일리 대상으로만 생각하지않고 함께 배움의 터를 마련하는데 힘써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학가도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증대를 가져 오기위해 대학주변의 주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대학인 하나하나에 의하여 생성되는 멋과 지성의 풍속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휘경 로터리서부터 K식당까지 이어진 연년이나 그곳의 여러 갖춰 공목집에 들어난 것은 가시적인 당구장과 복사간소 또는 주점간판수나 찻잔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화, 우리들의 부푼는 꿈을 꾸는 낭만이기 위하여 무들한 우리들의 「함시, 함마디의 지성, 현실」들의 장렬이 결실하다라겠다. <심상철기자>

<컷·김선호 기자>



개교 28주년 기념

母校의 무궁한 發展을 祝願합니다

주식회사 새로나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박 세 용

태롯 홍데 건관 설광 주주 식식 회회 사사
대표이사 김 기 병

제일은행 종로지점
지점장 이 상 연

삼성물산 경공 업
본부장 상무 윤 기 선

도만상사주식회사
대 표 이 강 사

금성통신 시판영업
본부장 이 봉 주

동방선박 주식회사
영업부 부장 유 재 훈

동방산업 주식회사
전무이사 민 병 용

선우상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용

오만과 빈창

개교28주년 기념소설

송 영

·작가약력

전남 영광 출생
1963년 학국외국어대 독어과 졸업, 제1회 외대문학상 수상
1967년 「창작과 비평」지에 「투계」를 발표, 문단에 데뷔

·주요작품

단편: 「중앙선기차」「원주민」「마네오네집」
중편: 「선생과 황태자」「나의신부에게」의
장편: 「그대눈뜨리」「적녁공원에서」「달빛아래어릿광대」

그는 그가 애독하던 「악령」(惡靈)의 니콜라이처럼 단단하고 중심하며 젊은에 그성격을 중처럼 파악할 수 없을만큼 애매한 친구였다. 나보다는 몇해 아래인데도 중처럼 속을 열어보이지 않는 그의 그런점때문에 그와 마주 서면 도리어 서로 나이가 뒤바뀐듯한 착각을 느낄때가 있었다. 아무튼 당시 이 도시적 감수성으로 단련된 조그만 친구는 내 앞에 하나의 경이로서 나타났다. 과문의 탓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그만큼 오만하고 나이에 비해 그만큼 듬직무쌍한 친구를 만난 일이 없었다.

김동수는 정말 오만한 녀석이었다. 지극히 사소한 사부적 용건때문에 처음 동수를 만났을때 나는 그의 안하무인적인 오만한 태도에 그만 질려버렸다. 나의 용건이란 당시 병사가 되어있던 그의 고교때의 은사에게 어떤 공적인 보인에의 초대를 전해달라는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는데 김동수는 내 설명도 채 듣지 않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다. 그리고 김동수는 피차 상대에 대해 거의 이름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백지상태였긴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를 잔뜩 경멸하고 있다는 듯한 냉시불쾌한 눈초리로 나를 흘겨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이따위 피덕지않은 녀석과는 두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지 이제 겨우 몇해가 지났을 뿐인 나는 그 무렵 사람의 평판과 언어에 지나칠 정도로 단순한 반응밖에는 나타낼줄 몰랐다. 나는 정말 초면의 인간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표시할 줄 모르는 그 녀석에 대한 불쾌감을 갑주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다.

김동수와 나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별다른 작별인사도 없이 곧 헤어졌다. 물론 내가 그녀석을 만난 목적은 허사가 되었으며 내게는 이상할 정도로 쉽게 잊혀지지않는 묘한 처육감만 남은 셈이었다. 나는 김동수와 다시 만나리라곤 꿈에도 그때는 상상도 못했으며 또 만나야 할 필요도 이제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역시 알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학교 복도에서 지극히 거만한 눈초리로 나를 흘겨보던 약간 키가 작고 뚱집이 단단한 그녀석이 이 결국 내 생애의 방향을 결정지었던 것이다. 그녀석을 처음만났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몇년이 지날 때까지도 물론 나는 그 사람을 까마득히 몰랐다. 내가 그것을 깨달기까지는 거의 이십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해나하면 그것을 깨닫기위해서는 먼저 내 생애가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정착해야했던 것이다. 이제 이십년이 지난뒤에 나는 새삼 그 사람을 깨닫고 스스로도 매우 놀랐다.

인간의 만남이란 것이, 그것이 우연히,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크게 파문이 번지는가, 그 가장 좋은 예를 김동수와 나사이에서 보는 느낌인 것이다.

첫대면이 있은뒤 몇달이 지나서 그아말로 우연히 우리는 다시 만났다. 비가 연수복밥 쏟아지는 밤이었다. 나는 어떤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열시가 지나서 겨우 새종로의 거리로 나왔다. 내가 밖으로 나와서 불과 몇걸음 채 걷지 않았을때 갑자기 누군가가 내 우산밑으로 불쑥 뛰어들었다.

『잠깐 신세 좀 져야겠소.』

상대는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를해왔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몇달전 잠시 학교 복도에서 만난 일이 있던 김동수 그녀석이었다. 금방 불쾌한 기억이 내게는 되살아났다. 나는 심짓했다. 하필 이런때 이녀석과 마주침게 뭐람. 좋은 음악회에서 갓 나왔을 때의 나른하고 약간 달콤한 기분을 겨어본사람이면 다 알았던 것이다. 그녀석의그처럼 난폭한 태도를 단순히습관이랄수도 없었고 위악적인자기자시라고 하기에도 애매한구석이 있었다. 그 애매성이 한동안 나의 속에있어, 그때문에 그 불쾌감이 쉽게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우산을 쓰고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걸어갔다. 김동수가 다시 먼저 입을열었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나는 내심 그를 경계하며얼떠이에게 대꾸했다. 그러자 그가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지금 나하고 우리집에 갑시다. 함께 가는거죠?』

나는 이 갑작스런 제안에미처 대답을 못하고 잠자코 있었다. 그녀석은 그제께 나의집 옥을 몽의로 빗대로 생각하고 말했다.

『우리집으로 갈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안암동이 어느쪽인지 아시죠?』

『난 지금 갈 수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소?』

『특별한 일갈건전 없어요. 아니, 왜 못 가겠다는 겁니까? 그럼, 나더러 이 비를 맞고 혼자 걸어가란 말입니까? 참 잔인하시군요.』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겠소.』

『하하하, 버스비도 없습니다. 버스비를 주어주겠다고 하시겠죠? 난 돈 같은것 빌려본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오늘밤은 우리집으로 가줘야 하지 않겠소?』

김동수는 아예 한손으로 내 팔을 꽉 붙잡았다. 내가 몇대 나는 그를 버리고 달아나지못하게 하기위해서였다. 그의 완력이 생각보다 강했다. 아니 이유였겠지만 그때 이미 나는 동수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걸 깨달고 있었기때문에 그 고약한 달아날 생각을 그만포기하고 말았다. 김동수는 결코 무모하게 내우산 밑으로 뛰어든것도아니었고 명목적으로 나를 자기네집으로 끌고 가려고 한것도 아니었다. 잠시뒤에 나는 그사실을 좀더 확실하게깨달았다.

『노형이 작년에 학교 신문에 「예피의 능금」이란 콩트를쓴 필이 있죠?』

오래 침묵을 지키다가 안암교를 지나며 동수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그런데요…?』

『역시 그랬었군. 그 글이 내기억에 남아있었소. 작가의 이름은 금방 잊어먹었지만』

이녀석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마치 꼰하생을 거느린 대가의 말투를 흉내내고있었다.

『그런데 지난번 복도에서 노형을 만난뒤에 나는 혹시 이 사람이 「예피의 능금」을 쓴자가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추측해봤소. 역시 내 추측이 맞았었군』

나녀석을 여전히 대가의 말투를 쓰고 있었는데 흉내치고는 꽤 익숙한 솜씨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나는 이 거만한 녀석에게 하치않은 몇줄의 글을 인연으로 뒤늦게 인정을 받은 꼴이었다. 어두운 밤길에서 우연히 내 우산 밑으로 뛰어든 동수의 돌발적인 행동은 따지고보면 결코 무모하거나 우연한 사건에 계절려진 행동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석에게 그토록 심한 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그 몇줄의 글의 힘에 나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녀석처럼 도시적 감수성으로 단단하게무장된 인간 앞에서는 아마 웬마디의 음변 따위도 한낱 코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뒤에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이런놈자에도 어떤 시위에도 너석은 눈한번 까딱하지 않을만큼 자기확신에차 있는 인물이었다.

나는 그날밤의 일을 오래도록 잊지못한다.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미리 준비된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다. 다만 두사람이 좁은 방에서 조용히 밤을 교차 새운것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이나 그이후에도 그때처럼 다른 어떤인간으로부터 신선한 감명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날 그가 내게 안겨준 인상은 정말이지 청년의 아름다움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한마디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의 집에 닿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제 녀석을 피해지않게 전방전 녀석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음지, 네놈은내게 오늘밤 네 집의 드높은담장과 우람한 대문, 그리고 은밀한 정원이나 드넓은 이층의 응접실을 흘내려고 하는구나.

그때서 네놈의 그 오만불손한 태도가 전혀 부리없이 들출한 엉뚱리 수작만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녀석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담벽도 없었다. 내가만나본 지금까지 그 어떤 관지벽과 두리의 지붕으로 세워진 빛깔의 바라크였다. 그 가건물은 민가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배기 아래, 마치 쫓겨난 의붓자식처럼 홀로 서있었는데 주위에는 가등이 없었고 전물안에도 불빛이 없어서 일대가 완전한 암흑에 묻혀 있었다. 바람과 빗줄기가 심하게 바라크가 서있는 비탈을 휩쓸고 있었다.

동수는 괴상전의 한쪽 끝에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집안에 불빛이없는걸로 보아 그의가족들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다. 방안으로 들어간 동수가 양초를 찾아서 성냥으로 양초에 불을 켰다. 그는 밖에 서있는 내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바람이 심해서 정전이된 모양입니다. 괴롭지만 조금 기다리면 곧 전등이 켜질거요.』

나는 동수의 비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사방은 고요해졌다. 그의 방한복에는 이부자리가 그대로 깔려있고 책이며 원고뭉치,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던져둔 물감이며 화구따위가 방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의 빈곤 때문에 놀란게 아니라 나의 빈나간 예측의 어리석음에 놀라서 방 한쪽 구석에 멍청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노형, 저녁식사 안했죠? 가만계시오. 내가 밖에 좀 다녀올께요.』

김동수는 내게 말하고 비오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불과 오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커다란 봉투를 가슴에 안고 비에 젖은 머리칼을 한손으로 쓸어 올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가 봉투를 풀어내자그 속에서 날계란 여섯개, 유리종이로 포장된 공장제품 빵세개 오징어 두마리, 사이다두병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시장하실텐데 우선 요기를 합시다. 식구들이 잠을 자지않으면 저녁식사도 대접할 수 있을텐데 너무 늦어서 틀렸소. 자, 이거.』

그는 계란 하나를 내손에쥐어주었다.

『큰쇠에 가게도 없는것 같던데 이걸 어디서 사왔소?』

『사온거 아니라 훔쳐왔지요. 그러나 안심하요. 우리 아버지 구멍가게에 몰아가서 숨혔했으니까. 아까 올때 짱깡해서 못보셨겠지만 이 건물에 사람은 가게가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곯집을 걸고 있으니까 들킬염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막대한 분량을 훔쳐내면곧 빈자리가 드러날텐데.』

『그 양반은 멍청해서몰라요. 이게,어디 한두번겐가요? 얼려 받고 먹음시다!

간이식사가 끝났을때 전등이 거짓말처럼 켜졌다. 동수는 촛불을 꺼버렸다. 내 시야에는그의 방안 풍경이 마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딘가에서 뿜가색고 있는듯한 뭐뭐한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 내 시야에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사물마다 빈궁에 찌든 흔적을 더욱 세밀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그 방안에서 당장 들고 나가서 돈이 되어줄만한 물건이라 보려 못했지만 찌어도 그의몇마디 해설만으로도 나는 그의 작품에 상당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미시아이 전공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대단한 애호가였다.

그때문인지 그는 한동안 나에게 스탈자크프, 푸이어킨공작스테판 트로피모비치등, 그 위대한 대가의 작중 인물 성격에 대하여 자기소견을 한동안 해설을 겸해서 들려주었다. 나는 두로 듣는 입장이었고 그는 주로 얘기하는 화이었다. 그날밤, 새벽을 지나 이윽이 을 때까지 두사람의 그입장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

새벽이 되었을때 김동수는내게 대학노트 열권분량의 노트뭉치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게 뭐니뭐니해도 나의 대표작이요. 피곤하지않다면 대강한번 보시오.』

그는 방 구석으로 물러앉며 나 무릎을 모아세우고 눈을감아버렸다. 내가 받아든것은 장문의 연서였다. 그것은 김동수는 인간, 그처럼 무모한 감정의 소모전에 자신을 내어던질수 있는 인간을 깊이 사랑했다.

그가 오만해도 좋고 차바퀴 그런 인간의 오만이라면이 죽에서 도리어 기분이 유쾌한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 이미김동수는 한사람의 작가가 되어있었다. 그는 미래에 그 깊을 가도록 이미 그때부터 정력전인물이었다. 그런데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김동수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 버렸다.

그 화려한 무대를 향해 이바라크의 방구석에 엎드려있던 김동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돌진해간다. 마치 동기효력의 명쾌적인 돌전을 연상시켜주는 김동수의 그때한 사람의 발식에 나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속으로 웃고 또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허탈한 웃음이었다. 가난이라면 나도 역시 익숙한 세계였다. 김동수처럼 아직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자기 감정을 불태워본 경험은 없었지만 그런 방식의 사랑이 어느정도 슬픔과 허망을 안겨주리라는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는 하나의 불평이며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기묘한 것은 그때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해야했다는 확정도 없이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품고있던 내 자신이 거꾸로 지금껏 못을 잡고 있으며 나를 이혹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김동수라는 사실이다. 동수는 나를 그의 친구였던 시인 C씨에게 소개하였다. C씨는 당시 막 창간했던 잡지의 편집인에게 다시 나를소개했던 것이다. 그 소개장도는 당시로는 그랄게 손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니었다.

바로 그직전까지 직업에대한 확실한 확정도 없이 막연하게 서성거리고만 있던 내게 만약 그때럼 손쉬운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계으른 내 성격으로 봐서 내가 과연 작가의 길로 선뜻 들어설 수 있었을까? 내가 봐로 그 직전까지 서성거리고만 있었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어려가지 직업에대한 내 나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는 하지할은 소름인 「예피의 능금」이 내 생애에 미쳤던 과문을 돌아다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확고 복도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때 사곳 오만불손하게굴던 키가 자그맣고 뚱집이 단단한던 그 친구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해 버렸다는 사실에도 같은 의미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때 바이얼린의 태양이란별명을가진 마빈 지포린의 연주를 막 듣고 나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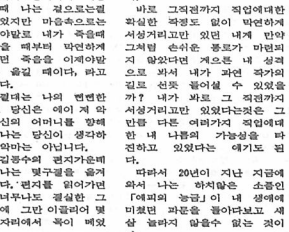
가난한 청년에게 감미로운 음악은 오뉴월의단비처럼 절실한 것이었다.

내 정서는 그단비로 칠월의 숲처럼 축축히 젖어 있었다. 나는 그런기분을 그녀석에게 금방파괴당하고말았다.

인간의 만남이란것이, 그것이 우연히,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크게 파문이 번지는가, 그 가장 좋은예는 김동수와 나사이에서 보는 느낌인 것이다.

1971년 어느날
신문을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읍니다.

株式会社 柳韓洋行



이 말은 국민학교 6학년도 덕교과서에 「사회는 되돌린 소득」이란 과목의 첫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한양행의 창설자이신 유일한 박사가 그의 전재산을 사회와 교육 그리고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내놓은 유언장이 세상에 밝혀진 날이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있었지만 자기 생애를 통하여 이룬 모든 업적이 온 국민의 보상과 사랑의 덕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한평생과 사랑의 은혜를 나라와 사회에 되돌린 사람은 일찌기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신을 돌은 국민의 마음은 더욱 흐뭇했읍니다.」라고 도덕교과서에는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로부터 10년 유한양행이 사회로 되돌린 이윤의 41%는 직업도 자라나는 소년의 기술교육에,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의학교육에 노력은 있으나 학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의 장학금에,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교육에 값지게 쓰여지고 있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삶을 누리야 할 권리와 건강에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닌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저희 유한양행은 더 좋은 약, 꼭 필요한 약을 만들어 여러분의 건강생활을 돕는 한편, 기업이윤을 통한 남는 이윤은 여러분들에게 되돌리어 보다 살기좋은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겠읍니다.